김해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구

2019년 12월

김해시

제출문

김해시장 귀하

「김해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진

연구책임자
장현선 (주)장앤파트너스그룹 대표

연구자문
여미진 김해시복지재단 팀장
최새미 김해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팀장
신현승 김해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시민협의체 위원장
이한준 우리동네사람들 사무국장
김기언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
천정희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센터장
허정은 김해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이영준 김해문화재단 문화정책팀 팀장
정 면 김해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PM
손민지 김해문화재단 문화정책팀 과장
한경동 김해문화재단 문화정책팀 대리
조가현 김해문화재단 문화정책팀

연구원
윤혜란 (주)장앤파트너스그룹 이사
김수진 (주)장앤파트너스그룹 연구원

(주) 장앤파트너스그룹

본 연구의 내용은 김해시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 차

Ⅰ. 서론 ····· 3
1. 조사 배경 및 목적 ····· 3
1) 조사 배경 ····· 3
2) 조사 목적 ····· 7
2. 조사 범위 및 방법 ····· 8
1) 문헌조사 ····· 8
2) 전문가 조사(FGI) ····· 10
3) 설문조사 ····· 11

Ⅱ. 김해 현황 파악 및 선행 연구 분석 ····· 15
1. 김해시 현황 분석 ····· 15
1) 김해시 인구 및 도시구조 ····· 15
2) 경제 현황 ····· 19
3) 소수집단 현황 ····· 20
4) 내부여건 분석 ····· 22
2. 문화다양성 관련 선행연구 분석 ····· 28
1) 문화다양성 정의 ····· 28
2) 문화다양성 범위 ····· 29
3) 문화다양성 주요 선행 연구 ····· 31

Ⅲ. 김해 문화다양성 전문가 회의(FGI) ····· 39
1. 김해 문화다양성 설문 지표 개발 ····· 39

1) 김해 문화다양성 설문 지표 개발 원칙 ····· 39
2) 설문지표 개발 단계 ····· 40
2. 1차 전문가 회의 ····· 41
3. 2차 전문가 회의 ····· 46
1) 설문초안에 대한 논의 ····· 46
2) 조사내용 및 방법에 대한 논의 ····· 48
4. 3차 전문가 회의 ····· 50
1) 설문조사 결과 논의 ····· 50
2) 문화다양성 관련 향후 방안 ····· 53

Ⅳ. 김해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결과분석 ····· 57
1. 응답자 특성 ····· 57
1) 응답자 기본 특징 ····· 57
2) 김해시민의 정주 인식에 따른 응답자 특성 ····· 59
2. 문화다양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 ····· 63
1) 우리나라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 63
2) 김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 67
3. 소수집단에 대한 경험 및 인식 ····· 73
1) 김해시민이 인식하는 김해지역 내 소수집단 ····· 73
2) 소수집단 접촉 경험 ····· 80
3) 소수집단 활동 경험 ····· 85
4) 소수집단 수용 의향 ····· 90
4. 사회갈등 현상에 대한 인식 ····· 98
1) 사회갈등 현상 종합 ····· 98
2)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 ····· 99
3)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103

4) 인종 갈등에 대한 인식 ····· 107
5) 지역 갈등에 대한 인식 ····· 113
6) 지방 차별에 대한 인식 ····· 116
7) 종교 갈등에 대한 인식 ····· 118
8) 1인 가구 차별에 대한 인식 ····· 120
9) 사회갈등 현상 개선 필요도 ····· 122
5. 김해지역 문화적 경쟁력 강화 방안 ····· 127

Ⅴ. 요약 및 제언 ····· 133
1. 김해시 특징 파악 ····· 133
2. 김해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개요 ····· 133
3. 김해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주요 내용 ····· 134
4. 김해의 문화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언 ····· 138

Ⅰ. 서론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조사 범위 및 방법

Ⅰ 서 론

1. 조사 배경 및 목적

1) 조사 배경

□ **문화다양성은 시대의 흐름,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사회갈등 요소가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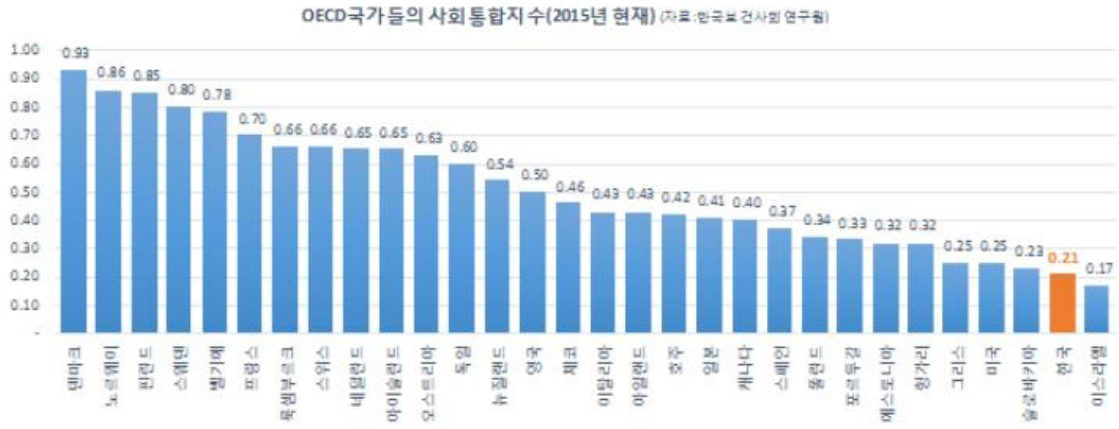
○ 2018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수는 이미 236만명, 외국인 주민수는 16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2~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슬람 국적 사람들의 방문 증가 등 국내에 거주하는 국적 또한 다양해지면서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 또한 다양해지는 상황임.

○ 김해 또한 2018년 기준 외국인 주민은 2.5만명으로 김해 인구 중 약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 외국인 수 기준 약 1.9만명) 타 도시 대비 외국인 수 비중이 높아 일찌감치 문화다양성은 김해의 사회적 담론 중 하나로 대두되어 왔음.

○ 외국인 뿐 아니라 성(性)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 또한 오랫동안 갈등의 요소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으며 경제적 격차, 정치, 종교로 인한 갈등 등 저마다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임.

○ 다양한 문화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갈등은 나아가 지속적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1]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보수와 진보, 경제적 격차, 근로자와 고용주, 세대, 환경개발, 외국인, 종교 간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실제로 OECD 사회통합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하위권에 머무는 것을 알 수 있음.

1) 2016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그림 Ⅰ-1] OECD국가들의 사회통합지수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김해「문화다양성 조례」제정

○ 우리나라는 2010년 유네스코「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비준국이 되면서 후속조치로서 2014년「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다양성법)」을 제정하였음.

○ 이후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총 13개의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김해시는 교육청을 제외하고 지자체로서는 12번째 제정을 하는 도시가 됨.[2] 대전 또한 2019년 11월 25일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음.

〈표Ⅰ-1〉 국내 문화다양성 조례 통과 지자체 요약

구분	지자체명	시행 년도
광역지자체	전남, 광주, 경기, 부산, 서울, 제주, 충북 ※ 대전 (2019년 ~ 2020년 본회의 심의 예정)	전남은 2016년 시행, 나머지 시도는 2017년
기초지자체	목포시(전남), 익산시(전북), 구로구(서울), 강북구(서울) ※ 김해(경남, 2019년 9월 조례 가결)	강북은 2018년 시행, 나머지는 2017년 시행

2) 2019년 9월 20일자로「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가 가결되었음.

구분	지자체명	시행 년도
교육청	경기, 경남	2017년 시행

○ 지자체의 문화다양성법은 2017년에 집중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그 이후는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이며, 그나마 법제정 또한 지자체 시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례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철회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3] 김해 또한 문화다양성법 제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갈등을 봉합하고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임.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2019)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2019)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수준, 문화 향유·창조 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문화도시 예비사업 지역 선정 이후 문화다양성 중요성 부각

○ 김해는 2018년 문체부 평가를 통해 12월 26일 법정 문화도시[4] 예비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 최종 선정을 기다리고 있음.

○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김해는 '공존과 교류의 가야 역사 계승으로 시민이 다 함께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가는 역사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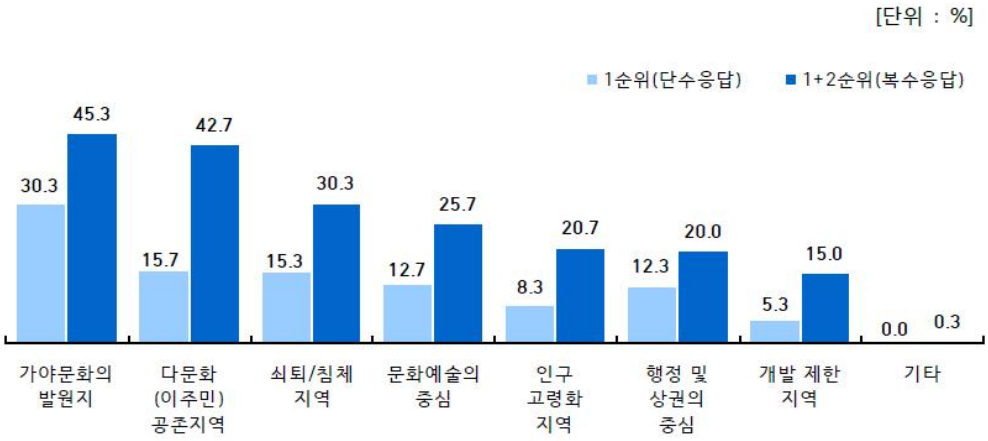
3) 2019년 6월 25일 부천시에서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여러 논란에 부딪혀 상정이 무산됨

4)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2014년)이후 도시의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정된 도시를 의미

중이며, 김해시는 김해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단 주관으로 문화도시포럼, 미래하우스 조성사업, 거점연결프로젝트, 문화도시 페스티벌 등을 추진하여 가야역사 문화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함.

○ 문화도시 추진의 목적이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이며 무엇보다 중앙이나 관 주도에서 지역중심·시민주도형 도시문화를 만들어 가는 프로세스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김해시민의 문화 공동체 확산이 더욱 절실한 시점임. 관이 아무리 문화도시를 표방하여도 시민의 공동체 문화나 문화 다양성이 자리 잡지 않고서는 진정한 문화도시가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임.

○ 김해시민 또한 김해가 가야문화 등에 국한된 지역이 아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라 인식하고 있으며 문화다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그림 Ⅰ-2] 김해 원도심 지역 대표 이미지

※ 출처 :「가야역사와 다문화연계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김해문화재단(2018)

2) 조사 목적

○ 김해시와 김해문화재단은 2014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국고)을 6년간 진행 중임.

○ 김해시는 2019년 가결된 김해시 문화다양성 조례에 기반을 두고 김해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김해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운영하고자 함.

○ 김해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를 통해 김해의 문화다양성 수준을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김해시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함.

01 김해시 문화다양성 조사 분류체계 파악

- 김해시 문화다양성 이슈 파악
- 전국 및 선행 조사등의 분류 체계 비교

02 김해시 인구구조 및 여건에 따른 특징 파악

- 김해시 관련 통계 및, 정책, 사회기반 여건을 반영
- 전국 및 인근도시 (부산), 김해 등과 비교 분석

03 문화다양성 분류체계에 따른 김해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 파악

- 김해시민 대상 설문조사 진행 (400명 이상 확보)
- 해당 문항의 경우 선행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 (전국, 부산 등)
- 주요 인구통계 특징에 따른 차이 파악

04 향후 김해시 문화다양성 정책수립 방향 제시

- 인구구조·정책·여건·시민 인식수준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우선순위 선정

2. 조사 범위 및 방법

○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사 방법을 설정함.

조사 목적	조사 방법
01 김해시 문화다양성 조사 분류체계 파악	문헌조사 및 전문가 회의
02 김해시 인구구조 및 여건에 따른 특징 파악	문헌조사
03 문화다양성 분류체계에 따른 김해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 파악	설문조사
04 김해시 문화다양성 정책수립 방향 제시	전문가 회의

1) 문헌조사

(1)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및 조사 범위를 위한 선행연구 조사

○ 김해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문화다양성 관련 가장 최근에 진행된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을 통한 실태조사」(2018년 12월) 보고서를 주요하게 참조하였으며, 부산 보고서를 포함하여 참조한 선행 연구는 아래와 같음.

- 문화체육관광부(2015).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 (전국단위 조사)
- 광주문화재단(2016). 광주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역단위 조사)
- 인천발전연구원(2017).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연구. (지역단위 조사, 지표개발 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 문화다양성 정책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전략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전국단위 조사)
- 부산문화재단(2018),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을 통한 실태조사 (지역단위 조사)

○ 부산 보고서에서는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표구성 체계 중 측정 가능한 여건지표와 인식지표를 위주로 지표를 구성하였음. '인식지표'는 주로 문화다양성 관련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여건지표는 통계청이나 부산시의 통계자료를 활용한 기초자료 파악으로 이루어졌음.

○ 문화다양성법에 의해 규정된 실태조사의 범위(제8조 2항)는 실태조사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함.

①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② 문화 향유활동이나 창조활동에서의 다양성에 관한 사항

③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관련 시설, 자원 및 인력에 관한 사항

④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현황에 관한 사항

○ 본 조사는 이 중 첫 번째,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진행하였는데 문화다양성 관련 시민 설문조사에서는 세 번째나 네 번째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별도의 행정자료 조사로 확인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함. 시설이나 자원 인력, 제도 등의 문제는 문화다양성 지표 중 '여건지표'와 '정책지표'라 할 수 있으며 여건 및 정책지표는 지자체의 각종 행정자료를 수집해야하기 때문에 본 조사 이후 차후 조사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두 번째, 문화 향유 및 창조와 같은 문화적 표현 이슈는 도민이 아닌 문화적 표현이 제한될 수 있는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부 논의를 통해 조사 범위에서 제외함.

(2) 김해시 인구구조 및 여건파악을 위한 문헌조사

○ 김해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에 따른 인구구조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청 및 행정협조를 통해 다음 관점에서 김해시 인구구조의 특징을 파악함.

- 첫째, 전국평균대비 김해시 인구구조의 특징 파악
- 둘째, 주요 인근 지자체대비 김해시 인구구조의 특징 파악

○ 인구통계 특징 이외, 김해 문화수준 이해를 위해 기존 지역문화 수준 파악을 위한 조사 등을 활용할 예정임.

2) 전문가 조사(FGI)

○ 전문가 회의는 총 3차례를 실시함. 먼저 김해시 특징 파악 및 문화다양성 분류체계를 위한 2번의 회의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수립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1번의 회의를 진행하였음. 전문가 구성은 김해시, 김해시복지재단과 협의하여 김해시 문화다양성에 연관이 있는 전문가를 섭외함.

- 1차 회의 : 2019년 9월 3일
- 2차 회의 : 2019년 10월 2일
- 3차 회의 : 2019년 12월 3일

1차 회의 (9월 3일)
- 김해 특징 이해
- 김해 문화다양성 관련 이슈 논의
- 김해 문화다양성 분류 체계 논의

2차 회의 (10월 2일)
- 김해 문화다양성 분류 체계 논의
- 설문지표 상세 논의

3차 회의 (12월 3일)
- 설문조사결과 논의 및 이슈 발견
- 김해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 논의

〈표 Ⅰ-2〉 전문가 회의 참석자

소속	직급	이름	주력분야	전문가회의 참석 여부		
				1차	2차	3차
김해시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여미진	고령화, 장애인	○	○	○
김해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허정은	도시재생	×	×	○
김해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팀장	최새미	시민사회	○	○	×
김해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시민협의체	위원장	신현승	문화정책	○	○	○

소속	직급	이름	주력분야	전문가회의 참석 여부		
				1차	2차	3차
우리동네사람들	사무국장	이한준	공동체	○	○	○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	김기언	다문화	○	○	○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센터장	천정희	외국인노동자	○	○	○
김해문화재단	문화도시PM	정 면	문화도시	○	○	○
	과장	손민지	문화도시	○	○	-
	대리	한경동	문화다양성 사업	○	○	○
	담당	조가현	문화다양성 사업	○	○	○

3) 설문조사

○ 김해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는 소수자와 사회갈등에 대한 김해시 일반 시민의 포괄적인 인식수준을 확인하는 조사로 김해시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해 김해시 인구통계(2019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구 구성비를 반영한 할당표본추출을 진행함.

- 단, 본 연구는 다수자의 인식에 관한 조사로 소수자의 문화향유활동 및 창조활동(예술가 집단) 대상 조사는 본 연구에서 제외됨.

○ 10대에서 50대까지는 조사의 효율성이 높은 온라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60대 이상의 경우 면접원을 활용한 대인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함.

- 온라인 조사 진행 결과, 부족한 연령대는 대인면접조사를 통해 성·연령·권역별 비율의 균형을 맞춤.

○ 최종 수집된 설문은 420명이며, 설문조사 분석 결과는 Ⅳ장을 참조하면 됨.

Ⅱ. 김해 현황 파악 및 선행연구 분석

1. 김해시 현황 분석
2. 문화다양성 관련 선행연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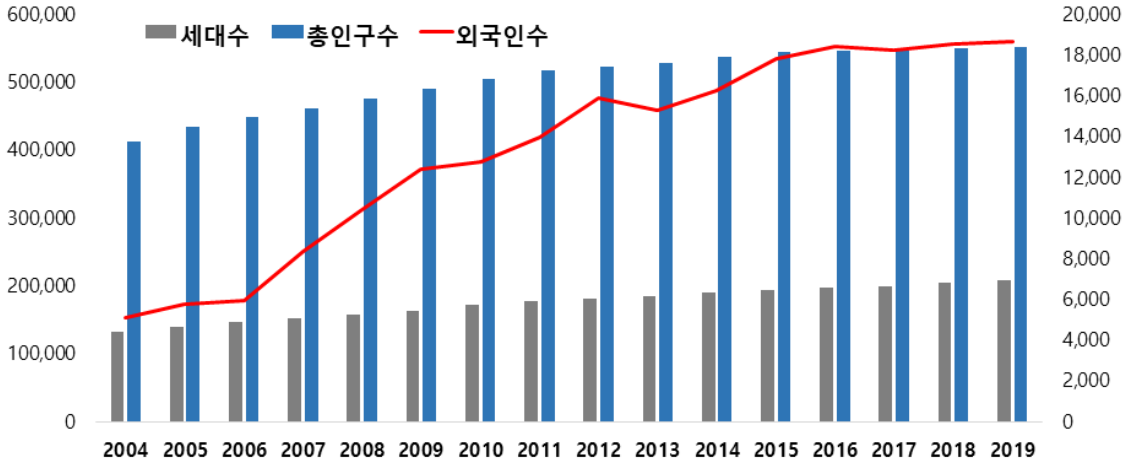
Ⅱ 이론적 배경

1. 김해시 현황 분석

1) 김해시 인구 및 도시구조

○ 김해시는 2019년 10월 기준 약 56만명(외국인 포함, 외국인 제외 시 약 54만명)의 인구가 있으며, 인구로 볼 때 전국기준 1%, 경남기준 16%를 차지함.

○ 2004년 인구는 41만이었으나 2019년 약 15만명이 증가하여 다른 지역 대비 인구 증가율이 높은 편임. 이러한 인구 유입에는 이전의 곡창 지대로서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편리한 교통망 등을 활용하기 위한 산업단지가 들어선 것이 주요했음.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신도시 건설, 가야테마파크 등 스포츠·레저시설 등 다양한 관광객 유입 등으로 인한 각종 부대시설이 세워지면서 도시 자체가 활기를 띄게 됨.



[그림 Ⅱ-1] 김해 세대, 인구, 외국인 수 연도별 변화

○ 전국 및 경상남도, 주변 부산시 등과 비교해 볼 때 김해는 인구증가율도 높고, 평균연령이 39.1세로 비교적 젊은 도시라 할 수 있음. 65세 고령자 비율도 10.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표 Ⅱ-1〉 전국, 경남, 부산, 김해지역 인구통계 특징 비교

	인구증가율 (2018)	평균연령 (세, 2018)	65세 고령자 비율 (2019)	합계출산율 (2018)	남녀성비* (2019)	인구밀도 (명/㎢)
전국	0.23	41.8	15.4	0.98	99.6	517
경상남도	-0.21	42.3	16.2	1.23	101.3	319
부산시	-0.75	43.6	18.0	0.90	96.4	4,440
김해시	0.29	39.1	10.5	1.08	102.3	1,168

주1) 통계청 자료 기준
주2) 성비가 100을 초과하면 남자인구가 여자인구보다 많은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성비가 100 미만이면 여자인구가 남자 인구보다 많은 것을 의미함
남녀성비=(남자인구수÷여자인구수)×100

○ 전국대비 1인 가구, 점차 1인 세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표 Ⅱ-2〉 김해시 연도별 세대 비율 변화 추이 (%)

	합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5인 세대 이상
2015	197,865	28.2	19.3	20.3	24.2	8.1
2016	200,370	28.7	19.8	20.2	23.5	7.8
2017	204,894	29.5	20.5	20.2	22.5	7.3
2018	208,710	30.3	21.0	20.2	21.6	6.9
2019	215,936	31.4	21.6	20.1	20.6	6.3

주1) 김해시 통계월보(10월) 기준

○ 통계청 자료기준 2018년도 시도 간 인구 전출 현황을 보면, 김해는 전국 및 경남대비 특히 20대 전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반면 김해로 유입된 전입인구 비율은 상대적으로 30~40대가 높은 도시임.

〈표 Ⅱ-3〉 2018년도 시도 간 인구 전출비율 비교(%)

	전국	경상남도	부산시	김해시
9세 이하	7.9	7.7	6.7	7.4
10대	7.0	7.6	6.2	7.7
20대	26.7	31.8	30.0	32.4
30대	21.4	20.1	21.3	19.3
40대	13.5	12.6	12.6	13.5
50대	11.2	9.8	10.7	10.1
60대	7.0	5.8	7.4	5.4
70대	3.2	2.6	3.2	2.6
80세 이상	2.0	1.9	1.8	1.5

〈표 Ⅱ-4〉 2018년도 시도 간 인구 전입비율 비교(%)

	전국	경상남도	부산시	김해시
9세 이하	7.9	8.2	7.5	8.0
10대	7.0	6.6	7.4	6.4
20대	26.7	24.4	31.2	26.0
30대	21.4	21.4	20.3	22.1
40대	13.5	13.9	12.7	14.2
50대	11.2	12.2	9.7	11.4
60대	7.0	7.8	6.1	6.6
70대	3.2	3.4	3.1	3.3
80세 이상	2.0	2.0	2.1	2.1

주1) 통계청 자료 기준

○ 김해에는 1읍 6면 12행정동이 있으며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은 북부동, 내외동, 장유3동으로 동중심의 생활권을 가지고 있음. 인구의 81.6%가 동에 거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상동면이나 생림면은 1㎢당 100명이 채 거주하지 않은 인구 소멸에 가까운 지역이라 할 수 있음.

〈표 Ⅱ-5〉 김해시 행정구역별 인구

	총 인구수	비율	65세 고령자 비율(%)	인구밀도 (명/㎢)
김해 전체	536,707	100.0%	10.5%	1,168
진영읍	55,889	10.3%	10.6%	1,409
주촌면	15,347	2.8%	7.3%	490
진례면	6,836	1.3%	24.9%	153
한림면	8,053	1.5%	29.6%	135
생림면	3,911	0.7%	32.1%	78

	총 인구수	비율	65세 고령자 비율(%)	인구밀도 (명/㎢)
상동면	3,298	0.6%	26.1%	47
대동면	6,489	1.2%	32.8%	133
동상동	10,297	1.9%	15.6%	5,721
회현동	9,926	1.8%	18.4%	8,707
부원동	10,206	1.9%	14.7%	4,954
내외동	76,142	14.1%	9.0%	14,286
북부동	80,218	14.8%	8.2%	5,755
칠산서부동	9,724	1.8%	16.9%	485
활천동	42,340	7.8%	11.4%	7,201
삼안동	35,277	6.5%	12.1%	3,125
불암동	8,067	1.5%	13.1%	3,115
장유1동	56,757	10.5%	8.4%	4,201
장유2동	37,156	6.9%	7.7%	1,886
장유3동	65,190	12.0%	5.6%	2,967

[그림 Ⅱ-2] 김해 2035 도시계획(안)

※ 2035 김해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2019년 1월 김해시 도시계획과

2) 경제 현황

○ 김해는 전국대비 경제 현황은 낮은 편이나, 부산 대비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음. 김해의 재정자립도는 39.9%로 인구측면에서는 젊은 도시이지만 시의 경제적 현황은 전국이나 경남 대비 다소 낮은 편이나 주변 타 경남지역과 비교해보면 높은 편임.[5] 인구 천 명 당 사업체 수는 전국 77.6개인 반면 김해는 84.7개로 영세한 기업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

〈표 Ⅱ-6〉 경제 현황 비교 (%, 개)

	경제활동 참가율 (2019.10)	고용률 (2019.10)	실업률 (2019.10)	청년고용률 (19년 3/4분기)	인구천명당 사업체 수 (2017)	재정자립도 (2019)
전국	63.6	61.7	3.0	43.9	77.6	51.4
경상남도	63.7	61.9	2.9	37.7	81.2	40.5
부산시	59.4	57.6	2.9	44.6	82.6	56.7
김해시	62.5	19년 상반기 기준 59.1	5.4	38.4	84.7	39.9

주1) 통계청 자료 참조
주2) 경제활동참가율: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주3) 재정자립도: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자체수입÷자치단체 예산규모)×100(%)),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
주4) 청년고용률(%)=(15~29세 취업자÷15~29세 인구)×100

○ 2016년 기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GRDP) 을 보면 김해는 전국 대비 1인당 GRDP가 약 2,840만원으로 전국대비 88.7% 수준임. 전반적으로 김해는 경남 대비 낮으나 부산 대비 높은 금액을 보임.

〈표 Ⅱ-7〉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액 비교 (천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국	27,431	28,362	29,273	30,682	32,041	33,657
경상남도	29,449	30,606	30,866	31,228	32,264	32,479
부산시	19,642	20,354	21,340	22,663	23,574	24,293
김해시	22,845	25,205	25,676	27,050	28,412	-
전국 대비 김해 비중	83.3%	88.9%	87.7%	88.2%	88.7%	-

5) 2019년 재정자립도 : 진주 35.2%, 밀양 18.4%, 창원 39.1%, 거제 32.4%, 양산 39.3%

주1) 1인당 GRDP: 지역내 총생산을 지역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연간 생산액, 1인당지역내총생산(백만원/명)=지역내총생산(당해년가격)÷추계인구, 1인당 GRDP가 높다는 것은 그 지역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1인당 GRDP가 낮다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 산업별 구조를 보면, 김해는 전국 대비(16.8%) 제조업 비율이 50.7%로 영세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 특징을 보임. 반면 개인사업, 공공서비스 등의 비율은 적어 산업의 다양성은 많지 않은 편임.

〈표 Ⅱ-8〉 산업별 취업자 주 비교

		합계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전기·운수·통신·금융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전국 ('18)	천명	26,822	1,340	4,529	4,510	20,953	2,034	5965	3154	9800
	%	100.0	5.0	16.9	16.8	78.1	7.6	22.2	11.8	36.5
김해 ('17)	명	181560	90	92,260	92,058	89,210	8,886	58,679	4,978	16,667
	%	100.0	0.0	50.8	50.7	49.1	4.9	32.3	2.7	9.2

주) 통계청 홈페이지 (경제활동인구연보) 및 김해공공데이터 플랫폼(http://stat.gimhae.go.kr) 참조

3) 소수집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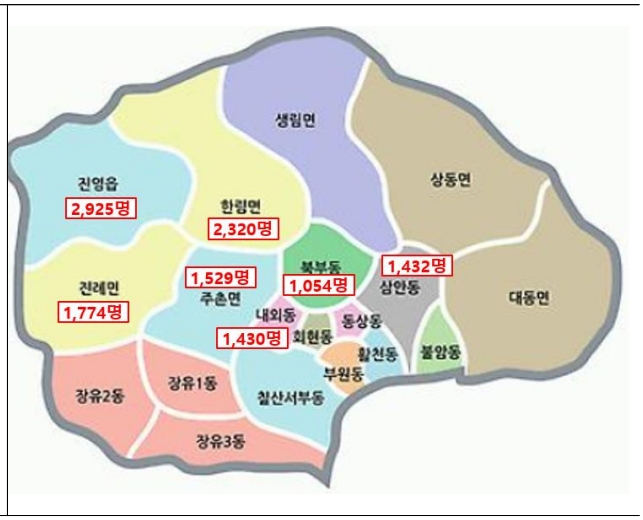
○ 김해는 2017년 기준 기초수급자 약 15,000여명, 장애인 23,500명, 외국인 약 2만명이 거주하고 있음.

○ 비율로 비교해 본다면 김해는 전국 대비 수급자나 장애인 수는 적은 반면, 외국인 수가 많은 특징을 보임.

〈표 Ⅱ-9〉 인구대비 기초수급자, 장애인, 외국인 수 비교

	인구대비 기초수급자 비율 (2017)	인구대비 장애인 비율 (2017)	인구 천명 당 외국인 수 (2018)
전국	3.4%	4.5%	24.1명
경상남도	3.3%	5.5%	22.0명
부산시	4.7%	5.1%	13.3명
김해시	2.7%	4.2%	35.0명

	인구대비 기초수급자 비율 (2017)	인구대비 장애인 비율 (2017)	인구 천명 당 외국인 수 (2018)
	기초수급자 수 14,810명 (2017년 기준)	장애인 수 23,545명 (2017년 기준)	외국인 수 19,692명 (2019년 기준)



[그림 Ⅱ-3] 김해 외국인 수 및 지역별 분포

주1) '제11회 쉽고 빠르게 보는 김해통계 2018' 참조 (김해 공공데이터 플랫폼 자료 참조)
주2) 2019년 기준 읍면동 당 외국인 1,000명 이상 거주지역만 표시

〈표 Ⅱ-10〉 김해 이주민 문화 특징 및 정책적 함의

김해 이주민 특징	□ 비전문직 이주노동자, 남성 비율 높음 □ 단기 체류 중심, 20대 노동자 다수 □ 다양한 아시아 국가 혼재 □ 읍면 단위 공업단지에 다수 거주 □ 결혼이주여성의 감소 및 중도입국 자녀, 난민, 교포의 증가
이주민 커뮤니티와 여가·문화적 특징	□ 국가별 공동체보다는 개별적 네트워크 중심 □ 종교 중심 커뮤니티 활성화 □ 남성·이주노동자 중심의 커뮤니티 □ 개인적인 휴식·소비·스포츠 등 한정적인 여가문화
원도심 및 다문화 공간의 특징	□ 이주민 소비중심 공간-200여 개의 이주민 관련 상점과 시설 밀집지역 □ 이주민 정착 초기의 경유지

	□ 상인과 거주민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 차이 □ 공급 과잉과 임대료 상승 □ 주중 공동화 현상과 주말 활성화 대비 □ 정책 공백, 포괄적 협의체계 부재 속 난개발의 위험
김해시 이주민 인구 구성 및 특성이 갖는 정책적 함의	□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압도적인 도시의 정책 성찰 필요 □ 장기체류의 형태가 아니라 리턴마이그레이션(return migration)이라는 측면을 고려 □ 외국인 노동자의 여가시간의 활용 실태 분석을 통해 건강한 체류생활이 되도록 지원 필요(주거환경, 임금체불을 비롯한 인권침해 등 생활상의 문제) □ 장기적으로 모국의 지역과 김해 지역 간의 연계성 고려 필요

주1) 「가야역사와 다문화 연계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김해문화재단(2018)

4) 내부여건 분석

(1) 김해 문화지수

○ 지역문화지수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승인통계(통계명 : 지역문화현황통계)로서 총 4가지 대분류, 10개 중분류, 28개 지표를 가진 국내 지역문화지수로서 4가지 대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지역문화정책 (정책사업, 정책환경, 정책예산)
② 지역문화자원 (문화유산, 기반시설, 자원활용)
③ 지역문화활동 (활동조직, 인력)
④ 지역문화향유 (지역주민, 소외계층-무료공연, 교육강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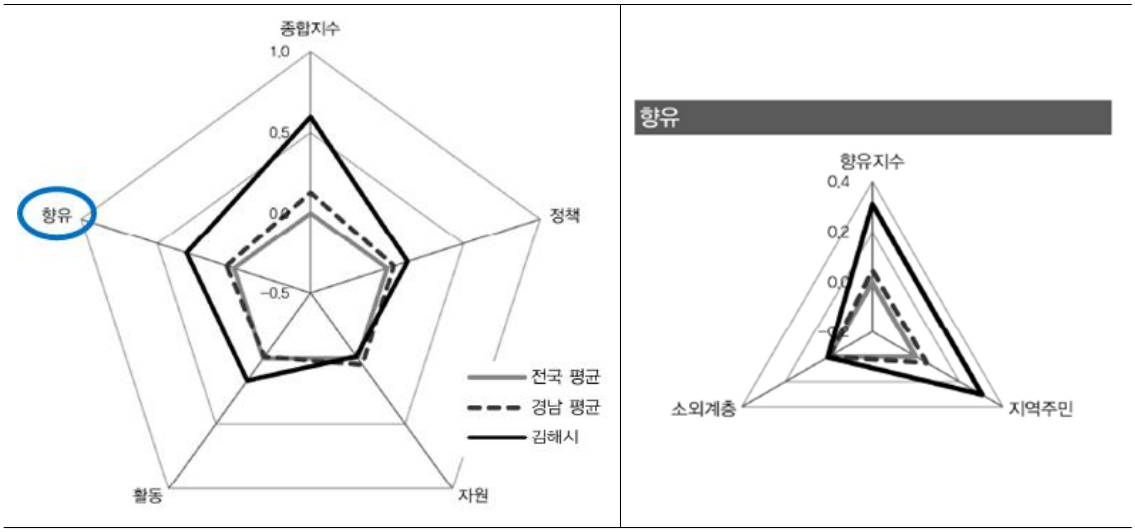
○ 229개 자치단체 중 김해는 종합 9위를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문화지수를 보이고 있음.

○ 김해는 문화자원은 약하나 문화향유, 활동, 정책 측면에서 전국 및 경남대비 좋은 평가를 받음. 그러나 향유에서는 '소외계층' 문화향유에서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지역문화지수 종합 순위 (전체 지자체 229개)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1	전북 전주시	2.9835	6	서울 마포구	0.7252
2	경기 수원시	1.5497	7	서울 성북구	0.7077
3	서울 종로구	1.2435	8	제주 서귀포시	0.6292
4	경남 창원시	1.0824	9	경남 김해시	0.5970
5	청북 청주시	0.8133	10	경기 부천시	0.5960

[그림 Ⅱ-4]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순위



[그림 Ⅱ-5] 김해 외국인 수 및 지역별 분포

주1)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 김해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

○ 김해시의 문화다양성 사업은 중앙부처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으나 최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양상임.

○ 김해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5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선정되어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18년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 생활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원도심의 부족한 문화 공간 인프라 개선과 문화예술을 통해 선주민과 이주민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다(多)어울림 생활문화센터'를 동상동 김해중앙상가빌딩을 리모델링해 마련하는 등 단순한 공간 위주의 사업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내용적 방안을 고심하고 있음.

○ 김해시는 2018년 12월 경남도내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예비사업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 심사를 앞두고 있음. 문화도시 예비사업에서는 가야문화권이라는 특징을 강조했으나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특징도 함께 강조하면서 김해 내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은 점차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여 '김해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시민협의체'가 2018년 8월 시민의 자발적 모임으로 만들어져 문화다양성법 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2019년 9월 김해 문화다양성법 조례가 통과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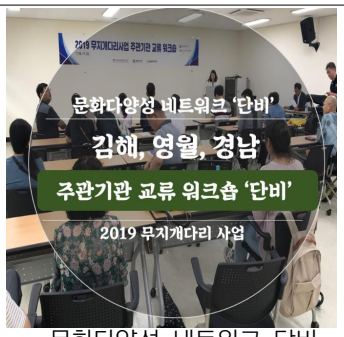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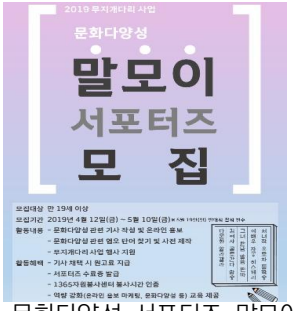
○ 김해시의 문화다양성 사업은 김해문화재단의 〈문화다양성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이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김해문화재단은 2019년 현재 6년차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3) 김해 무지개다리사업

○ 김해 무지개다리사업에는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지역주민들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축제 그리고 사업담당자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기위한 네트워크, 포럼, 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표 Ⅱ-11〉 2019 김해 무지개다리사업 개요

사업개요	□ 사업일자 : 2019-04-01 ~2019-12-31 □ 운영부서 : 문화정책팀 □ (재)김해문화재단 □ (재)김해문화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명 : 〈문화공존 김해 : 다양성을 그리다〉

2019년 주요사업	□ 소담한 음식으로 문화를 소통하는 ‘소소한 식탁’ □ 문화다양성 서포터즈 ‘말모이’ □ 어린이 문화다양성 ‘짝꿍’ □ ‘경남 문화다양성 포럼’ □ 문화다양성 마을축제 ‘종로난장’ □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단비’ □ 차이를 즐기자 ‘두드리머(Do.Dreamer)’ □ 문화다양성 & 도시재생 ‘잇다’ □ 문화다양성 토크쇼 ‘창작시 음악축제’ □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공감 스케치’ □ 문화다양성 성과공유를 위한 ‘따로 또 같이’
사업 예	 소소한 식탁 문화다양성 마을축제 종로난장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단비  문화다양성 서포터즈 말모이

(4) 김해 문화다양성 관련 기관

○ 초창기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가 결혼이주여성, 이주민 자녀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여성가족부가 본격적으로 담당하기 시작하면서 공공의 영역으로 확대됨.

○ 현재는 공공 기관과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김해 외국인 및 소수집단 등의 이슈를 함께 하고 있음.

〈표 Ⅱ-12〉 김해 문화다양성 관련 기관

김해 YMCA	□ 개관 : 1998년 □ 성격 : 비영리민간단체 □ 기관 특징 : 다문화 관련 초기대응기관으로 2002년부터 다문화 이주민여성 생활상담, 노동자상담, 한글교실, 의료지원사업, 문화교실운영, 2006년 이주민대상 실태조사 등 김해 이주민 지원사업을 진행 □ 주요 사업 : 사회적기업 아시아문화센터 운영, 매년 아시아문화축제 개최
김해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개관 : 2006년 □ 성격 : 여성가족부 지원 공공지원기관 □ 기관 특징 : 다문화 가족과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속을 위한 중간기관으로 여성가족부 지원, 인제대학교 위탁운영 중.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 운영 □ 주요 사업 : 한국어교실,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취업알선, 개인 및 가족상담, 방문교육, 자조모임, 다문화체험관 운영, 다문화카페 통 운영, 통번역서비스,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2019년 김해시 다문화청소년 공간 '다가온' 개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 개관 : 2008년 □ 성격 : 비영리민간단체 □ 기관 특징 : 창원에서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에서 이주민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하던 김형진 목사가 2008년 김해에 설립한 NGO단체로 이주민의 권리보장, 지원에 관한 활동 중. 임금체불, 재해 등 노동상담 연 800명 진행, 이주노동자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김해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 개관 : 2008년 □ 성격 : 공공지원기관 (인제대학교 한국인재뱅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 기관 특징 :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경남지역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역, 상담, 한국어교육 등 지원을 통하여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 □ 주요 사업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공적지원서비스(전화상담, 심층상담, 교육, 글로벗 도서관 등) 지원, 국가별 공동체 및 국가행사 지원, 무료진료사업, 무료건강수기요법사업, 무료이발 사업, 경남은행 일요일 송금서비스 등 진행
그 외	□ YMCA 아시아문화센터 (2012) - 김해YMCA에서 설립한 사회적 기업, 다문화여성 일자리 창출, 공정무역 등 □ 다문화카페 통(2012) - 다문화여성들의 네트워크 모임, 다문화체험교육 등 □ 김해 이주민의 집 (2013) - NGO단체, 노동상담과 국적상담 등

2. 문화다양성 관련 선행연구 분석

1) 문화다양성 정의

○ 문화다양성이란 개념은 현대사회에서 민족·인종·성별·장애 등 차이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하지 않고 시장 개방의 세계화 현실 속에서 자국의 고유의 문화를 지켜내기 위한 맥락 속에서 출발한 개념이라 할 수 있음.[6]

○ 이러한 개념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은 2001년 11월 유네스코 제31회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과 2005년 제 33회 정기총회를 통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이라 할 수 있음.

〈표 Ⅱ-13〉 문화다양성 정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2005, 유네스코)	□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집단과 사회의 내부에서 그리고 집단과 사회 사이에서 전승된다. □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문화유산이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통해 표현되고, 증대되며, 전승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용된 방법과 기술에 관계없이 다양한 양식의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014.5.28. 제정)	□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6)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방안」 서울연구원 (2018)

○ 이전에는 문화다원주의나,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와 같은 개념들이 있었으나 문화다양성은 문화다양성법이나 유네스코의 정의와 같이 종속이나 포용과 같은 개념이 아닌, '다양한 집단의 문화가 그 사회에서 같이 존재하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할 수 있음.

○ 국내에서는 주로 2000년대 이후 외국인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인한 혼란을 사회에서 체감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임. 사회통합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해 국내에는 최근 10년 사이에 다문화가족정책 등 관련 정책들이 마련되기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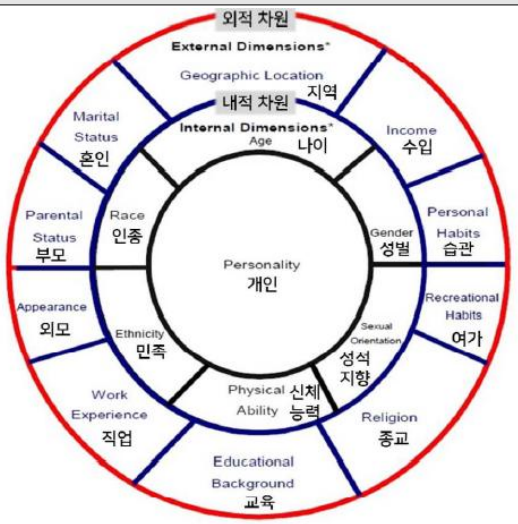
○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문화다양성법에 명시된 문화다양성위원회와 같은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2) 문화다양성 범위

○ 우리나라보다 문화다양성 관련 논의가 일찍 시작되었던 유럽은 종교, 성별, 나이, 성적지향, 장애, 인종·민족 등 6가지 핵심범주를 제시하였고, 독일의 범주를 보면 개인을 둘러싼 더욱 세분화된 내적, 외적 차원의 범주를 확인할 수 있음.

○ 국내 연구에서도 이와 결을 같이 하여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와 같은 소수라서 차별받고 배제되는 집단에 대한 인식과 수용도를 파악하거나, 인구구조 변화와 세대에 따른 갈등들을 사회갈등 요소로 조사하기도 함. 다만 국내의 경우는 종교로 인한 갈등이 유럽과 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종교에 대한 이슈는 많은 연구에서 제외되는 경향을 보임.

○ 또한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하위문화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거나, 부산 연구처럼 아예 하위문화에 대한 이슈는 제외하고 지역이 겪고 있는 사회갈등과 소수집단에 대한 이슈를 보다 더 세분화하고 부각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도 함.

유럽 다양성 헌장의 6가지 핵심 범주	독일 문화다양성 범주
	

[그림 Ⅱ-10] 문화다양성 관련 유럽의 범주

주1)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7)의 내용 참조

〈표 Ⅱ-14〉 국내 문화다양성 연구 분류체계

	문화체육 관광부 (2015)	문화체육 관광부 (2017)	익산시 (2018)	인천시 (2018)	광주시 (2017)	부산시 (2018)
소수자 집단	다문화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외국인근로자 결혼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타 종교인	외국인근로자 결혼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타 종교인	다문화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정신장애인 지체장애인 여성	다문화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결혼 이주민 이주민의 자녀 외국인유학생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난민
사회 갈등	청소년 노인	성별 불평등 독신가구의 증가 세대 간 갈등	성별 불평등 독신가구의 증가 세대 간 갈등	청소년 노인	노인	세대 간 갈등 성별 불평등 소득수준 갈등 인종 갈등 수도권과의 갈등

	문화체육관광부 (2015)	문화체육관광부 (2017)	익산시 (2018)	인천시 (2018)	광주시 (2017)	부산시 (2018)
하위문화	전통문화 지방문화 독립문화예술 대안문화예술	주류 문화예술의 독점 전통문화 위기 지역문화에 대한 차별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	주류 문화예술의 독점 전통문화 위기 지역문화에 대한 차별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	독립문화예술 대안문화예술 생활문화예술	전통문화예술 지방문화예술 독립문화예술 대안문화예술	-

3) 문화다양성 주요 선행 연구

(1) 문화체육관광부(2015)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5년 진행한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는 2014년 의결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의 문화다양성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국제적 기준에 준거하여 진단함.

○ 앞서 설정한 11개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지표, 여건지표, 활동지표, 인식지표 등 4개 조사 영역으로 분류하여 지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정책지표와 여건지표는 지자체 행정자료 수집을 통하여, 활동지표는 소수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인식조사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진행됨.

〈표 Ⅱ-15〉 문화다양성 지표 및 지표별 조사방법

대분류 지표	중분류 지표	조사방법
정책지표	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예산	지자체 행정자료 수집
여건지표	기반시설여건, 자원여건, 지원인력여건	
활동지표	참여도, 친밀도, 만족도, 포용도, 평등도	소수자 설문조사
인식지표	참여도, 친밀도, 만족도, 포용도, 평등도	대국민 설문조사

(2) 문화체육관광부(2017)

○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일반 국민과 소수자(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민, 북한 이탈주민)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지원정책과 기반여건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실시함.

○ 대국민 설문조사는 만 19세 이상 남녀 2,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소수자 인식조사는 외국인 근로자 300명, 결혼이주민 300명, 북한 이탈주민 300명 등 총 9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됨. 지원정책 및 기반여건 조사는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진행됨.

○ 문화체육관광부(2017)의 연구는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했던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에 대한 큰 틀은 유지하면서 2017년 문화다양성의 실태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보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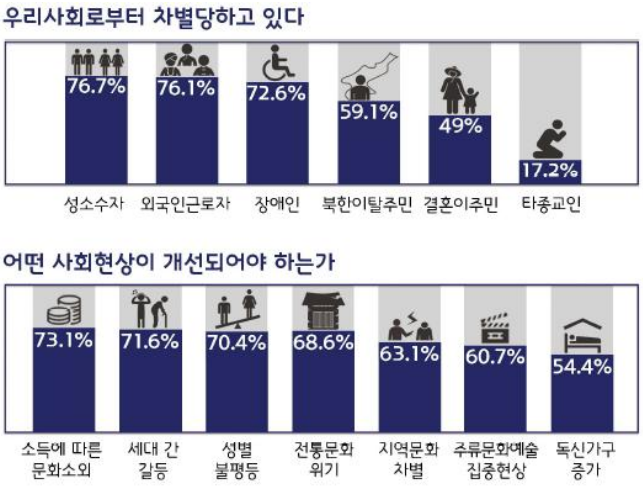
-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과 구현 수준을 분석하고 소수자의 활동분석, 지원 정책분석, 기반 여건분석에 대한 실태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함.
- 관심도, 수용도, 포용도, 필요도 등 4가지 영역에 대해 13개 유형의 지표를 추가로 설정하여 조사함. (2015년 조사 영역 중 친밀도 제외)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중앙 11개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17개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을 파악하고 그 적절성을 평가하여 향후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과 실천방안을 도출하고자 2017년 '문화다양성 정책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를 시행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은 문화다양성 관련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시행함.

○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 분석을 통해 정리된 문화다양성의 문제점과 정책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음.



[그림 Ⅱ-13]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주요 결과(문화체육관광부, 2017)

〈표 Ⅱ-16〉 문화다양성 문제점 진단과 정책 개선방향

구분	문제점 진단	정책 개선방향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사업 평가	• 다양한 부처 개입, 경쟁적 유사사업팽창 • 기존 동화지향적 다문화사업 시각 여전 • 복지, 일회성 사업으로 성과축적난제 • 하향식 사업추진과 일방적 정책공급 • 체계적인 평가체계 부족	• 기관 간 협력강화, 추진체계 효율성 • 실질적 다양성 증진 사업으로 전환, 개선 • 중장기적 관점의 사업정책운영 체계화 • 지역현장 수요 반영 및 참여 기회 확대 •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과 운영
정책 관련 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인식조사	• 정책사업의미에 대한 낮은 국민인식 • 추진목표에 비하여 수혜대상이 편중됨 • 소수자와 다수자 간 소통 방안 증진 필요 • 조직의 구성문제 및 담당자의 잦은 교체 • 예산 확보와 지역단위 체계구축 시급	• 문화다양성 교육확산, 국민이해도 증진 • 균형적 대상별 사업 추진 필요 • 문화 간 교류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현장인력 전문성 및 이해교육 강화 •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인프라 마련 필요
주요 국가별 정책 분석	• 반이민정서, 외국이주민 제노포피아 • 지역사회로의 정책 확산 필요성 • 다원화된 구성원들의 다양한 취향발현 • 주류사회와 소수공동체의 분리, 소외	• 시민인식제고, 이주민의 사회활동참여 • 현장중심의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소수민 맞춤형 정책, 자생 활동 역량강화 • 갈등극복을 위한 집단 간 상호교류추구
전문가 의견조사	• 소수자 차별 및 사회적 배제극복 중요성 • 한국사회의 낮은 수용성 수준 • 편중된 대상에 대한 사업집중	• 특화사업에서 시민인식제고로의 전환 •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성 가치의 확산 • 다양성 프로그램 및 대상범위 운영 확대

구분	문제점 진단	정책 개선방향
	• 기존 다문화정책과의 관계설정 필요 • 정책추진 체계의 개선 시급성	• 중복사업의 유기적인 통합, 신사업 발굴 • 기관 간 연계 및 민간의 협력활동 강화

(4) 서울연구원(2018)

○ 서울연구원은 문화다양성 정책의 근간이 되는 문화다양성 조례를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해보면서 향후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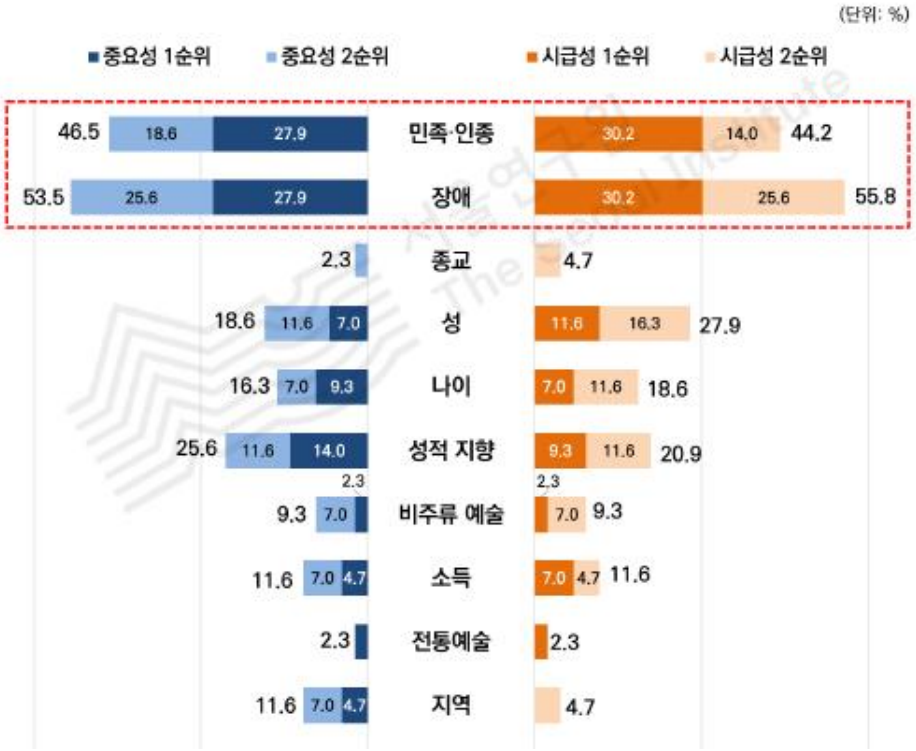
○ 이를 위해 총 5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2차례의 델파이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문화다양성 조례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항에 문제는 없다고 응답한 가운데 약간의 조항 수정을 요구하였는데 예를 들어 '문화다양성위원회'가 공무원 중심에서 벗어나 당사자인 소수자 위원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 '문화적 관용' 정의를 개정해서 문화다양성을 실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함.

- 이를 통해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방향을 '차이에 차별하지 않고, 다름을 존중하는 문화시민도시 서울 구현'으로 삼았음.

-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 시민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 조례개정 〉 문화다양성위원회 등 관련기구 구성 〉 문화다양성 집단 대상 사업 시행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또한 대상의 우선순위로는 민족·인종 〉 장애가 1순위 군으로 나온 가운데 성적 지향, 성, 나이에 따른 대상자가 2순위 군으로 나타남.



[그림 Ⅱ-14] 문화다양성 정책대상의 중요성과 시급성 (서울연구원, 2018)

(5) 부산문화재단(2018)

○ 부산문화재단은 부산시민의 문화다양성 여건 현황과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로, 향후 부산시 문화다양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됨.

- 이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 및 자문회의 2회를 통해 부산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를 수립하였으며, 분류체계에 따른 인구구조 특징을 파악하고 설문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부산시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과 여건을 파악함.

○ 부산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위하여 부산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분야별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함.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부산시민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상황이 긍정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음.

- 소수집단 중 가장 수용도가 낮은 집단은 '난민'과 '성소수자'이며, 외국인이라도 출신이나 경제적 상황 등 특성에 따라 인식이 다르게 나타남.
- 사회갈등 현상 중 노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편이나 젊은 층에 대한 편견은 상대적으로 크며,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낮고, 타 지역에 대한 반감은 적지만 지방차별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음.
- 20대 여성이 소수집단이 받는 차별에 가장 민감하며, 소수집단 접촉 경험이 있거나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이 소수집단에 대한 수용도가 높음.
- 연령대·성별 집단 중 30대 남성이 다른 집단과는 성별 불평등, 노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편임.

○ 부산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문화다양성 연구 중 가장 최근에 실시된 지자체 조사라 할 수 있으며 전국 데이터와 비교를 통해 부산의 현황을 파악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김해와 비교해 보면 부산은 김해와 인근에 있는 도시라는 점, 경제와 문화적인 면에서 많은 교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많이 활용됨.

Ⅲ. 김해 문화다양성 전문가 회의(FGI)

1. 김해 문화다양성 설문 지표 개발
2. 1차 전문가 회의
3. 2차 전문가 회의
4. 3차 전문가 회의

Ⅲ 김해 문화다양성 전문가 회의

○ 앞서 Ⅰ장에서 언급되었듯이 전문가 회의(FGI)는 총 3차례 진행되었음. 1,2차 회의는 김해 특성 파악 및 설문 개발을 위한 회의였으며, 3차 회의는 결과 논의를 위한 회의였음. 본 Ⅲ장에서는 이러한 설문개발 과정과 1~3차 전문가 회의의 주요 결과를 정리함.

1. 김해 문화다양성 설문 지표 개발

1) 김해 문화다양성 설문 지표 개발 원칙

○ 김해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다양성 지표를 설계

- 김해시는 가야문화를 가진 문화특징과 함께 도시화 속도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이주민과 읍면지역의 금속가공, 섬유 등 소규모 제조업체 위주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인한 특징을 보유하고 있음.
- 인근 창원, 부산지역의 베드타운 기능도 하면서 인구 증가율은 높고 연령은 젊으나 문화공동체로서 김해를 바라보는 시각은 천차만별인 상황임.
- 이러한 김해의 독특한 상황과 지역의 문화다양성 이슈를 반영해야 한다는 특성이 존재함. 따라서 김해시의 기본통계 자료를 확인하고 김해시의 문화다양성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설계함.

○ 타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김해시 특징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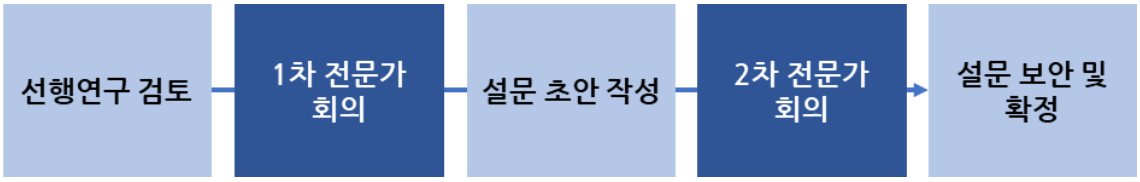
- 이번 조사는 김해지역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인식차를 파악해야 함. 김해 내에서의 인식차이를 발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김해의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내 타 유사 연구와 비교할 경우 더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음.
- 따라서 조사 지표 중 일부는 국내 유사연구 지표와 동일하게 구성하여 향후 결과 수치를 비교하였음. 특히 문화다양성 설문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문화체육

관광부(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와 부산시에서 2018년 실시된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을 통한 실태조사」 보고서의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인식차를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모호한 개념적 지표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인 지표로 구성

- 문화다양성에 대한 당위적인 문항이나 개념적인 문항으로 구성하기보다 응답자들에게 보다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지향함.

2) 설문 지표 개발 단계



○ 설문지표는 앞서 Ⅱ장에서 검토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먼저 설문조사 분류체계 초안을 구성함. 부산의 설문지표와 동일한 관점으로 김해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구 목적과 설문의 양 등을 감안하였을 때, 문화소외와 같은 비주류 문화예술 관련 문항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기로 함.

○ 소수집단은 기존 선행연구들의 분류를 따르되, 각 문항의 세부설문지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의미 있는 지표만 선별하기로 함.

○ 사회갈등과 관련된 지표범위는 김해의 인구통계 특징과 언론기사 등을 통해 도출된 주요 사회갈등 현상을 토대로 초안을 구상하였으며 전문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로 함.

○ 이러한 내용을 1차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하여 분류체계와 사회갈등을 논의하였으며, 설문초안 작성 후 2차 전문가 회의에서 구체적인 문구 수정 및 추가 보완을 하였음.

2. 1차 전문가 회의

○ 1차 전문가 회의에서는 김해의 인구통계와 선행 연구 특징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김해의 소수집단과 사회갈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표Ⅴ-18〉 1차 전문가 회의 논의 내용

구분	설문 반영 여부	내용
소수집단 관련 이슈		
외국인 근로자	○	□ 김해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음. 그 이유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조건이 '중소기업' 에 한정되어 있는 현재 법체계 때문임. 김해는 중소기업이 약 7천 여개 있음. 대기업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특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김해에 몰리는 현상이 있음. □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은 단순 노무일만 할 수 있음. 즉 전문가적인 사무를 보면 안 되는 상황임. 솔직히 국내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고졸 이상이며 순수한 사람들이 많음. □ 경찰서 등에서 현황을 파악해 보면 외국인 범죄는 생각보다 낮음. 그러나 우리안의 공포심이 존재함. 왜냐하면 이들도 김해를 낯설어하고 언어가 서툴다보니 뭉쳐서 다니기 때문임. □ 이들의 근로나 문화생활 여건은 매우 열악함. 거의 매일 일을 해야 함. □ 김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음면지역에서 살지만 주말 주 활동공간은 시내임. 여기서 한글공부를 하고 쇼핑을 한 후 귀가하는 형태임. □ 최근에서야 영화관, 쇼핑몰, 스케이트장 등 이용하기 시작함. □ 김해 외국인 근로자 역사 10년 동안 주민들의 인식은 많이 변화해 왔다고 생각함. 이전에는 엄마들이 딸에게 구시가지에 못 가게 했는데 외국인들의 재래시장이용 등 상권 활성화에 기여를 하면서 긍정적인 측면도 부각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됨. □ 시민도 중요하지만 노동문화가 달라서 오는 사회적 갈등도 존재할 것이라 예상됨.
이주민 자녀	○	□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오히려 다문화 이주민 자녀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임. 교사들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주민 자녀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이들이 사회부적응 세력 등으로 변화할까봐 걱정함. □ 이주민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이들을 위한 우리 사회의 준비는 어떠한

구분	설문 반영 여부	내용
		수준인가 점검해 보아야 함. □ 최근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를 보면 거의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임. 이들이 성장하면서 사춘기를 겪게 되면서 오는 정체성의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될 것임.
고려인 (사할린동포 등)	△	□ 국내 재외동포법은 3세대까지만 인정됨. 이들이 해외에 있다가 자손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함. 다문화 아이들은 어느 정도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가 있지만 몽골, 우즈백 등 사할린 동포들은 한국사회, 역사적 인식이 낮음. □ 다른 지역과는 달리 김해에서 사할린 동포 관련 간단한 문항을 물어봐도 좋을 것임.
장애인	○	□ 전통적인 소수집단임. □ 김해 장애인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타 지역 대비 특화된 김해만의 장애인 지원 복지사업들이 많은 편임. □ 김해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잘 하고 있는 지역이 김해임. 신규 정책도 김해에서 발언을 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음. 이는 정치적 문제와도 연관은 있는데 민주당 소속 경남 지자체장이 되면서 정부의 정책을 많이 따르려 노력 중임.
노인	×	□ 김해가 비교적 젊은 연령대라 하지만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관련 이슈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 비교적 김해는 노인복지 서비스 등이 잘 되어 있는 편임. 통합돌봄선도사업부터 경남 광역단위 사업들이 김해에 들어와 있음. 노인복지관 등 노인관련 시설도 김해가 많은 편임. □ 시에 직접 복지재단이 있는 지역이 드문데 김해는 이 부분에서는 선도적임. 또한 자원봉사자도 많은데, 젊은 층 인구 유입으로 자원봉사 쪽의 유입도 덩달아 많아졌다고 알고 있음. 아쉬운 점은 자원봉사가 주로 관변단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임. □ 노인문제는 복지성향이 강하고 오히려 이와 관련한 세대문제로 풀어보는 것이 더 본 조사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사회 갈등		
이주민 Vs. 선주민간 갈등	○	□ 대부분의 김해시민이 이주민인데 주요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선주민의 영향력이 큰 것이 문제라 생각함. □ 선주민만의 텃새가 있으니 시민활동에서도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구분	설문 반영 여부	내용
		인재들이 유입되지 않음. 결국 시민대상 사업을 하다보면 화력이 부족하니 기존 선주민들에게 부탁하는 악순환이 발생함. □ 아무래도 외부인이 많이 유입되면서 서로 생활문화가 다른 것에서 오는 갈등이 존재함. 예를 들어 쓰레기 매립장 등. 선주민 입장에서는 이전대로 살아도 큰 문제가 없었던 분야인데 자꾸 외부인이 많아지면서 선주민의 생활을 침해한다고 생각됨. □ 그 외 선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이주민 차별과 편 가르기 문제는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생각됨. 이러한 문제는 이전보다는 좀 나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존재함. □ 그래도 경남의 다른 지역보다는 선주민의 텃새가 심하지는 않은 지역이라는 인식 또한 존재함.
도농갈등 / 지역갈등	○	□ 이주민, 선주민의 갈등이라 할 수 있지만 도시와 농촌갈의 갈등 양상이라 할 수 있음. □ 장유동과 진영지역은 김해지역이라고 인식되지 않을 때도 있음. 진영은 지리적으로 마산 등이 가깝고 소득수준이 높아 프라이드가 강하다고 생각됨.
청소년 / 학생 인권 이슈	×	□ 2019년 여름까지 학생인권조례 제정문제가 큰 이슈였음. 특히 다른 지역보다 더 주목을 받았으며 사회갈등요소 중 하나로 부각되었음. 정치인들의 소속 정당과 관련된 이슈와 함께 인권문제보다 오히려 다른 왜곡된 이슈가 조례의 내용을 흐렸던 것으로 판단됨. □ 김해는 행복교육지구 등 청소년 활동이 활발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참여하는 청소년은 매우 제한적임.
청년 이탈/소외	△	□ 김해에 대학이 4개가 있음. 인제대가 주로 중심이었고 가야대 등이 여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문화 연대가 안 됨. 왜냐하면 김해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로 나감. □ 그 외 학생들이 김해에 남아서 학교를 다니지만 남자들은 군대 가고 취업문제로 빠져나가면 실질적으로 김해에는 20대 활동인력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김해에는 비교적 청년 문화가 약한 편임. 대부분 외부로 빠져 나가는 상황이라 여겨짐. 김해의 관변단체 위주의 자원봉사자는 덩치가 커지는데 젊은 층 유입이 적은 김해 시민단체는 소수만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임. □ 기존 기성 시민단체는 새로운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잘

구분	설문 반영 여부	내용
		모른다고 생각됨. 김해가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니 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치적 명분도 없는 상황임. □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국가의 방향이라는 생각도 듦. 점차 복지 분야는 관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임.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도 민간기관이 아닌, 관이 주도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임. □ 김해의 청년 이탈 문제는 김해에는 청년들이 먹고 놀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이 많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먹는 곳 따로 쇼핑할 수 있는 곳 따로따로 형성되어 있어 구심점이 없음. □ 또한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과 입시, 취업 문제일 것임. 이러한 문제는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됨. 즉 김해에는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인식이 있음. □ 청년의 입장에서 김해에 대한 이미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임. (김해에 머무르고 싶다 등) □ 사회 경제 측면에서 보면 김해에서는 청년을 사업이나 정책, 행정의 대상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고 청년 스스로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인식은 부족함. 이로 인해 청년들은 번아웃 되어서 결국 김해를 포기하거나 떠나게 됨. □ 인구통계 측면에서 김해 먹자골목에서 장사하고 있고 주민등록에 등록되지 않은 청년들도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음.
세대갈등	○	□ 젊은 층은 윗세대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오히려 윗세대들의 젊은 층에 대한 편견이 더 문제라고 생각됨.
미혼여성 소외	△	□ 김해에서 미혼여성은 어디에든 속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됨. 부녀회는 결혼을 해야 가입할 수 있음. 청년회 가입도 안 됨. 그 이유가 미혼여성이 청년회에 들어가면 그 회원남자와 바람이 난다는 것임. □ 기존 부녀회들은 모임의 밥을 책임지고 남성은 선후배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즉 아직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지 않음. □ 여성, 남성의 사회 주요 자리를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통계도 없음. 그래도 최근에는 주요 직책에서 여성이 눈에 띌 때가 있음.
종교 갈등	△	□ 가야문화를 강조하면서 그 속의 내용은 보수적인 유교문화가 숨겨져 있음. 유림이 없는 것 같지만 숨어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음. □ 문화다양성 문제에서 종교가 빠지는 것도 이상해 보임.

구분	설문 반영 여부	내용
한정된 네트워크 및 홍보활동	×	□ 처음 김해에 오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활발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기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국한된 홍보활동만 가능.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원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황임. □ 넓게 보면 시의 주요 행정관련 의사결정에서 김해시민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고 경청할 수 있는 문화가 진정한 문화다양성이라 생각함.
지역으로서의 자부심	×	□ 인근에 창원이나 부산 같은 도시가 있지만 김해시민으로서 김해의 차별적인 이미지는 무엇인가, 가야말고는 없는가 라는 고민이 있음. □ 문화도시로서 우리만의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임.

3. 2차 전문가 회의

1) 설문초안에 대한 논의

○ 2차 전문가 회의에서는 1차 전문가 회의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진 설문 초안을 바탕으로 설문검토 작업이 이루어짐. 최종 설문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표Ⅴ-19〉 2차 전문가 회의 논의 내용

구분	근거	세부 문항	전문가 논의 내용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2017 문체부 문항 참조	• 문화적 다양성 인정되는 사회 • 표현의 자유 보장 • 소수자 권리 보장 • 차별받지 않음 • 가치 확산	□ 유지 □ 단,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김해지역에 한정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함
소수집단 인식	2018 부산 문항 참조	• <u>소수집단 접촉 경험</u> (외국인근로자, 이주민, 이주민 자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유학생, 난민, 성소수자, 장애인, 북한이탈 주민 등)	□ 설문을 위해서는 이주민의 자녀, 중도입국자녀 등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실제 현장에서 만나다보면 중도입국자녀와 이주민 자녀의 구분이 애매한 지점이 있음. □ 사실 사할린동포는 외국인 근로자도 아니고, 결혼 이주민도 아니고, 난민도 아니고 애매한 지점에 있음. 문항의 양을 고려하여 소수집단 범위 문항정로만 파악하는 것이 좋을 듯 함. □ 외국인 유학생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짐. 대부분의 김해지역 유학생은 유학기간 끝나고 근로자로 남고 싶어 함. □ 난민은 김해에 거의 없지만, 사회적 이슈를 판단하는 척도로서 유지해도 좋음.
	2017 문체부 문항 참조	• <u>소수집단 수용도</u> (가족 및 동네 이웃) (외국인근로자, 이주민	□ 동네 이웃의 의미는? 어떤 세대에게는 동네 이웃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음. 마주치지 못하는

구분	근거	세부 문항	전문가 논의 내용
		등)	동네 이웃은 무관한 사람들임. 특히 청소년은 동네 이웃이 학교 친구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궁금할 것임.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학교가 대부분임. □ 동네 이웃과 동네 주민을 병행해서 설명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임.
	2018 부산 문항 참조	• 차별 개선 필요 소수집단	□ 삭제 □ 소수집단 범위 인식 문항 추가 시 삭제해도 무관함.
	기타	• 소수집단 범위 인식	□ 추가 □ 여러 소수집단 중 김해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수집단의 범위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문항 추가 필요 □ 여기서의 소수집단은 '소수성'을 의미하므로 소수라서 차별받는 집단으로 문항을 정의해 보면 좋을 것 같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다양한 차별받는 소수집단 등을 포함 (한 부모 가정. 1인 가구 등) □ 노인 등을 소수집단 문제로 볼 수도 있으나 이는 복지차원의 이슈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함.
사회현상에 대한 인식	일부 2018 부산 문항 참조 1차 전문가 회의 내용 반영	• 성별불평등	□ 균형적인 문장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성별 불평등에서 여성의 문항이 많지만 남성과 관련한 문항은 거의 없으므로 더 추가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남성으로서의 전통적인 가장의 무게 등 □ 김해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이슈가 있으니 이 부분을 보다 더 부각할 필요가 있음. □ 장유, 진영, 김해의 문제는 신도시, 원도심 문제가 아님. 원도심 개발이
		• 세대 간 갈등	
		• 인종과의 갈등	
		• 타 지역/도농갈등	
		• 수도권 및 지방간 갈등	

구분	근거	세부 문항	전문가 논의 내용
		• 1인 가구	어려우니 장유 등으로 문화시설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지역격차가 생겼음.
		• 기타	□ 추가 □ 이주민으로 인한 종교에 대한 편견(이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슬람을 꼭 집어서 표현하지 말고 종교라는 관점에서 질문해도 좋음.
	개선필요도		□ 유지
김해 관련	1차 전문가 회의 내용 반영	• 선주민 인식 • 문화도시로서 강조할 문항	□ 가야문화 중심과 다문화 중심 등을 중심으로 질문하는 것은 질문이 너무 뻔할 수 있으니 문항을 다시 다듬을 필요가 있음.

2) 조사내용 및 방법에 대한 논의

(1) 문화다양성과 복지 차원

○ 예를 들어 독거노인과 관련된 문항이나 한부모 가정 등 누가 보아도 사회적 배려와 돌봄이 필요한 집단이지만 이를 문화다양성이란 항목으로 너무 폭넓게 잡으면 초점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음.

○ 문화적 표현과 문화적 특징을 보호해주어야 할 집단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복지측면의 대상이 되는 집단들은 본 주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며, 사회갈등에 일부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물론 한부모 가정 특히 아버지가 자녀를 기르는 경우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에 대한 문제는 문화다양성 측면이지만 조사의 범위를 고려하여 소수집단에 포함해야 할지 결정해야 함.

○ 본 조사의 목적이 포괄적인 문화다양성 관련 문항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복지적인 측면까지 세세하게 포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2) 지역 분류

○ 원도심, 구도심이나 행정적 범위로 4개 권역을 나눌 수도 있고, 이주민 밀집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농촌과 도시 등을 구분해서 분석해보는 것도 필요함.

○ 진영지역이나 대동면은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지역임. 그들만의 문화적 욕구가 다를 것이라 생각됨. 반면 한림면은 기피시설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 지역정서가 좋지 않을 수 있음.

○ 일단 본 조사의 지역별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농촌과 도시 등으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임.

○ 참고로 북한이탈주민이나 사할린동포는 장유동에 집중되어 있음.

(3) 연령 기준

○ 15세 이상 설문을 받는 것이 필요함. 미래세대와 사회를 바라보는 거울 측면에서 10대의 관점이 중요함.

○ 요즘 10대는 이전 세대와 교육방법도 달라지고 문화다양성 관련 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됨. 이들의 인식 변화를 바라보는 것도 필요함. 예를 들어 김해의 합성초등학교에 정규교과의 과정 중 하나로 합창형태로 문화다양성 관련 22회차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학교 교사들도 음악 및 체육시간 등에 문화다양성 활동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셨는데 이 아이들과 교사의 인식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됨. 확실히 합성초 교사는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음.

4. 3차 전문가 회의

1) 설문조사 결과 논의

(1) 인구통계에 따른 인식 차이

□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긍정적 태도 형성. 그러나 문화다양성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서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가능**

○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에 대해 관대해지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서 일 수 있음.

○ 나이든 세대는 문화다양성이라는 개념을 접해보지 못한 세월이 오래되었고 이로 인한 사회문제나 갈등을 민감하게 느낄 수는 없을 것이라 여겨짐. 이들은 지금 수준도 문화다양성 측면에서는 괜찮은 수준이라 생각할 수 있음.

□ **은퇴이후 세대를 위한 사회문화적 정체성 확보 필요**

○ 사회적 갈등 이슈에서 노인에 대한 자조적 인식(노인은 사회의 짐)이 높아지는 이유는 은퇴이후 사회에서 이들이 제 역할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긴 것이라 생각됨.

□ **피상적인 질문에 대한 긍정률은 높지만, 본인과 관계된 질문에서는 민감하게 응답함.**

○ 전반적인 설문결과를 보면 일반적이고 피상적인 부분에 대한 긍정응답률은 높게 나오지만, 자신과 관련된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낮아짐. 예를 들어 20대~30대의 경우 한참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하는 시기에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 자신의 취업 자리가 뺏긴다고 생각하여 이들에 대한 인식이 낮아질 수도 있음.

○ 김해가 설문조사 결과상으로는 특별히 문화다양성 인식이 부족하거나 차별과 배제가 있는 지역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음. 겉으로는 사회갈등 등 고요하게는 보이나, 실제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기회나 인식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수동적인 김해 사람의 특성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됨.

□ **10대의 소수집단 활동 경험 높은 이유는 교육환경의 변화로 추정됨. 젊은층의 脫김해 현상이 현재 10~20대의 인식이 10년 후 김해에서 어떠한 변화를 이끌 것인지 준비해야 함.**

○ 10대의 문화다양성 전반적 긍정적 응답 경향이 높은 것은 학교교육의 변화 때문일 수 있음.

○ 10대에서 장애 다문화 접촉·활동 경험이 높은 이유는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의 통합 교육이 증가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음. 김해에서는 모든 학교가 대부분 통합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10대는 통합 교육의 세대임.

○ 또한 학교 교육에서 다문화관련 교육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5월에 학교마다 '상호문화의 이해 교육'을 진행함. 전 지역에서 대부분 진행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 외국인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들이 있음.

○ 김해의 10-20대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들이 연령이 증가하여 발언권이 증가하면 세대 간 갈등이 더 심각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김해를 이탈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우려됨.

□ **30대의 사회갈등 인식에 주목해야 함.**

○ 소수집단 수용도도 30대에서는 다른 연령대 대비 낮은 평가를 받았다가 다시 40대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현재 한국사회에서 30대는 사회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세대임. 경제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지만 사회적 성취와 결혼 등으로 자녀부양 등에 정신없는 연령대임. 시민사회에서 3~40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 존재함.

○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로 30대 남성의 보수적인 경향이 나타나 아마 비슷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김해를 향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세대는 30대인데 민감도가 떨어지는 이유를 향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2) 지역에 따른 인식 차이

□ **동지역 Vs. 읍면지역 : 읍면지역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피상적인 접촉만 할 뿐 공동체 일원으로 공유할만한 환경이 아님.**

○ 읍면지역에서 외국인 행사 참여 의사가 낮은 이유는 접근성이 낮아서 그런 것일 수 있음. 대체로 행사는 시설과 모객이 용이한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임. 읍면지역은 공장에 같이 다니니까 버스는 같이 타지만, 대화를 나누거나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부족함. 외국인근로자들은 대체로 매일 일을 하기 때문에 일 외적으로 서로 경험하기 어려움.

○ 보통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공사장들이 읍면에 있으니, 읍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지만, 동 지역에서는 노는 모습을 보다보니 경제 활성화 응답에 낮게 응답할 수 있음.

(3) 외국인 근로자 관련

□ **외국인 근로자 관련 지역적 이슈는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접근성, 공간, 배제, 차별 등**

○ 솔직히 한국인들은 외국인 행사에 대체로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외국인들도 주말에는 도시에서 문화향유를 하고 싶어 하므로 도시로 나가는 상황임.

○ 외국인들이 읍면지역에 많이 산다고 해서 산단 지역 쪽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또한 매우 어려움. 읍면지역이라고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넓다는 것은 오산임. 오히려 길도 좁고 공간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서서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나타나고 있음.**

○ 5-6년 전까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한국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행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다만 아직까지는 대화를 나누는 등의 소통 기회는 부족함.

○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이전과는 달리 많이 변화됨. 사람의 인식을 바뀌는 것에는 많은 시간이 걸림.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사회에 속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인식 또한 인식변화를 더디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 **단순한 접촉경험이 긍정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질적 접촉 경험 필요**

○ 소수집단 경험 중 김해는 부산 대비 경험률이 높은데 수용도는 생각보다 높지 않음. 또한 경제적 기여는 인정하지만 우리사회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수용 가능한가에 대한 근본적 거부감이 존재함.

○ 즉, 단순히 공단을 왔다 갔다 하는 외국인을 보는 것이 인식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질적으로 더 높은 경험을 서로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

2) 문화다양성 관련 향후 방안

○ **하나의 이슈에 초점을 두기보다 여러 이슈를 한꺼번에 고민하는 유기적인 행사 필요**

- 예를 들어 소수자들이 소수자 문제를 서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은 시도임. 하나의 초점을 두기보다 축제를 하더라도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는 행사가 필요함.
- 예를 들어 부산에서는 '가족'이라는 이슈로 성소수자, 미혼모 등 여러 문제를 한 번에 다루기도 함. 단순한 접촉경험만 남기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행사 등

□ **공간에 대한 고민 : 외국인이 모이는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 & 여러 소수집단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소통의 공간 고민 필요**

○ 김해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은 있지만 지역민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서울 광화문광장과 같은 상징적인 공간이 없음.

○ 공간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집단 간 보이지 않는 벽을 없애기는 어려움.

○ 그러나 현실적으로 김해의 공간은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지 확실치는 않음.

○ 행사를 할 때 꼭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도 시작해야 함. 보이지 않는 선을 없애고 외국인 근로자가 선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Ⅳ. 김해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결과분석

1. 응답자 특성
2. 문화다양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
3. 소수집단에 대한 경험 및 인식
4. 사회갈등 현상에 대한 인식
5. 김해 문화적 경쟁력에 대한 인식

Ⅳ 김해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결과분석

김해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는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개요는 아래와 같음.

〈표 Ⅳ-1〉 김해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개요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및 대면 면접 조사 병행
조사 기간	2019년 10월 17일 ~ 11월 3일
조사 대상	김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15세~79세 (2019년 조사 진행 시점 기준)
총 표본 수	420명
표본추출방법	성, 연령, 지역에 따른 비례할당 표본추출(Quota Sampling)
표본 오차	95% 신뢰구간에서 ±4.78%

1. 응답자 특성

1) 응답자 기본 특징

○ 성, 연령, 지역 별 응답자의 비율은 김해시의 인구통계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였음.

○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평균 김해 거주기간은 18.3년임. 참고로 2018 부산조사의 경우 평균 부산 거주기간이 33년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거주 기간이 짧은 편임,

○ 김해에서 출생한 주민의 비율은 19.0%, 타 지역에서 출생하여 김해로 이주한 경우는 81.0%로 대부분 타 지역 출신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음.

○ 김해는 동중심의 도심지역에 대부분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응답자의 86.7%가 동 단위 거주자였으며 학력별 분포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 비율이 45%로 통계청 국민교육수준 (2017년) 52%와 비교하면 본 조사 응답자의 학

력 수준은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Ⅳ-2〉 조사 참여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합계	420	100.0
성별	남	210	50.0
	여	210	50.0
연령	10대	26	6.2
	20대	64	15.2
	30대	69	16.4
	40대	92	21.9
	50대	85	20.2
	60대	49	11.7
	70대	35	8.3
김해 거주 지역	동 단위 지역	364	86.7
	읍·면 단위 지역	56	13.3
평균 김해 거주기간		18.3년	
김해 거주기간	10년 미만	95	22.6
	10~19년	154	36.7
	20년 이상	171	40.7
김해 출생여부	김해 출생(선주민)	80	19.0
	타 지역 출생(이주민)	340	81.0
직업	사무직	164	39.0
	주부	73	17.4
	학생	47	11.2
	블루칼라	44	10.5
	자영업	40	9.5
	기타	52	12.4
혼인 여부	미혼	118	28.1
	기혼(유배우)	258	61.4
	기타	44	10.5
가족형태	1세대 가족	130	31.0
	2세대 가족	268	63.8
	3세대 이상 가족	12	2.9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140	33.3
	300~500만원	149	35.5
	500만원 이상	117	27.9
	무응답	14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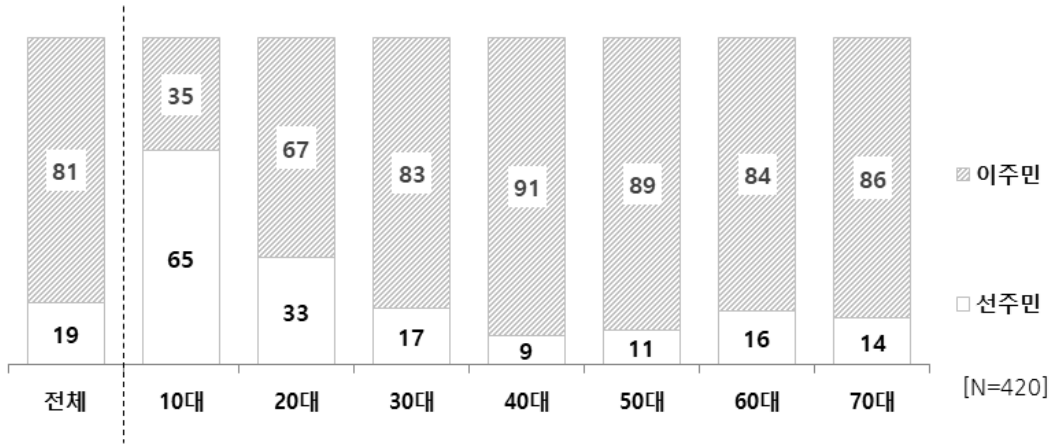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명)	비율(%)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89	45.0
		전문대/대학 졸업	212	50.5
		대학원 졸업 이상	18	4.3
시민사회 활동경험		있음	153	36.4
		없음	267	63.6
소수집단 활동경험	성소수자	있음	13	3.1
		없음	407	96.9
	장애인	있음	125	29.8
		없음	295	70.2
	다문화	있음	105	25.0
		없음	315	75.0
	성별 불평등	있음	33	7.9
		없음	387	92.1
해외경험	해외여행	있음	304	72.4
		없음	116	27.6
	해외유학	있음	26	6.2
		없음	394	93.8
	해외근무	있음	19	4.5
		없음	401	95.5

2) 김해시민의 정주 인식에 따른 응답자 특성

□ **김해 지역 출생자 비율 19%로, 외부 인구 유입이 많은 김해시**

○ 설문 응답자 중 19%는 김해 지역에서 출생한 반면, 81%는 김해 이외 지역에서 출생한 것으로 나타나, 김해가 현재 다양한 인구 유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50대에서 다른 지역에서 김해로 이주한 비율이 높은 반면 10~20대는 김해 출생자 비율이 높은데 이들은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4~50대가 김해에서 출산한 자녀 세대들인 것으로 해석됨.



[그림 Ⅳ-1] 연령대별 김해지역 출생비율

□ 20~30대 중심의 젊은 인구의 유입이 많은 김해시

○ 연령대별로 출생 후 기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0대 이전엔 10~50대까지 평균 거주연수가 비슷함.

○ 특히, 10년 미만으로 김해에 거주한 사람의 비율은 20대, 30대가 가장 높으며, 또한 20년 이상 거주한 비율 또한 비슷한 비율로 높음.

〈표 Ⅳ-3〉 연령별 김해지역 거주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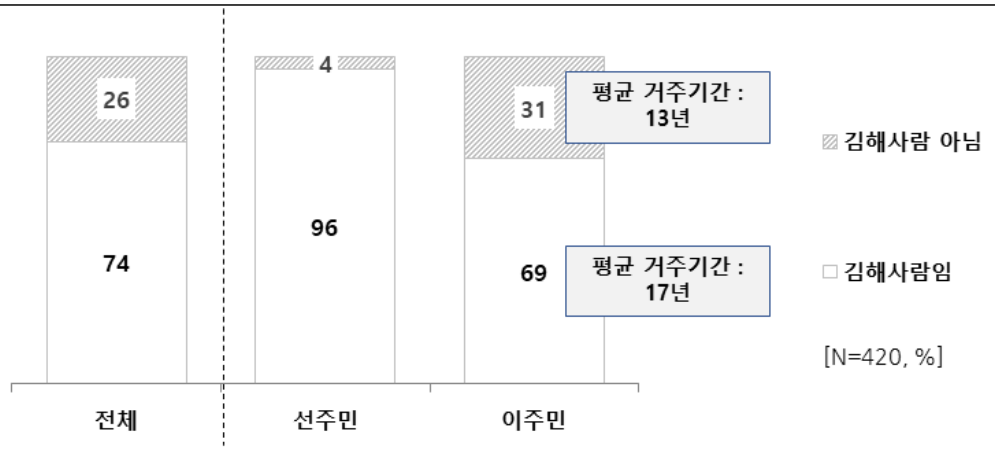
연령	김해 거주 평균 연수 (연)	거주기간별 응답비율 (%)		
		10년 미만	10~19년	20년 이상
전체	18.3	22.6	36.7	40.7
10대	14.7	15.4	80.8	3.8
20대	14.6	35.9	25.0	39.1
30대	15.3	33.3	31.9	34.8
40대	15.8	26.1	50.0	23.9
50대	18.6	12.9	36.5	50.6
60대	24.3	14.3	22.4	63.3
70대	31.4	8.6	20.0	71.4

□ 김해 이외 지역에서 태어났으나 본인을 김해사람이라 인식하는 비율 56%

○ 김해에서 출생한 사람들의 약 96%가 본인을 '김해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타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의 69%가 본인을 '김해사람'으로 인식함.

○ 타 지역 출생자 중 본인을 김해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9%로 높으며,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56%에 해당하여, 김해시민 중 절반이상은 타 지역에서 출생하였으나 이제는 본인이 김해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타 지역 출생자 중 31%(전체 응답자 기준 25%)는 본인을 김해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13년으로 10년 이상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그림 Ⅳ-2] 김해사람 정체성 인식

□ 김해에서 태어나고 김해사람으로 인식하는 10/20대

○ 김해지역 출생여부와 본인을 김해사람으로 인식하는지를 교차분석해본 결과, 연령대별로 차이가 나타남.

○ 10대의 65%는 김해에서 출생하고 본인을 김해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어 모든 연령대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40대에 비해서는 약 9배 높음.

○ 20대의 경우 10대보다 김해출생자의 비율은 절반수준이나 타 지역에서 출생

했지만 본인이 김해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50%를 넘음.

○ 30대 이후는 10/20대와 다른 양상을 보임. 우선 김해출생자의 비율이 10% 내외로 급격히 하락하며, 김해에서 출생하지 않았어도 김해사람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50%대를 유지하는 반면, 김해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30% 내외로 나타남.

〈표 Ⅳ-4〉 연령대별 출생지 및 정주인식

연령	김해 출생 & 김해사람	김해 출생 & 김해사람 아님	타 지역 출생 & 김해사람	타 지역 출생 & 김해사람 아님	합계 (%)
전체	18.3	0.7	55.7	25.2	100.0
10대	65.4	-	30.8	3.8	100.0
20대	31.3	1.6	53.1	14.1	100.0
30대	15.9	1.4	55.1	27.5	100.0
40대	7.6	1.1	58.7	32.6	100.0
50대	10.6	-	68.2	21.2	100.0
60대	16.3	-	44.9	38.8	100.0
70대	14.3	-	57.1	28.6	100.0

2. 문화다양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

1) 우리나라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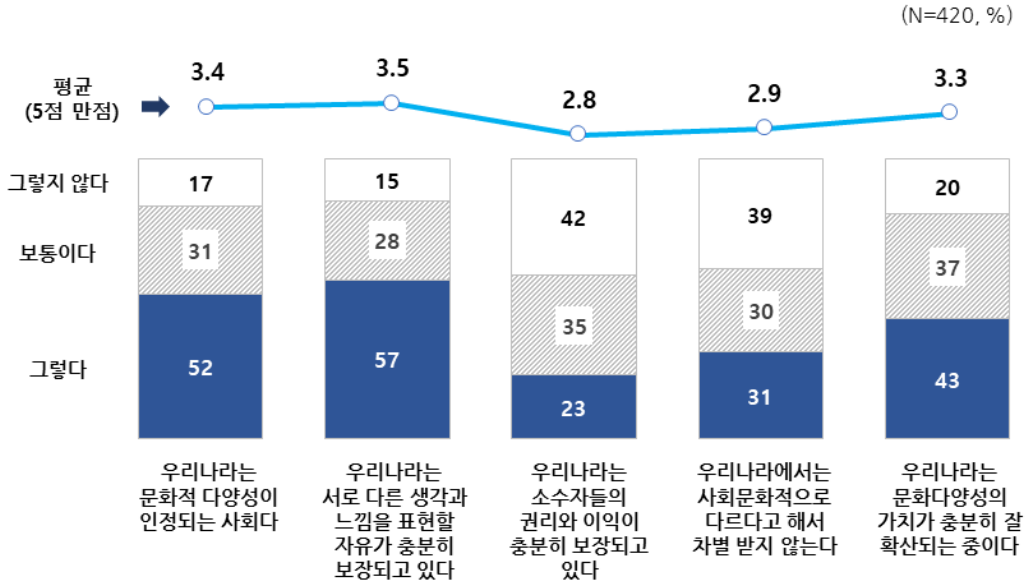
(1) 전체 응답자 기준

□ 52%는 우리나라가 문화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라고 인식하나, 소수자의 권리와 이익이 보호되고 있다는 인식하는 사람은 23%

○ 본 조사에 참여한 김해시민의 52%가 '우리나라는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되고,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며, 57%가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잘 확산되는 중' 이라고 응답함.

○ 반면 소수자들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는 23%만이 '우리나라는 소수자들의 권리와 이익이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1%가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응답함.

○ 이는 문화다양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준점에 대한 보다 세부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그림 Ⅳ-3]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김해시민의 전반적 인식

(2) 세부집단별 인식 차이

□ **연령에 따른 차이 : 30대를 기점으로 인식의 차이 커짐**

○ 10대를 제외하고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리나라 문화다양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양상을 보임.

○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70대 이상 응답자의 긍정 응답 비율(60.0%)이 20대의 긍정 응답 비율(9.4%)보다 약 6배가량 높게 나타남.

〈표 Ⅳ-5〉 연령별 우리나라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수준(긍정%)

연령	우리나라는 문화적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다	우리나라는 서로 다른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수자들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문화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이다
10대	69.2	53.8	42.3	23.1	53.8
20대	32.8	40.6	14.1	**9.4**	34.4
30대	40.6	42.0	7.2	10.1	17.4
40대	38.0	51.1	20.7	28.3	41.3
50대	63.5	69.4	36.5	47.1	52.9
60대	71.4	73.5	16.3	51.0	57.1
70대	77.1	80.0	37.1	**60.0**	60.0

□ **학력에 따른 차이 : 학력이 높을수록 부정적**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보다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함.

〈표 Ⅳ-6〉 학력에 따른 우리나라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수준 (긍정%)

최종학력	우리나라는 문화적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다	우리나라는 서로 다른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수자들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문화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이다
고졸 이하	62.4	66.7	28.0	42.9	54.5
대졸 이상	43.0	48.7	18.7	21.3	33.0

□ **해외 경험에 따른 차이 : 해외경험 많을수록 부정적**

○ 해외여행, 유학, 근무 등 해외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해외 경험이 없는 응답자보다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양상을 보임.

○ 특히 해외 유학 및 해외 근무 여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해외 유학 및 근무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모든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음.

〈표 Ⅳ-7〉 해외경험에 따른 우리나라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수준(긍정%)

구분		우리나라는 문화적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다	우리나라는 서로 다른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수자들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문화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이다
해외 유학	있음	34.6	46.2	11.5	7.7	19.2
	없음	53.0	57.6	23.6	32.7	44.4
해외 근무	있음	42.1	57.9	5.3	5.3	15.8
	없음	52.4	56.9	23.7	32.4	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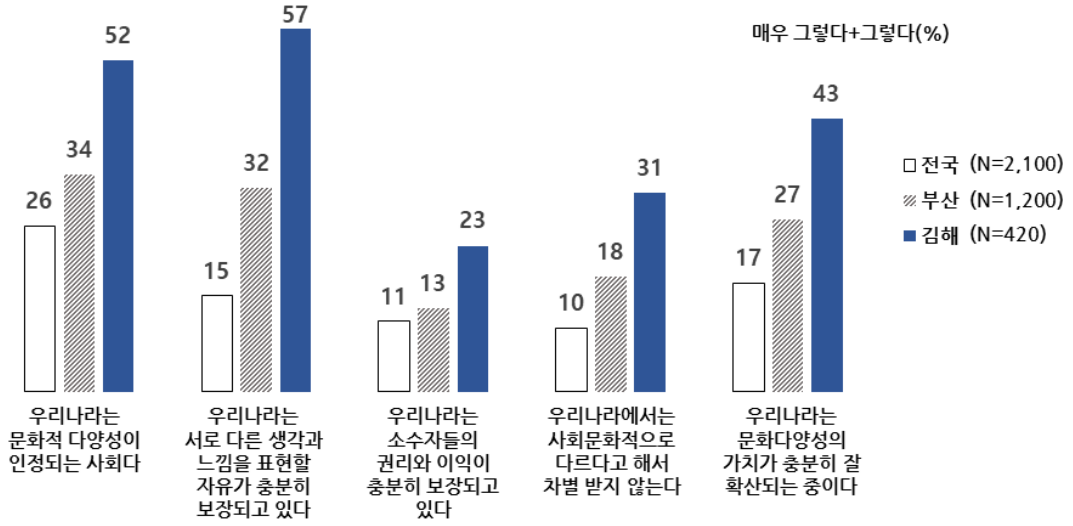
(3) 전국, 부산 대비[7] 김해시민 인식 비교

□ **김해시민이 전국·부산시민보다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수준에 대해 더 긍정적**

○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모든 문항에 대해 김해시민의 긍정 응답 비율이 전국 및 부산 대비 높음. 즉, 김해시민은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 특히 '우리나라는 서로 다른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김해시민의 긍정 응답 비율(57%)이 전국(15%) 및 부산(32%) 대비 최대 3.5배 높음.

○ 김해시민이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한다는 점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기준점 또는 기대치가 전국민 또는 부산시민 대비 낮기 때문이거나, 김해 지역에 대한 자부심 등 지역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그림 Ⅳ-4]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전국민, 부산시민, 김해시민 인식 비교

7) 문화체육관광부(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부산문화재단(2018),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을 통한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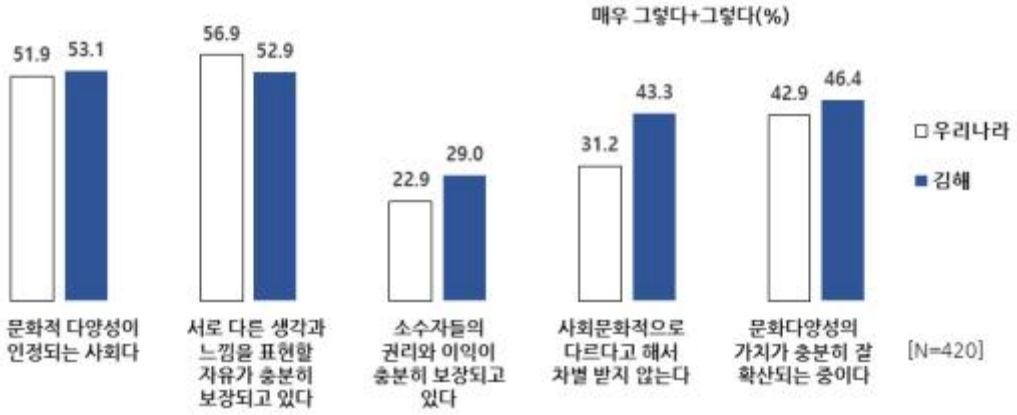
2) 김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8)]

(1) 전체 응답자 기준

□ **김해시민은 우리나라와 김해지역의 문화다양성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인식**

○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에 대한 5가지 문항에서 김해시민이 우리나라 대비 김해의 문화다양성이 낮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

○ 다만, 김해는 사회문화적으로 다르다고 차별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우리나라 전체보다 높은 반면, 서로 다른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전국대비 김해가 조금 낮다고 인식함.



[그림 Ⅳ-5] 우리나라 Vs. 김해 문화다양성 비교

(2) 세부 집단별 인식 차이

□ **'소수자들의 권리와 이익 보장', '사회문화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음'에 대해 연령대별로 인식 차이 나타남**

○ 김해시민은 '김해는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이다', '김해는 서로 다른

8) 전반적 문화다양성 인식 문항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분리하였음. 첫 번째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문항 5가지와 두 번째는 김해지역으로 한정한 문항 5가지임. 이는 김해시민에게 전반적인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현황에 대한 인식과 김해지역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기 위함임.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항목은 우리나라 전체와 김해지역이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하며 김해시민의 절반 정도가 해당 항목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

○ '김해는 소수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김해에서는 사회문화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항목은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30대에서 동의율이 가장 낮음(14.5%).

〈표 Ⅳ-8〉 연령별 김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긍정%)

연령	김해는 문화적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다	김해는 서로 다른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김해는 소수자들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김해에서는 사회문화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김해는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이다
10대	57.7	57.7	50.0	65.4	57.7
20대	43.8	40.6	23.4	25.0	35.9
30대	43.5	40.6	14.5	14.5	27.5
40대	44.6	43.5	27.2	37.0	43.5
50대	56.5	61.2	34.1	67.1	57.6
60대	73.5	73.5	32.7	59.2	59.2
70대	71.4	71.4	40.0	54.3	5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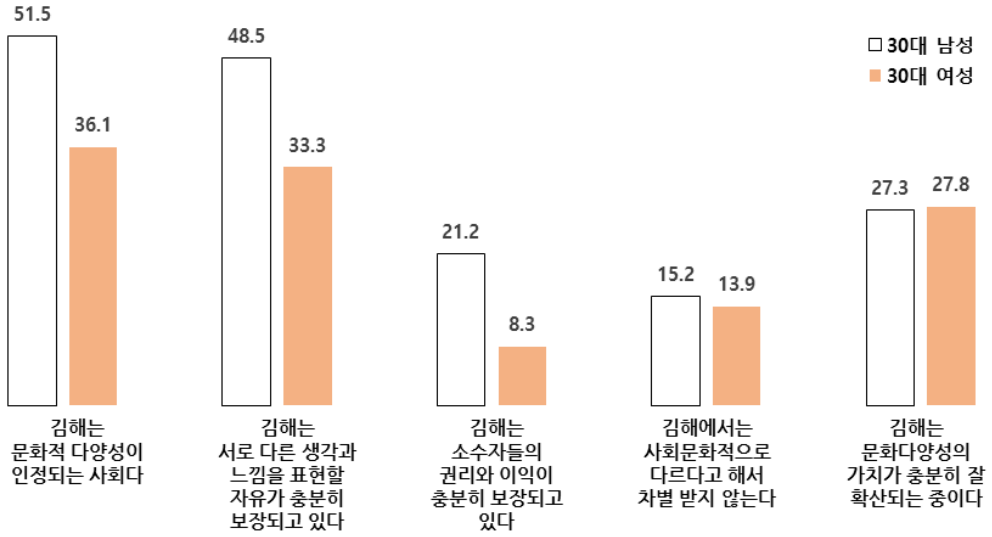
□ **김해의 소수자들의 권리와 이익의 보장에 대해 민감한 김해 30대 여성**

○ 김해문화다양성 인식에서 30대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30대 여성이 30대 남성에 비해 거의 모든 문항에서 낮은 동의도를 보여, 김해지역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연령/성별 집단임.

○ 특히, '김해는 소수자들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인식에서는 30대 여성의 동의율은 8.3%에 불과해 김해 소수자들의 차별에 대해 30대 여성이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음.

○ 김해 30대 여성은 30대 남성에 비해 김해에서 태어난 비율, 김해에 거주한

평균 연수가 모두 높음. 즉 30대 여성은 김해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이후에도 결혼이나 직장 등 연고를 김해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 세대이자 사회적 약자인 여성으로서의 경험이 남성과의 인식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유추됨.



[그림 Ⅳ-7] 김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30대 남녀 인식 비교

〈표 Ⅳ-9〉 김해 30대 남성/여성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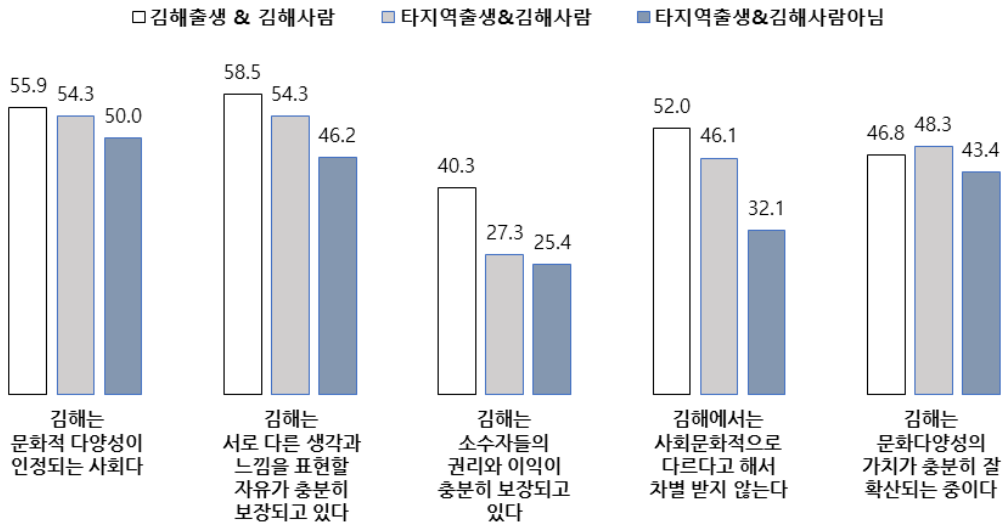
구분		전체	30대 남성	30대 여성
김해 평균 거주기간 (년)		18.32	13.97	16.50
김해 출생 여부 (%)	김해 출생	19.0	9.1	25.0
	타 지역 출생	81.0	90.9	75.0
김해사람이라는 인식 (%)	김해 사람	74.0	72.7	69.4
	김해 사람 아님	26.0	27.3	30.6

□ **타 지역에서 출생하고 김해사람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김해시민이 김해문화다양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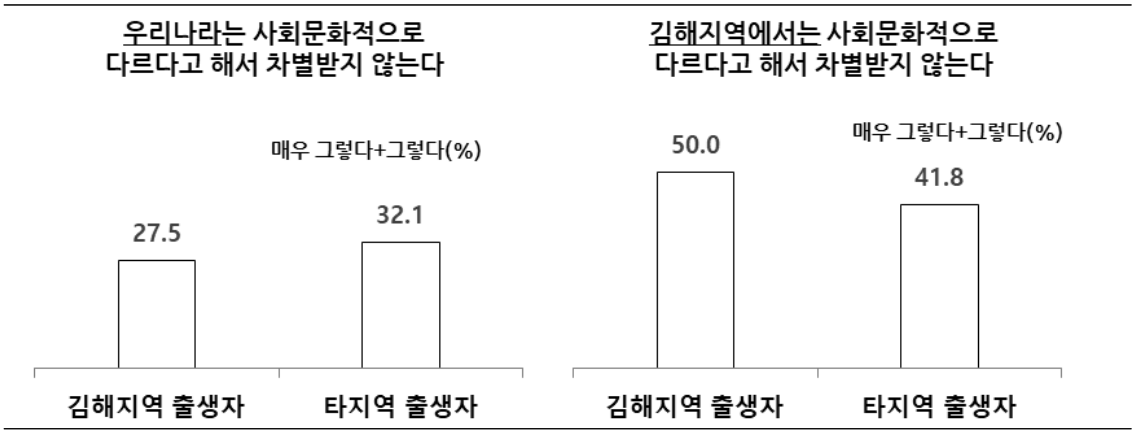
○ ‘김해는 소수자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항목에서 김해에서 출생하고 본인이 김해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차이가 약 15% 이상 나타남.

○ 김해에서는 사회문화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타 지역에서 출생해서 김해로 이주하였으나 본인은 김해사람이라 생각하지 않는 층에서 가장 낮음.

○ 반면 김해 출생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그림 Ⅳ-8] 김해 출생/정주인식에 따른 ‘김해의 사회문화적 차별’관련 인식 비교



[그림 Ⅳ-9] 김해 출생여부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별'관련 인식 비교

□ 학력에 따른 차이 : 학력이 높아질수록 부정적 인식 강함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보다 김해지역의 문화다양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함.

〈표 Ⅳ-10〉 학력에 따른 김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수준 (긍정%)

최종학력	김해는 문화적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다	김해는 서로 다른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김해는 소수자들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김해에서는 사회문화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김해는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이다
고졸 이하	61.9	62.4	35.4	55.0	56.1
대졸 이상	45.8	44.3	23.1	32.5	38.2
대학원이상	44.4	50.0	33.3	44.4	44.4

□ 해외 경험에 따른 차이 : 해외 경험이 많을수록 부정적 인식 강함

○ 해외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해외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비해 김해지역의 문화다양성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함.

〈표 Ⅳ-11〉 해외경험에 따른 김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수준(긍정%)

해외경험		김해는 문화적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다	김해는 서로 다른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김해는 소수자들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김해에서는 사회문화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김해는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이다
해외 유학	있음	38.5	38.5	11.5	15.4	26.9
	없음	54.1	53.8	30.2	45.2	47.7
해외 근무	있음	47.4	52.6	26.3	21.1	42.1
	없음	53.4	52.9	29.2	44.4	46.6

3. 소수집단에 대한 경험 및 인식

1) 김해시민이 인식하는 김해지역 내 소수집단

(1) 전체 응답자 기준

□ **김해에서 가장 차별 받고 있는 소수집단은 신체적 장애인과 외국인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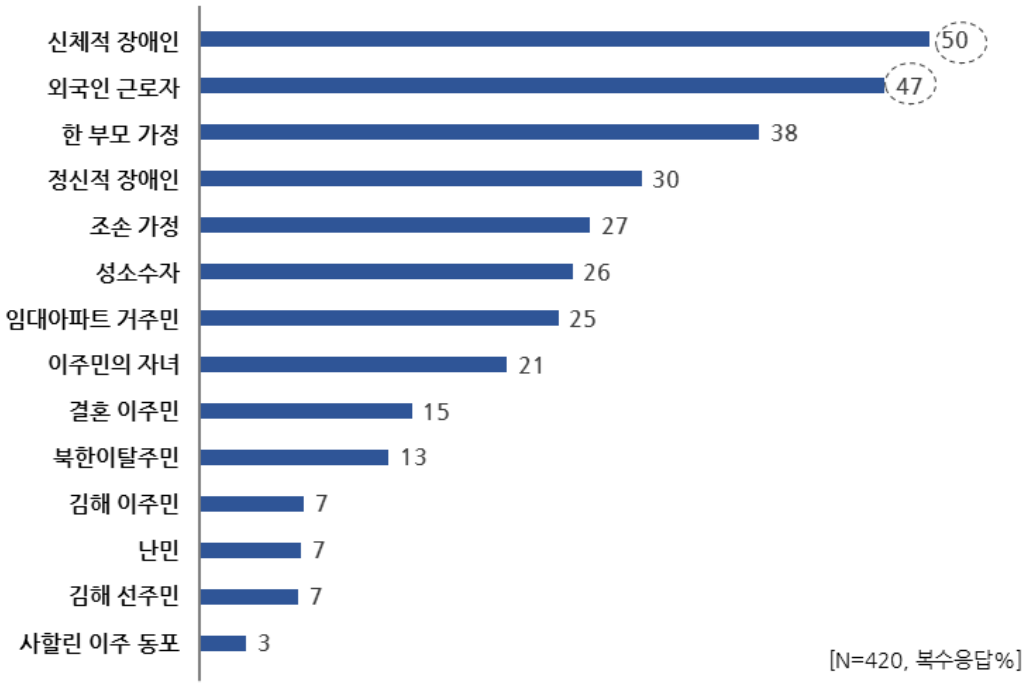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의 약 50%가 김해지역 내에서 사회문화적 차별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집단으로 신체적 장애인과 외국인 근로자를 선택함.

○ 다음으로는 한 부모 가정 〉 정신적 장애인 〉 조손 가정 〉 성소수자 〉 임대아파트 거주민의 순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중도입국자녀, 난민, 김해 선주민 또는 이주민, 사할린 이주동포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매우 낮음.

○ 김해시민들은 전반적으로 난민, 사할린 이주동포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소수집단보다는, 장애인,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일상에서 비교적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집단의 차별에 대해 더욱 잘 인식하는 양상을 보임.

문) 김해지역에서 사회·문화적 차별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수집단을 모두 체크해주세요. (복수응답)



[그림 Ⅳ-10] 김해시민의 소수집단 차별에 대한 인식

(2) 세부 집단별 인식 차이

□ **연령에 따른 차이 : 연령이 높을수록 한부모, 조손가정에 대한 차별인식도가 높은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외국인 근로자, 성소수자 등에 민감한 편임.**

○ 신체적 장애인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인식은 모든 연령대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특히 10대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접촉 경험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음에도, 차별에 대한 인식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즉 외국인 근로자와의 접촉 기회가 많지 않은 10대 청소년들도 김해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60-70대는 한 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에 대한 차별을 강하게 인식하는 반면, 10대는 정신적 장애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더욱 강하게 인식함.

〈표 Ⅳ-12〉 연령별 소수집단 차별 인식(%)

	신체적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한 부모 가정	정신적 장애인	조손 가정	성 소수자	임대아파트 거주민
10대	53.8	65.4	30.8	57.7	7.7	46.2	3.8
20대	46.9	57.8	42.2	31.3	17.2	28.1	18.8
30대	44.9	49.3	34.8	43.5	20.3	21.7	30.4
40대	44.6	41.3	28.3	27.2	26.1	26.1	25.0
50대	52.9	42.4	35.3	21.2	30.6	21.2	31.8
60대	51.0	38.8	51.0	24.5	44.9	26.5	22.4
70대	68.6	45.7	60.0	20.0	37.1	20.0	22.9
	이주민 자녀	결혼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김해 이주민	난민	김해 선주민	사할린 이주동포
10대	19.2	15.4	19.2	3.8	19.2	7.7	7.7
20대	26.6	12.5	17.2	6.3	7.8	7.8	1.6
30대	30.4	24.6	18.8	4.3	11.6	4.3	5.8
40대	29.3	21.7	16.3	8.7	8.7	9.8	5.4
50대	15.3	9.4	5.9	9.4	3.5	8.2	1.2
60대	6.1	8.2	10.2	6.1	0.0	0.0	0.0
70대	5.7	0.0	0.0	8.6	0.0	5.7	0.0

□ **성별에 따른 차이 : 여성은 성소수자, 조손가정, 이주민 자녀 등에 더 민감한 반면, 상대적으로 남성대비 장애인, 난민에 대한 차별인식은 낮음.**

〈표 Ⅳ-13〉 연령별 소수집단 차별 인식(%)

	신체적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한 부모 가정	정신적 장애인	조손 가정	성 소수자	임대아파트 거주민
남성	52.9	47.6	39.5	32.4	23.3	26.7	22.9
여성	47.1	46.2	37.1	28.1	30.0	24.3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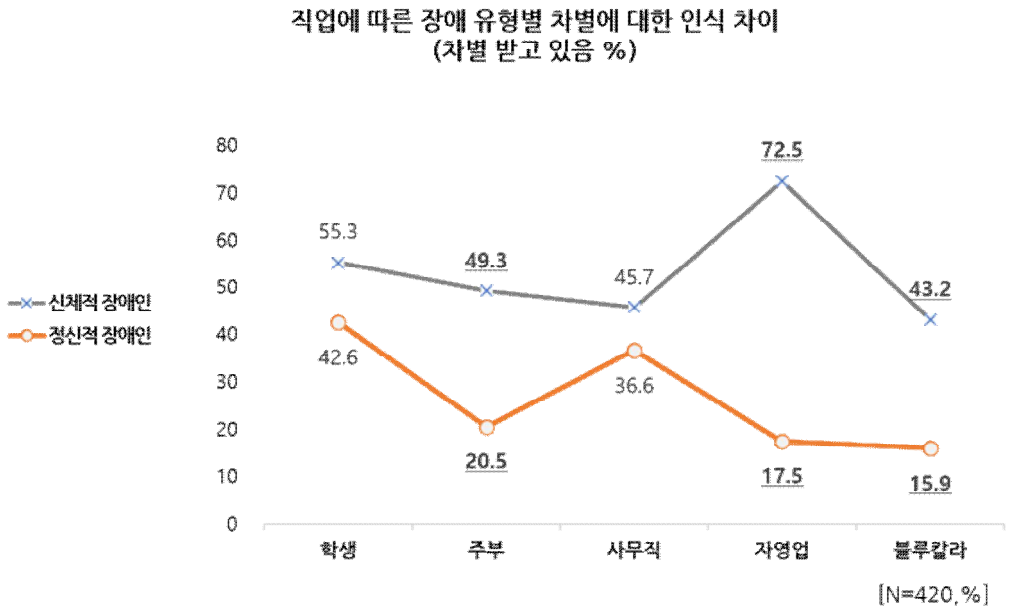
	이주민 자녀	결혼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김해 이주민	난민	김해 선주민	사할린 이주동포
남성	18.1	15.7	14.8	7.1	8.6	4.8	3.8
여성	23.8	13.3	11.0	7.1	5.2	8.6	2.4

□ **직업에 따른 차이 : 학생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모든 직업군에서 신체적 장애인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음. 단,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응답 차는 직업군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임**

○ 주부, 자영업, 블루칼라 종사자의 경우 장애의 유형에 따라 차별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정신적 장애인보다 신체적 장애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욱 높음.

○ 특히 자영업 종사자의 경우, 신체적 장애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은 72.5%로 매우 높은 반면 정신적 장애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은 17.5%에 불과함.

○ 학생은 다른 집단 대비 특히 외국인 근로자나 성소수자에 대한 응답률이 높음.



[그림 Ⅳ-11] 직업별 신체적 장애인 및 정신적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 **소수집단 활동 경험에 따른 차이 : 각 소수집단별 활동경험에 따라 해당 소수집단 차별인식이 높아짐.**

○ 관련 소수집단 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해당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을 더욱 크게 인식함. 예를 들어 성소수자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더욱 높게 인식함.

〈표 Ⅳ-14〉 소수집단 활동 경험 여부에 따른 소수집단 차별 인식(%)

		신체적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한 부모 가정	정신적 장애인	조손 가정	성 소수자	임대아파트 거주민
성소수자 관련 활동	있음	46.2	61.5	38.5	30.8	7.7	69.2	7.7
	없음	50.1	46.4	38.3	30.2	27.3	24.1	25.1
장애인 관련 활동	있음	48.8	43.2	31.2	41.6	22.4	32.8	23.2
	없음	50.5	48.5	41.4	25.4	28.5	22.4	25.1
다문화 관련 활동	있음	45.7	45.7	36.2	35.2	19.0	38.1	17.1
	없음	51.4	47.3	39.0	28.6	29.2	21.3	27.0

		신체적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한 부모 가정	정신적 장애인	조손 가정	성 소수자	임대아파트 거주민
성별 불평등 관련 활동	있음	39.4	42.4	33.3	36.4	9.1	45.5	12.1
	없음	50.9	47.3	38.8	29.7	28.2	23.8	25.6
		이주민 자녀	결혼 이주민	북한이탈 주민	김해 이주민	난민	김해 선주민	사할린 이주동포
성소수자 관련 활동	있음	23.1	23.1	23.1	0.0	23.1	15.4	7.7
	없음	20.9	14.3	12.5	7.4	6.4	6.4	2.9
장애인 관련 활동	있음	20.8	18.4	13.6	6.4	12.0	7.2	4.0
	없음	21.0	12.9	12.5	7.5	4.7	6.4	2.7
다문화 관련 활동	있음	26.7	20.0	14.3	6.7	10.5	5.7	5.7
	없음	19.0	12.7	12.4	7.3	5.7	7.0	2.2
성별 불평등 관련 활동	있음	36.4	24.2	21.2	0.0	21.2	9.1	6.1
	없음	19.6	13.7	12.1	7.8	5.7	6.5	2.8

□ **해외경험에 따른 차이 : 해외유학 경험자는 이주민에 대해, 해외 근무 경험자는 사할린 이주동포에 대한 차별인식이 높음**

○ 해외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이주민의 자녀, 결혼 이주민, 중도입국자녀, 사할린 이주동포에 대한 차별을 상대적으로 더욱 높게 인식하는 양상을 보임. 특히 해외에 오랜 기간 체류하는 해외유학, 해외근무 경험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남.

○ 특히 해외유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5.4%가 이주민 자녀에 대한 차별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해외유학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차별 인식은 18%에 불과함.

○ 사할린 이주동포에 대한 차별 인식은 해외근무 경험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해외근무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사할린 이주동포에 대한 차별을 10배 가까이 높게 인식함.

〈표 Ⅳ-15〉 해외경험 여부에 따른 외국인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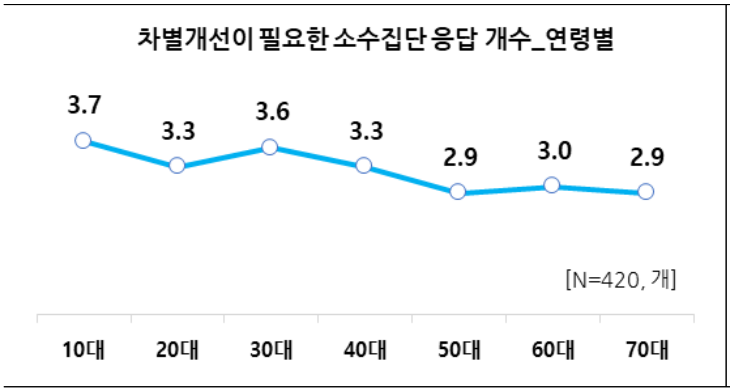
		이주민의 자녀	결혼이주민	사할린이주동포
해외유학 경험	있음	65.4	15.4	7.7
	없음	18.0	14.5	2.8
해외근무 경험	있음	36.8	31.6	21.1
	없음	20.2	13.7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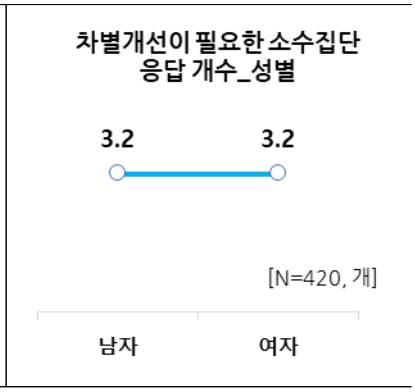
(3) 소수집단 차별에 대한 민감도 (차별받는 소수집단 응답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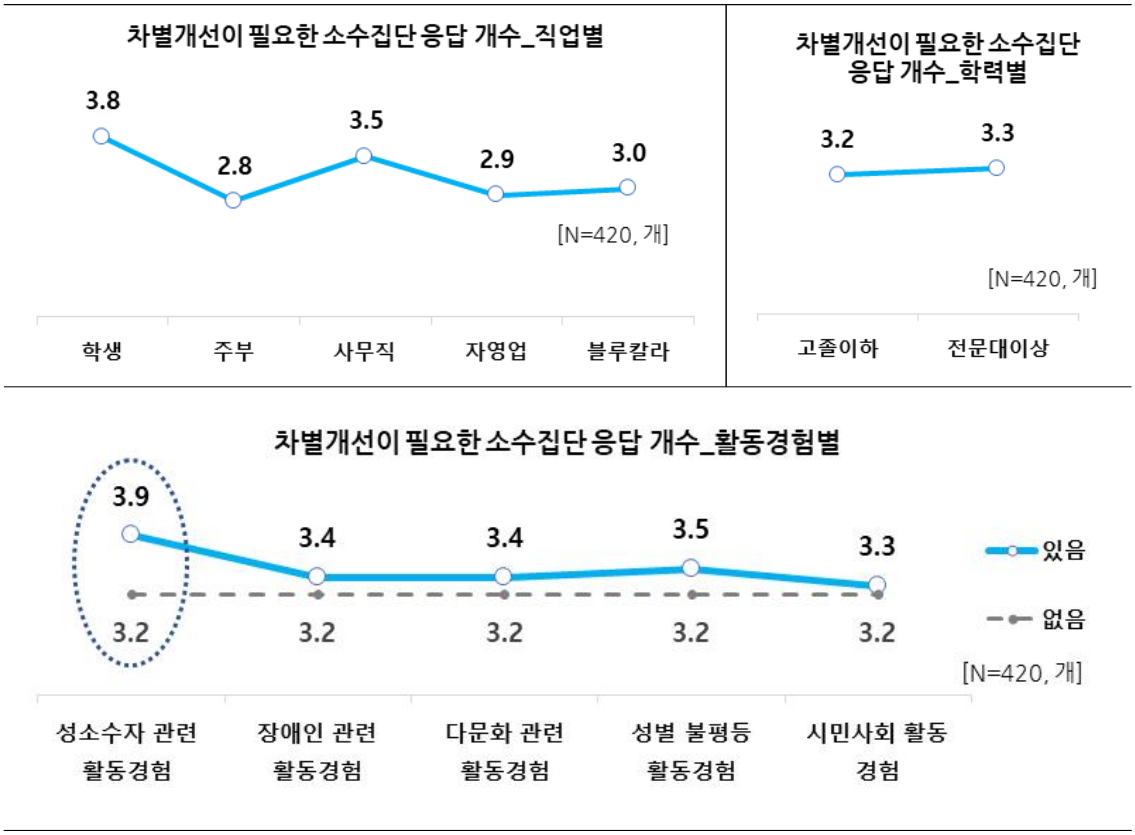
□ **응답 개수에 따른 응답자 특성 분석 : 연령이 낮을수록, 학생, 사무직 종사자, 소수집단 활동이 있을수록 응답 개수 증가**

○ 본 설문에서는 총 15개의 소수집단 중 김해지역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집단을 모두 고르게 하였음. 이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개수를 확인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차별받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 개수가 높았음.

○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소수집단 응답 개수는 10대 및 30대, 학생 및 사무직 종사자에게서 더 많이 응답됨. 특히 활동경험 중 성소수자 관련 활동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응답 개수가 가장 높음.







[그림 Ⅳ-12] 소수집단 응답 개수 비교

2) 소수집단 접촉 경험

(1) 전체 응답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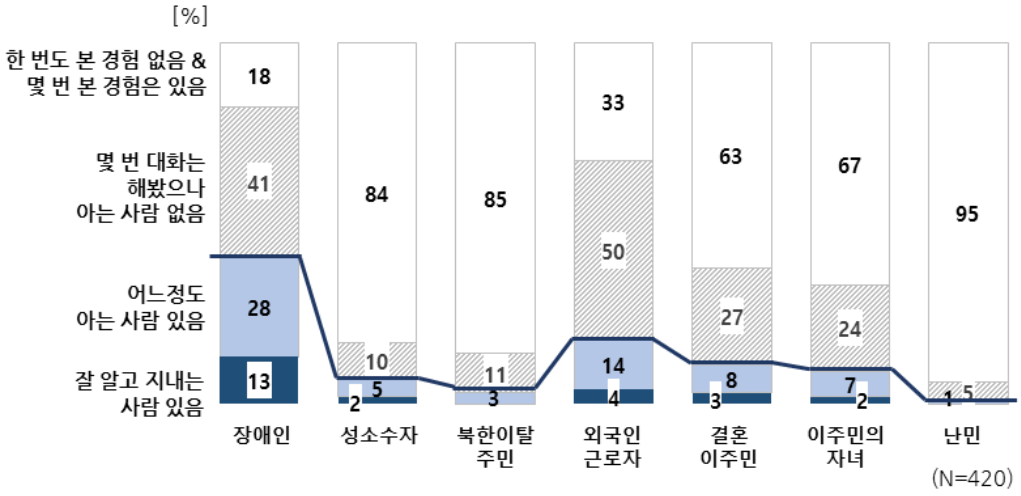
□ 장애인에 대한 접촉경험이 가장 높고 이어 외국인노동자의 접촉경험 높은 편

○ 7개 군의 소수집단 중, 김해시민의 접촉 경험이 가장 많은 소수집단은 ‘장애인’ 임. (※ ‘어느 정도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 고 응답한 경우를 접촉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외국인(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민, 이주민의 자녀)에 대한 접촉 경험은 10% 내외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중 가장 접촉 경험이 많은 집단은 ‘외국인 근로자’로 18% 정도임.

○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난민에 대한 접촉 경험은 매우 낮은 편임.

문) 다음 구성원들에 대한 귀하의 경험수준에 대해 표시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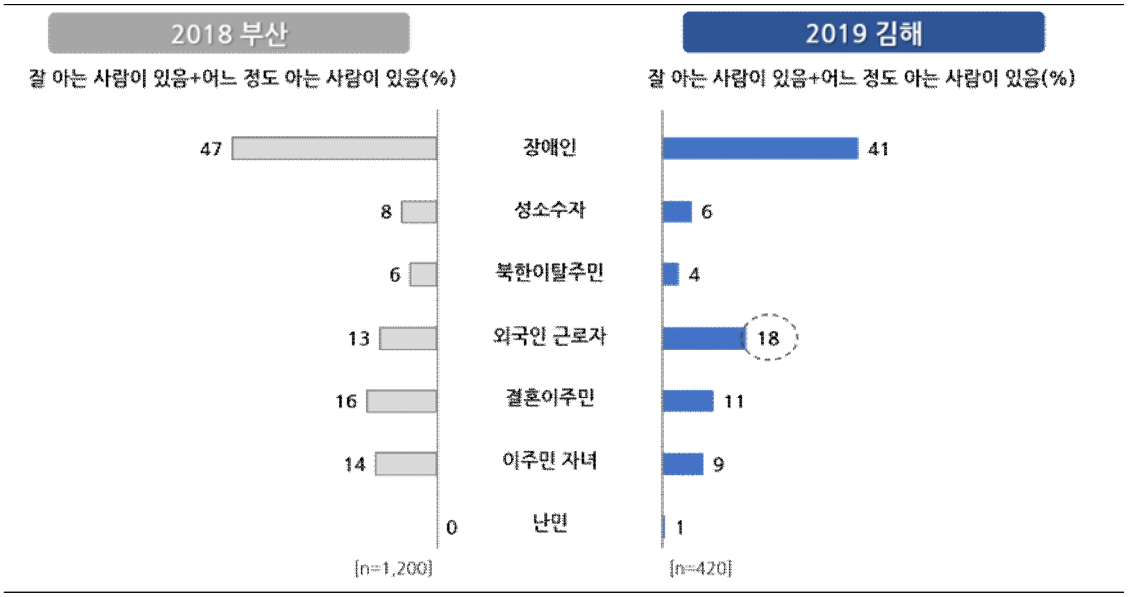
[그림 Ⅳ-13] 김해시민의 소수집단 접촉 경험

(2) 부산 대비 김해시민의 소수집단 접촉 경험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접촉 경험은 부산보다 김해에서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여러 소수집단에 대한 김해시민의 접촉 경험은 부산 대비 낮은 편임.

○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접촉 경험은 김해시민이 부산시민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험수준이 부산대비 높음.



[그림 Ⅳ-14] 김해시민과 부산시민의 소수집단 접촉 경험 비교

(3) 세부 집단별 차이

□ **연령에 따른 차이 : 외국인 근로자 접촉경험은 연령대 상관없이 20% 내외**

○ 전 연령대에 걸쳐서 장애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접촉 경험률은 높은 편임.

○ 50대와 60대는 다른 소수집단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접촉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10대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또는 결혼 이주민과 같은 성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접촉 경험이 낮은 반면, 이주민의 자녀에 대한 접촉 경험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성소수자에 대한 접촉 경험은 10대와 20대에서 특정적으로 나타나며, 30대부터는 성소수자 접촉 경험이 현저하게 낮아짐.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접촉 경험은 10대와 7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타남. 즉 김해시민의 외국인 근로자 접촉 경험 자체는 높은 편이 아니나, 타 소수집단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많은 연령대에서 고르게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대부분의 접촉 경험은 앞서 소수집단 차별 인식과도 연관을 보임. 즉 접촉이 많을수록 이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그러나 성소수자관련 접촉은 예외적인데 경험은 낮으나 차별받는 소수집단으로서의 인식되는 비율은 높은 편임.

〈표 Ⅳ-16〉 연령별 소수집단 접촉 경험률(%)

연령	장애인	성소수자	북한 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민	이주민의 자녀	난민
10대	23.1	23.1	3.8	7.7	-	11.5	-
20대	40.6	17.2	3.1	20.3	9.4	10.9	-
30대	14.5	1.4	2.9	17.4	17.4	10.1	1.4
40대	43.5	6.5	10.9	22.8	23.9	17.4	2.2
50대	52.9	2.4	-	16.5	5.9	3.5	-
60대	61.2	-	-	18.4	-	-	-
70대	40.0	-	-	8.6	-	-	-

□ **성×연령에 따른 차이 : 연령대별로 남녀 간 소수집단 접촉경험 차이**

○ 20-30대 여성의 '결혼 이주민, 외국인 자녀' 접촉 경험 비율이 20-30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50대 남성은 50대 여성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접촉 경험이 더욱 많음.

〈표 Ⅳ-17〉 성×연령별 소수집단 접촉 경험률(%)

성×연령	장애인	성소수자	북한 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민	이주민의 자녀	난민
20대 남성	45.2	19.4	6.5	22.6	3.2	6.5	-
20대 여성	36.4	15.2	-	18.2	15.2	15.2	-
30대 남성	9.1	-	-	18.2	9.1	-	-
30대 여성	19.4	2.8	5.6	16.7	25.0	19.4	-
40대 남성	51.1	6.4	12.8	23.4	23.4	14.9	4.3
40대 여성	35.6	6.7	8.9	22.2	24.4	20.0	-

성×연령	장애인	성소수자	북한 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민	이주민의 자녀	난민
50대 남성	61.0	2.4	-	26.8	9.8	7.3	-
50대 여성	45.5	2.3	-	6.8	2.3	-	-
60대 남성	60.0	-	-	16.0	-	-	-
60대 여성	62.5	-	-	20.8	-	-	-

□ **직업에 따른 차이 : 직업에 따른 생활패턴의 차이로 소수집단 접촉 경험 차이**

○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이주민의 자녀'에 대한 접촉 경험이 타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접촉 경험도 타 직업군에 비해 학생층에서 특정적으로 높게 나타남.

○ 사무직, 블루칼라 종사자들의 외국인 근로자 접촉 경험 비율이 타 직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Ⅳ-18〉 직업별 소수집단 접촉 경험률(%)

직업	장애인	성소수자	북한 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민	이주민의 자녀	난민
학생	29.8	23.4	6.4	8.5	6.4	14.9	-
주부	38.4	1.4	-	13.7	5.5	4.1	-
사무직	42.7	6.1	5.5	25.6	19.5	12.8	1.2
자영업	57.5	-	2.5	10.0	2.5	2.5	-
블루칼라	36.4	4.5	4.5	22.7	9.1	6.8	2.3
기타	38.5	3.8	-	7.7	1.9	1.9	-

□ **김해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 : 외국인근로자/결혼이주민 중심의 접촉경험이 높은 읍면 지역**

○ 성소수자와 장애인에 대한 접촉 경험은 읍·면 단위 지역보다 동 단위 지역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

○ 반면,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민에 대한 접촉 경험은 동 단위보다 읍·면 단위 지역에서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Ⅳ-19〉 김해 거주 지역별 소수집단 접촉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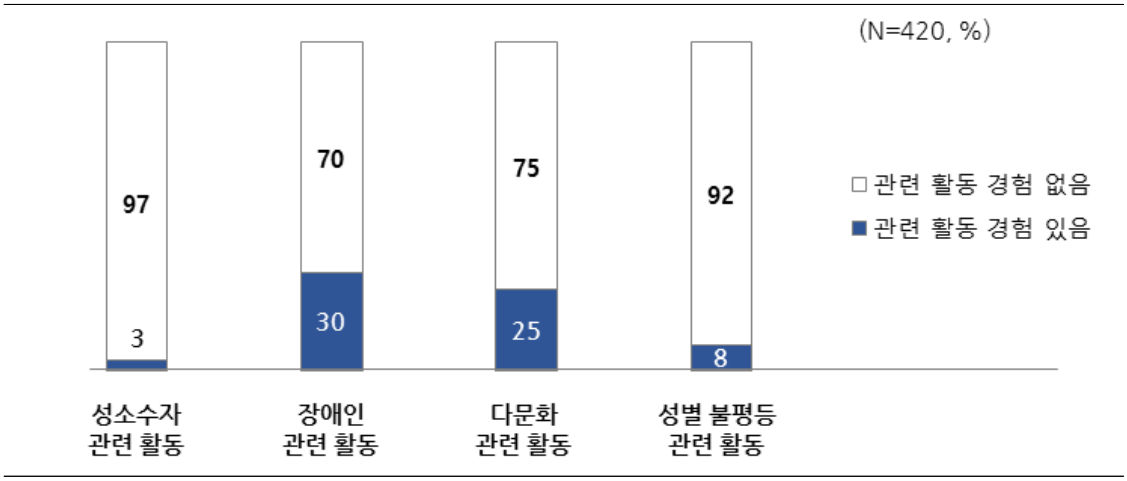
지역	장애인	성소수자	북한 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민	이주민의 자녀	난민
동 지역	42.0	7.1	3.0	16.5	9.6	8.8	0.5
읍·면 지역	32.1	-	7.1	25.0	17.9	7.1	1.8

3) 소수집단 활동 경험

(1) 전체 응답자 기준

○ 소수집단 관련 활동(축제, 교육, 자원봉사) 중 김해시민의 경험이 가장 많은 활동은 장애인과 관련된 활동으로 나타남.

○ 장애인 외에는 다문화 〉 성별 불평등 〉 성소수자 관련 활동의 순으로, 성별 불평등 및 성소수자 관련 활동 경험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Ⅳ-15] 김해시민의 소수집단 관련 활동 경험

(2) 부산 대비 김해시민의 소수집단 활동 경험

□ 김해시민은 부산시민보다 다문화 관련 활동에 더 많이 참여

○ 김해시민과 부산시민의 장애인, 성별 불평등, 성소수자 관련 활동에 대한 경험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반면, 다문화와 관련된 활동은 부산시민보다 김해시민에게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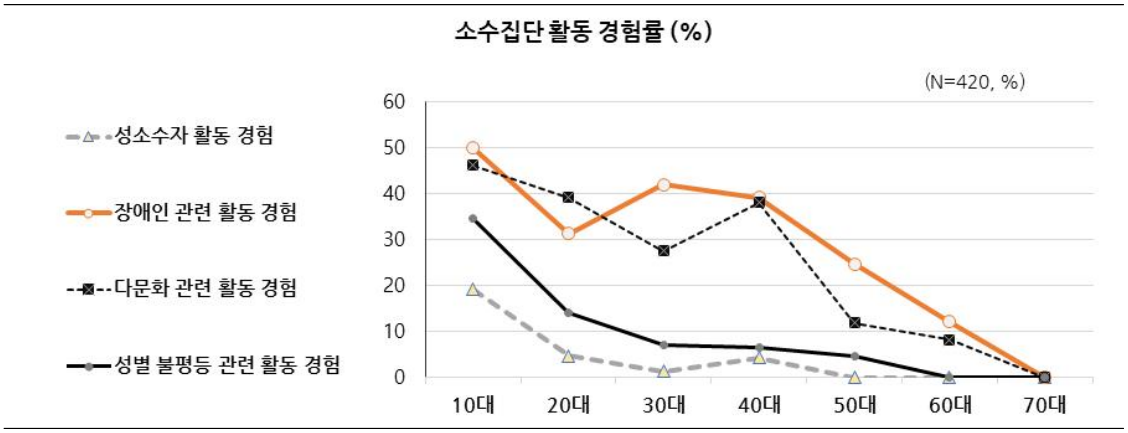
[그림 Ⅳ-16] 김해시민과 부산시민의 소수집단 활동 경험 비교

(3) 세부 집단별 차이

□ **연령에 따른 차이 : 연령이 낮을수록 소수집단과 관련된 활동 경험 증가**

○ 10대의 경우, 모든 소수집단 관련 활동에서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경험률을 보임. 10대의 대부분이 학생일 가능성을 고려할 때, 10대의 높은 소수집단 활동 경험률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행사 및 봉사활동에 의한 것일 수 있음.

○ 반면 50-70대는 모든 소수집단 관련 활동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경험률을 보이는데, 특히 성소수자와 성별 불평등 관련 활동 경험률은 매우 낮은 편임.



[그림 Ⅳ-17] 연령별 소수집단 활동 경험

〈표 Ⅳ-20〉 연령별 소수집단 활동 경험률(%)

연령	성소수자 관련 활동	장애인 관련 활동	다문화 관련 활동	성별 불평등 관련 활동
10대	19.2	50.0	46.2	34.6
20대	4.7	31.3	39.1	14.1
30대	1.4	42.0	27.5	7.2
40대	4.3	39.1	38.0	6.5
50대	-	24.7	11.8	4.7
60대	-	12.2	8.2	-
70대	-	-	-	-

□ **성×연령에 따른 차이: 동일 연령대에서도 성별에 따라 소수집단 활동 경험 차이**

○ 동일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다문화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더욱 많음.

○ 성별 불평등과 관련된 활동의 경우, 타 연령대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 비율이 더욱 높은 양상을 보임. 하지만 40대는 남성이 여성보다 성별 불평등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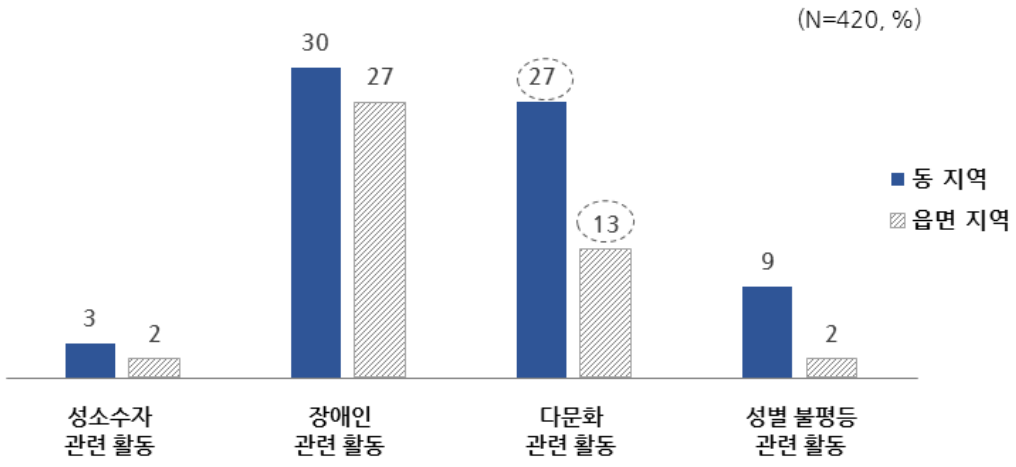
○ 남성의 경우 20-40대까지는 장애인 관련 활동에 높은 비율로 참여하지만, 50대 이후에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표 Ⅳ-21〉 성×연령별 소수집단 활동 경험률(%)

성×연령	성소수자 관련 활동	장애인 관련 활동	다문화 관련 활동	성별 불평등 관련 활동
20대 남성	6.5	32.3	25.8	12.9
20대 여성	3.0	30.3	51.5	15.2
30대 남성	0.0	54.5	9.1	0.0
30대 여성	2.8	30.6	44.4	13.9
40대 남성	6.4	40.4	27.7	8.5
40대 여성	2.2	37.8	48.9	4.4
50대 남성	-	17.1	7.3	2.4
50대 여성	-	31.8	15.9	6.8
60대 남성	-	4.0	8.0	-
60대 여성	-	20.8	8.3	-

□ **김해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 : 읍·면 단위 지역은 동 단위 지역 대비 외국인에 대한 접촉 경험이 더욱 높으나, 관련 활동 참여 수준은 낮음.**

○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민에 대한 접촉 경험은 동 단위 지역보다 읍·면 단위 지역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 하지만 다문화 관련 활동에 대해서는 읍·면 단위 지역의 경험률이 동 단위 지역보다 낮음.



[그림 Ⅳ-18] 김해 거주 지역별 소수집단 활동 경험률

□ **소득수준 및 학력에 따른 차이 : 소득수준과 학력이 높을수록 소수집단 관련 활동 경험 많음**

○ 성소수자, 장애인, 다문화, 성별 불평등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응답자의 월 가구 총 소득 및 학력이 높아질수록 소수집단 활동 경험률 또한 높아지는 양상을 보임.

○ 특히 성별 불평등과 관련된 활동의 경우, 월 가구 총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집단과 미만인 집단,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과 미만인 집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이를 통해 볼 때 소득수준과 학력이 높은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성별 불평등'과 관련된 이슈에 더욱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임.

〈표 Ⅳ-22〉 소득수준 및 학력별 소수집단 활동 경험률(%)

구분		성소수자	장애인	다문화	성별불평등
월 가구 총 소득	300만원 미만	1.4	18.6	11.4	4.3
	300~500만원 미만	2.0	31.5	26.8	4.0
	500만원 이상	6.0	39.3	37.6	16.2

구분		성소수자	장애인	다문화	성별불평등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2	20.6	15.9	6.9
	전문대 졸업 이상	2.2	37.0	32.2	8.7

□ **해외경험에 따른 차이 : 해외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장애인, 다문화 관련 활동 경험률이 더욱 높음.**

○ 해외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장애인, 다문화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더욱 많음. 특히 해외에 오랜 기간 체류하는 해외 유학과 해외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활동 경험률이 더욱 높음.

〈표 Ⅳ-23〉 해외경험 여부에 따른 소수집단 활동 경험률(%)

구분		성소수자	장애인	다문화	성별불평등
해외유학 경험	있음	3.8	38.5	50.0	7.7
	없음	3.0	29.2	23.4	7.9
해외근무 경험	있음	10.5	47.4	47.4	15.8
	없음	2.7	28.9	23.9	7.5

4) 소수집단 수용 의향

(1) 전체 응답자 기준

□ **성 소수자와 난민의 가족으로서 수용도 가장 낮음**

○ 7개 군의 소수집단 각각을 자신의 동네이웃 및 가족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 질문한 결과, 성 소수자와 난민에 대한 수용 가능 정도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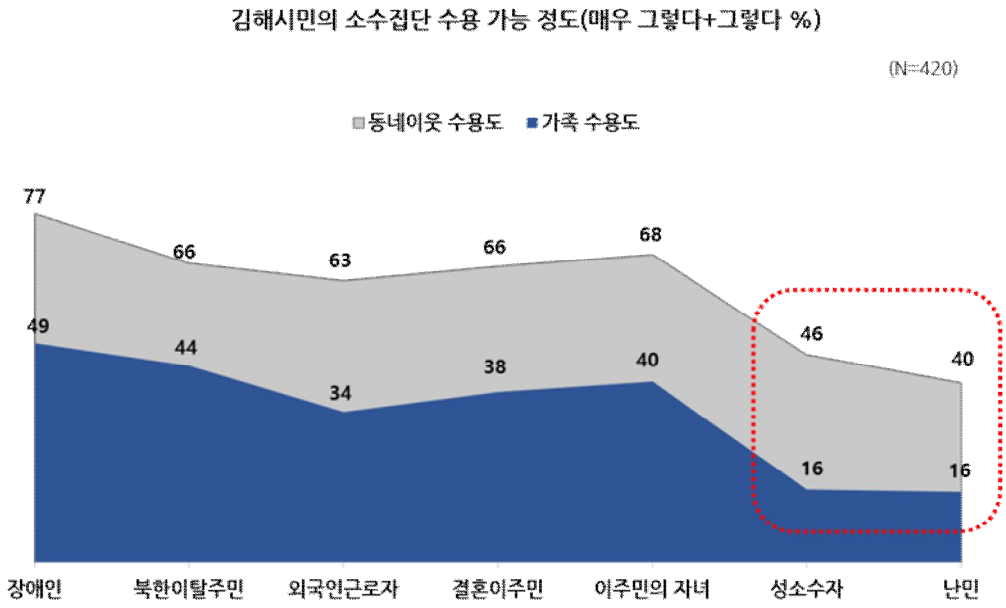
○ 성 소수자와 난민을 가족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 대에 불과하며, 동네이웃으로의 수용도도 30-40% 대로 나타남.

○ 장애인에 대한 동네이웃 및 가족으로서의 수용도는 7개의 소수집단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또한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에 대한 수용도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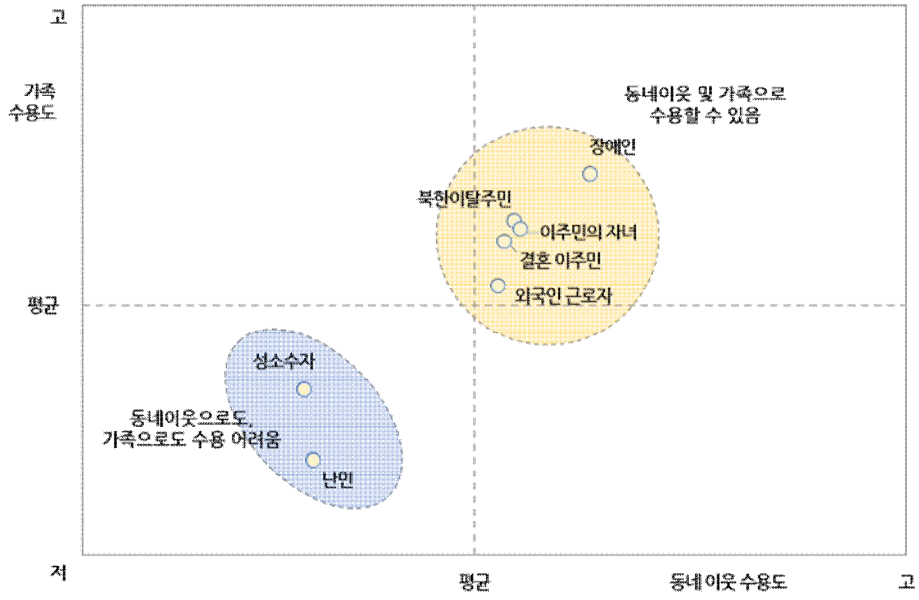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동네이웃으로서의 수용도는 63%인 반면 가족으로서의 수용도는 34%로 절반에 해당됨.

○ 김해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구 당 비율이 높은 편이며, 도심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접촉 경험 또한 사무직/블루칼라 등 경제활동 인구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잦은 접촉 경험에도 불구하고 동네이웃으로서의 수용도에 비해 가족으로서의 수용도가 절반에 이른다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접촉 경험의 질에 대해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그림 Ⅳ-19] 김해시민의 소수집단 수용 의향



[그림 Ⅳ-20] 동네이웃 및 가족으로서의 소수집단 수용 의향 비교

(2) 부산 대비 김해시민의 소수집단 수용도

□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에 대한 김해시민의 수용도는 부산 대비 높음.**

○ 동네이웃으로 소수집단을 수용하겠다는 의향은 부산시민에 비해 김해시민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난민에서 높음.

○ 가족으로서의 수용도에서는 부산시민 대비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용도가 더 높음.

○ 김해는 외국인 이주민 비율이 높고 외국인 노동자 접촉경험, 활동경험은 다른 지역 대비 높지만 이를 우리 사회 공동체, 즉 정서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인식은 기대대비 높지 않음. 오히려 성소수자나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에 대한 수용도가 부산보다 높음.

〈표 Ⅳ-24〉 부산, 김해지역의 동네이웃으로서 소수집단 수용도 비교(긍정 %)

구분	장애인	북한이탈 주민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민	이주민 자녀	성소수자	난민
2018 부산	70.6	61.3	69.7	76.0	75.3	30.9	32.8
2019 김해	77.4	66.4	62.6	65.7	68.3	46.2	39.8

〈표 Ⅳ-25〉 부산, 김해지역의 가족으로서 소수집단 수용도 비교(긍정 %)

구분	장애인	북한이탈 주민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민	이주민 자녀	성소수자	난민
2018 부산	42.8	38.1	28.5	41.9	42.5	14.7	11.1
2019 김해	48.8	43.6	33.6	37.9	40.2	16.2	15.7

(3) 세부 집단별 차이

□ **연령에 따른 차이 : 10/20대와 30대 이상 김해시민의 소수집단에 대한 다른 인식**

○ 모든 소수집단에 대해 10대와 20대의 수용도가 타 연령대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이 수치는 30대 이상의 모든 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이는 김해 10대/20대와 30대 이상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차이 나는 인식이 향후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30대의 각 소수집단에 대한 수용도는 40대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특히, 30대가 장애인과 외국인 근로자를 가족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는 50-60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보임.

〈표 Ⅳ-26〉 연령별 가족으로서의 소수집단 수용도(매우 그렇다+그렇다%)

연령	성소수자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민	이주민 자녀	난민
10대	50.0	57.7	69.2	46.2	53.8	53.8	38.5

연령	성소수자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민	이주민 자녀	난민
20대	29.7	65.6	50.0	43.8	54.7	60.9	21.9
30대	13.0	39.1	40.6	26.1	39.1	37.7	10.1
40대	14.1	53.3	53.3	41.3	53.3	52.2	18.5
50대	10.6	44.7	40.0	23.5	21.2	29.4	11.8
60대	6.1	44.9	26.5	34.7	22.4	26.5	10.2
70대	5.7	34.3	25.7	22.9	14.3	11.4	8.6

□ **성×연령에 따른 차이 : 동일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소수집단 수용도 높음**

○ 20대와 60대의 소수집단 수용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20대의 경우, 성 소수자를 제외한 모든 소수집단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더욱 수용적인 양상을 보임. 특히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민, 이주민의 자녀, 난민에 대한 남성의 수용도는 20대 여성 대비 약 25-30% 가량 높은 수준을 보임.

○ 60대의 경우에도 성소수자와 난민을 제외한 모든 소수집단에 대해 남성의 수용도가 여성보다 높음.

〈표 Ⅳ-27〉 성×연령별 가족으로서의 소수집단 수용도(매우 그렇다+그렇다%)

성×연령	성소수자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민	이주민 자녀	난민
20대 남성	22.6	67.7	51.6	58.1	67.7	74.2	35.5
20대 여성	36.4	63.6	48.5	30.3	42.4	48.5	9.1
30대 남성	9.1	36.4	42.4	21.2	39.4	36.4	18.2
30대 여성	16.7	41.7	38.9	30.6	38.9	38.9	2.8
40대 남성	10.6	51.1	55.3	34.0	48.9	51.1	21.3
40대 여성	17.8	55.6	51.1	48.9	57.8	53.3	15.6
50대 남성	12.2	46.3	39.0	26.8	24.4	29.3	14.6
50대 여성	9.1	43.2	40.9	20.5	18.2	29.5	9.1

성×연령	성소수자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민	이주민 자녀	난민
60대 남성	4.0	56.0	36.0	40.0	24.0	32.0	8.0
60대 여성	8.3	33.3	16.7	29.2	20.8	20.8	12.5

□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수집단에 대한 수용도 높음**

○ 500만원 이상의 소득수준을 가진 응답자의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민, 이주민의 자녀에 대한 수용도는 3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을 가진 응답자보다 약 20-30% 가량 높게 나타남.

〈표 Ⅳ-28〉 소득수준별 가족으로서의 소수집단 수용도(매우 그렇다+그렇다%)

소득수준	성소수자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민	이주민 자녀	난민
300만원 미만	15.0	45.0	35.7	29.3	27.1	26.4	10.0
300~500만원 미만	11.4	49.0	41.6	26.8	36.9	40.3	13.4
500만원 이상	21.4	52.1	54.7	46.2	49.6	53.0	23.9

□ **소수집단 활동 경험에 따른 차이 : 소수집단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소수집단에 수용도 높음**

○ 소수집단 유형에 관계없이, 소수집단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소수집단에 대한 가족 수용도에서 더욱 높은 수준을 보임.

〈표 Ⅳ-29〉 소수집단 활동 경험별 가족으로서의 소수집단 수용도(매우 그렇다+그렇다%)

구분		성소수자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민	이주민 자녀	난민
성소수자 관련 활동	있음	30.8	61.5	61.5	61.5	61.5	69.2	23.1
	없음	15.7	48.4	43.0	32.7	37.1	39.3	15.5
장애인 관련 활동	있음	24.0	60.0	54.4	44.0	52.8	57.6	26.4
	없음	12.9	44.1	39.0	29.2	31.5	32.9	11.2

구분		성소수자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민	이주민 자녀	난민
다문화 관련 활동	있음	22.9	59.0	55.2	41.9	52.4	57.1	21.9
	없음	14.0	45.4	39.7	30.8	33.0	34.6	13.7
성별불평등 관련 활동	있음	30.3	57.6	60.6	57.6	60.6	66.7	27.3
	없음	15.0	48.1	42.1	31.5	35.9	38.0	14.7

□ **해외경험에 따른 차이 : 해외 경험이 있는 경우 소수집단에 대해 수용적**

○ 해외에 오랜 기간 체류하는 해외유학·근무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소수집단을 가족으로 받아드리는 것에 있어 더욱 수용적인 양상을 보임.

○ 특히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민, 이주민의 자녀에 대한 가족 수용도는 해외경험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하지만 동네이웃으로서의 수용도에서는 해외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음.

〈표 Ⅳ-30〉 해외경험 여부에 따른 가족으로서의 소수집단 수용도(매우 그렇다+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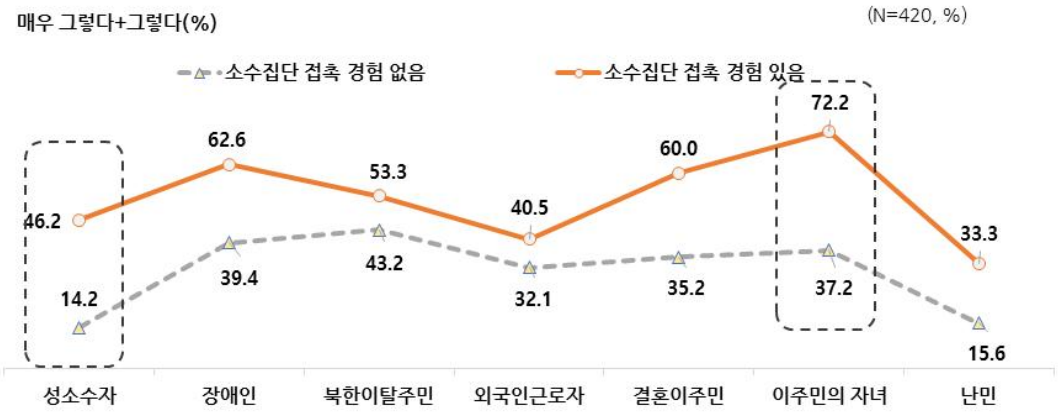
구분		성소수자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민	이주민자녀	난민
해외유학 경험	있음	26.9	50.0	61.5	42.3	57.7	53.8	11.5
	없음	15.5	48.7	42.4	33.0	36.5	39.3	16.0
해외근무 경험	있음	26.3	63.2	68.4	52.6	63.2	57.9	26.3
	없음	15.7	48.1	42.4	32.7	36.7	39.4	15.2

□ **소수집단 접촉 경험에 따른 차이 : 소수집단에 대한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소수집단에 대해 더욱 높은 수용도를 보임.**

○ 특히 성 소수자와 이주민의 자녀를 가족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는 해당 집단에 대한 접촉 경험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 반면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용도는 접촉 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김해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접촉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음. 그러나 접촉 경험에 따라 가족으로서의 수용도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외국은 근로자와의 접촉 경험의 질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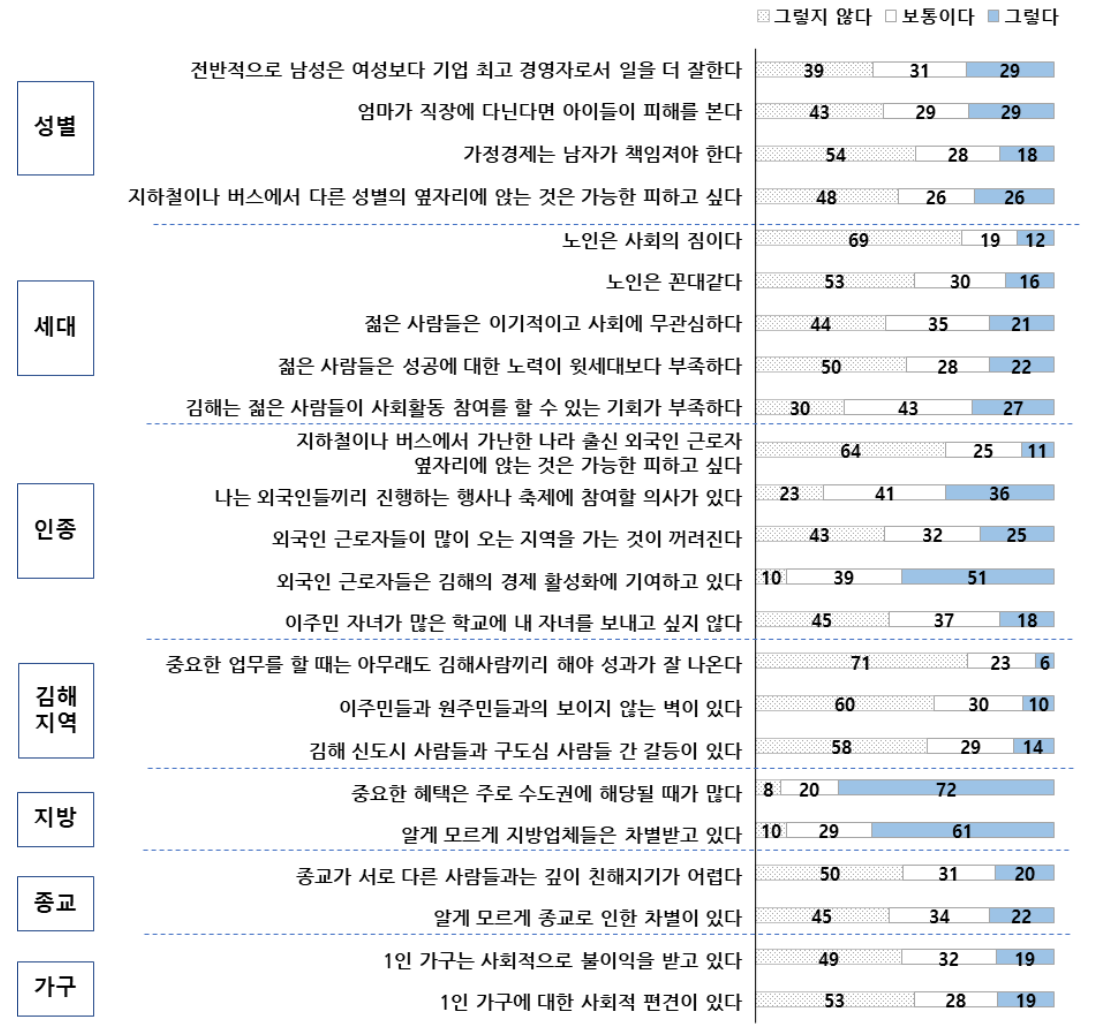
[그림 Ⅳ-21] 소수집단 접촉 경험에 따른 가족으로서의 소수집단 수용도

4. 사회갈등 현상에 대한 인식

1) 사회갈등 현상 종합

○ 김해지역 내 성별, 세대, 인종, 지역, 종교 등에 대한 갈등 및 차별은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남.

○ 반면 김해시민들은 수도권 대비 지방에 대한 차별 현상을 매우 강하게 인식함.



[그림 Ⅳ-22] 사회갈등 현상에 대한 인식_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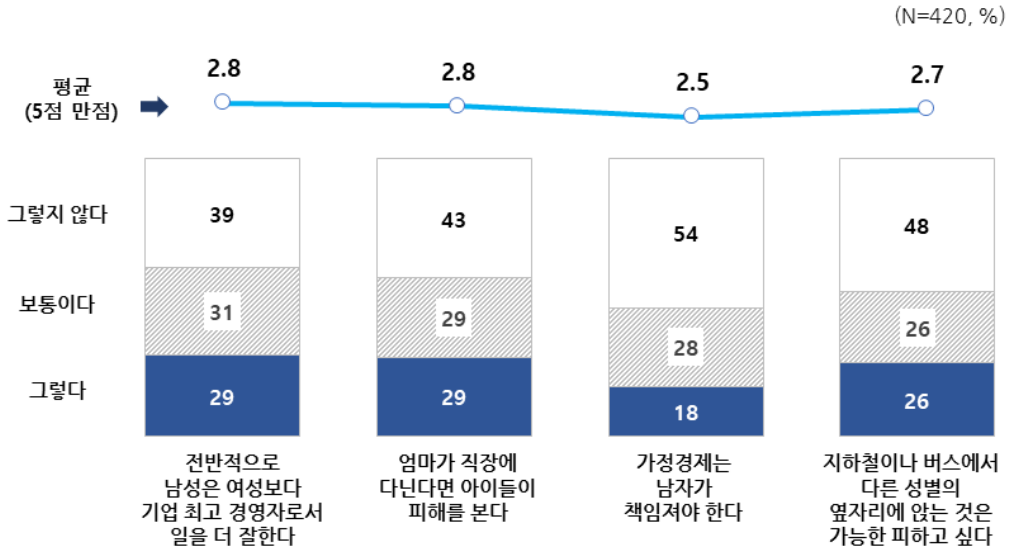
2)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

(1) 전체 응답자 기준

□ **김해지역 내 여성에 대한 편견과 전통적인 성 역할 요구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남성에 비해서는 여전히 일부 존재**

○ ‘전반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기업 최고 경영자로서 일을 더 잘한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님. 하지만 ‘보통이다-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를 차지하여, 여전히 여성의 업무역량에 대한 편견은 일부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 정도도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남. 하지만 ‘엄마가 직장에 다닌다면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정 경제는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보다 높게 나타남. 즉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성 역할 요구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이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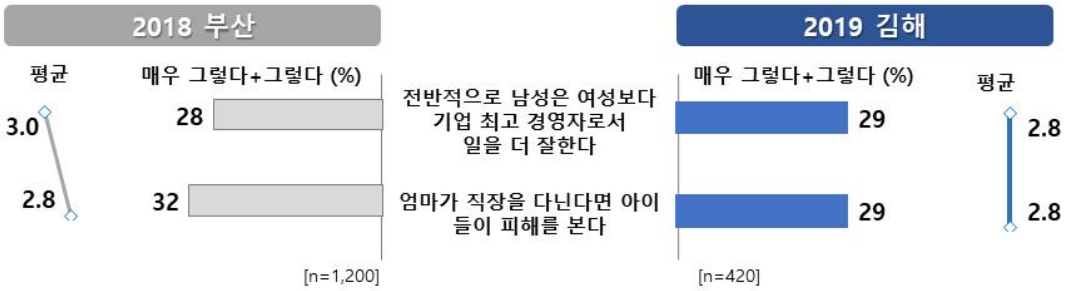
[그림 Ⅳ-23] 김해시민의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

(2) 부산 대비 김해시민의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

□ **김해시민은 부산시민보다 성별에 대한 편견을 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기업 최고 경영자로서 일을 더 잘한다.’는 문항에 대한 김해시민의 동의 정도가 부산시민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남.

○ 즉 김해시민은 부산시민 대비 여성의 업무역량에 대해 더 열린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Ⅳ-24] 부산 대비 김해시민의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 비교

(3) 세부 집단별 차이

□ **연령이 높은 남성일수록 성 역할에 대해 보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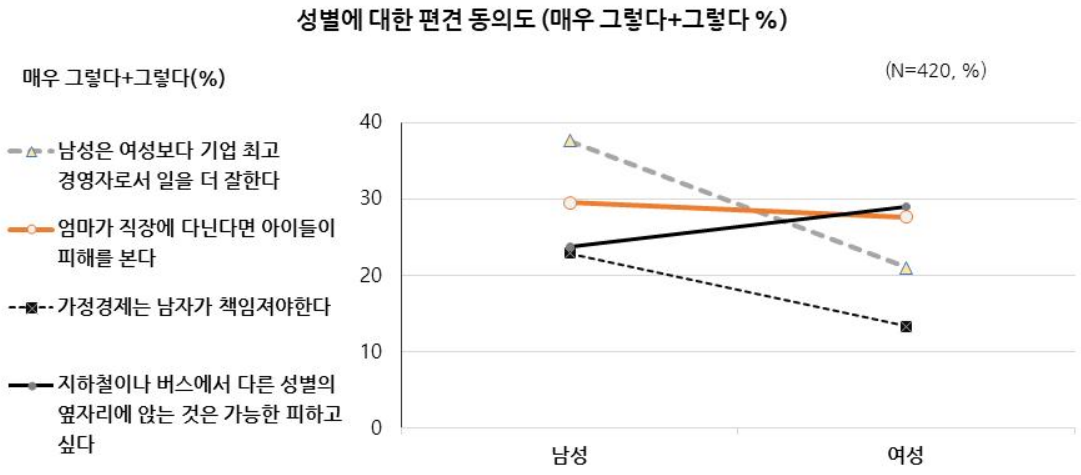
○ 30-60대 남성의 약 40% 가량이 ‘전반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기업 최고 경영자로서 일을 더 잘한다.’는 문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볼 때, 실제로 현재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남성들이 여성의 업무 역량에 대해 일부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30-40대 남성의 동의 비율은 동일 연령대 여성 대비 약 30% 가량이나 높게 나타남.

○ 40-50대 남성의 약 50%가 엄마가 직장에 다니면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고 인식함. 즉 여성의 역할을 자녀 양육에 한정 짓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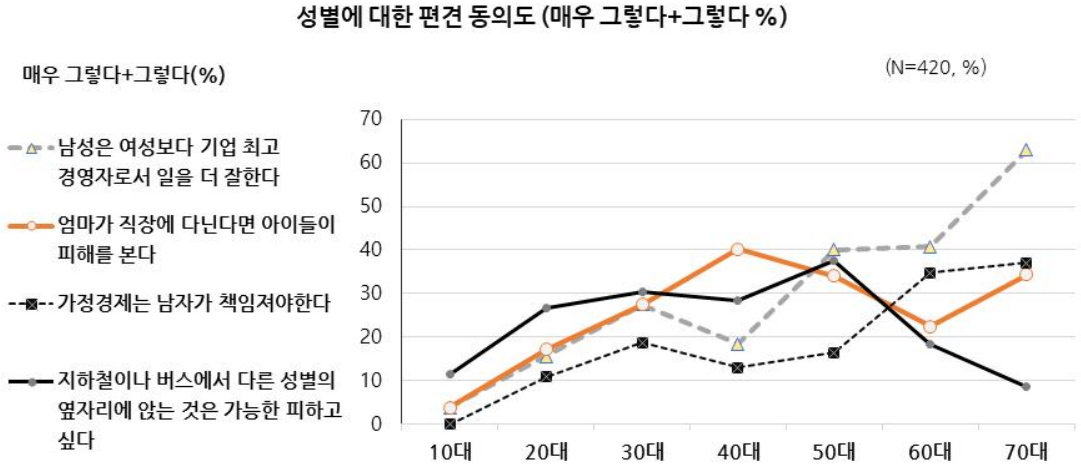
○ ‘가정 경제는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2-5배 가량 높은 동의를 보임. 즉 여성이 남성에게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부과하기 보다는, 남성 스스로가 가장으로서의 성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표 Ⅳ-31〉 성×연령별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긍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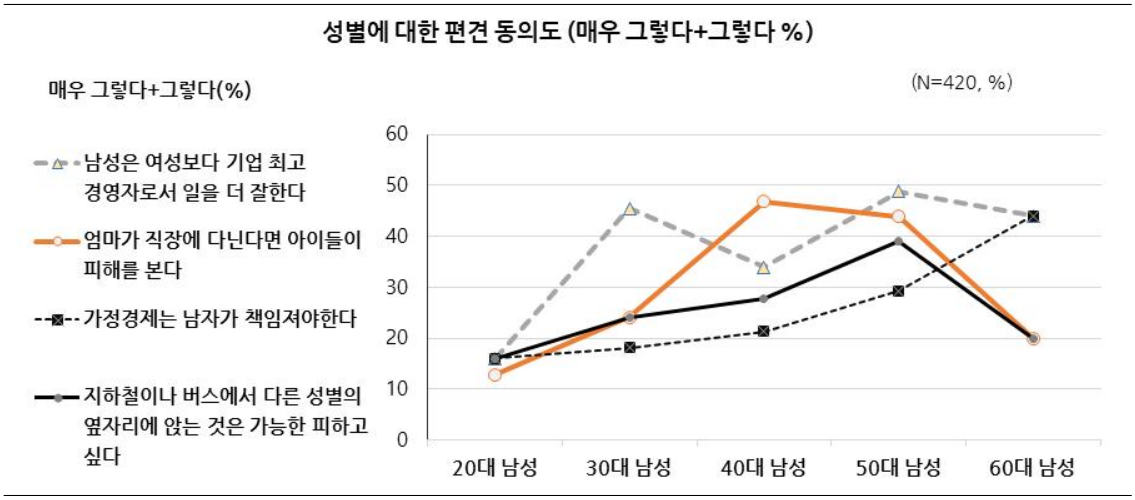
성×연령	남성은 여성보다 기업 최고 경영자로서 일을 더 잘한다.	엄마가 직장에 다닌다면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	가정경제는 남자가 책임져야한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다른 성별의 옆자리에 앉는 것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20대 남성	16.1	12.9	16.1	16.1
20대 여성	15.2	21.2	6.1	36.4
30대 남성	45.5	24.2	18.2	24.2
30대 여성	11.1	30.6	19.4	36.1
40대 남성	34.0	46.8	21.3	27.7
40대 여성	2.2	33.3	4.4	28.9
50대 남성	48.8	43.9	29.3	39.0
50대 여성	31.8	25.0	4.5	36.4
60대 남성	44.0	20.0	44.0	20.0
60대 여성	37.5	25.0	25.0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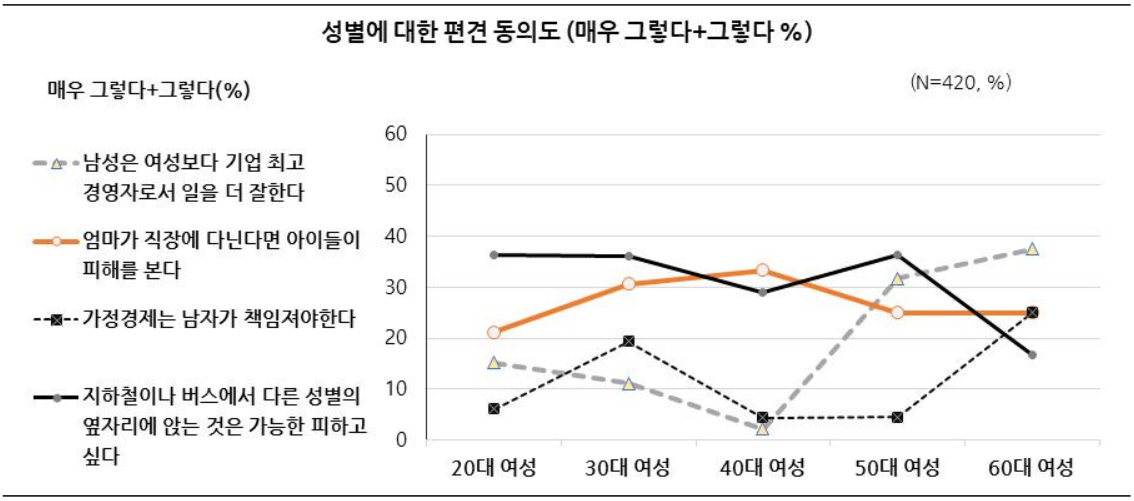
[그림 Ⅳ-25] 성별에 대한 편견 동의도_성별



[그림 Ⅳ-26] 성별에 대한 편견 동의도_연령별



[그림 Ⅳ-27] 성별에 대한 편견 동의도_남성



[그림 Ⅳ-28] 성별에 대한 편견 동의도_여성

3)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인식

(1) 전체 응답자 기준

□ 노인보다 젊은 세대에 대한 편견이 상대적으로 소폭 더 강한 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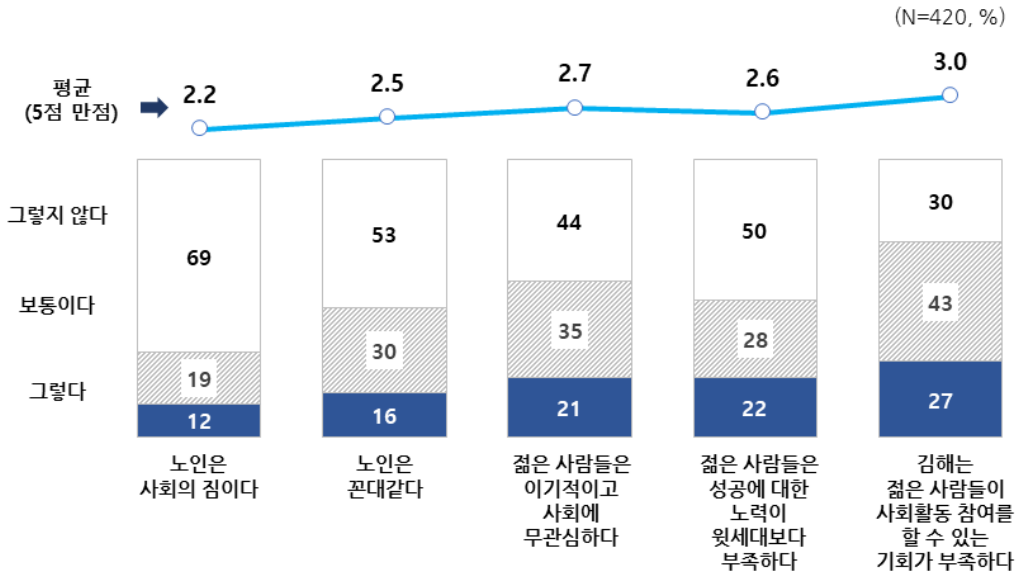
○ 김해시민의 약 70%가 노인은 사회의 짐이 아니라고 생각함. 또한 '노인은 꼰대같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도 약 16%로 낮은 수준을 보임.

○ '젊은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사회에 무관심하다.', '젊은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약 50%는 보통이다 또는 그렇다고 응답함.

○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젊은 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점수를 비교한 결과, 젊은 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노인에 대한 인식 대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

□ **김해 젊은 세대가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인식**

○ '김해는 젊은 사람들이 사회활동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30%에 불과함. 즉 김해시민들은 아직까지 김해지역 내에서 젊은이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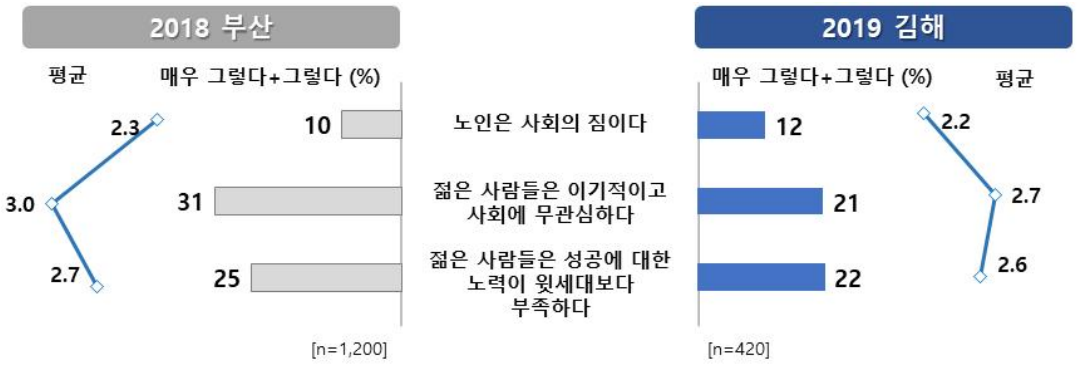
[그림 Ⅳ-29] 김해시민의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인식

(2) 부산 대비 김해시민의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김해시민들은 부산시민들보다 젊은 세대에 대해 긍정적

○ ‘젊은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사회에 무관심하다.’는 문항에 대한 김해시민들의 동의 정도는 부산 대비 유의하게 낮음.

○ 즉 김해지역 내에서는 젊은 세대에 대한 인식이 노인에 비해 부정적인 편이나, 부산과 비교했을 때에는 젊은 세대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편임.



[그림 Ⅳ-30] 부산 대비 김해시민의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인식 비교

(3) 세부 집단별 차이

□ 젊은 세대보다, 노인 세대 스스로가 노인은 사회의 짐으로 인식

○ 10-40대 중 ‘노인은 사회의 짐이다.’라는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은 약 3% 정도에 불과함. 반면 50대 이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의 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임. 특히 70대의 경우, 약 40%가 노인은 사회의 짐이라고 스스로 인식함.

○ 즉 젊은 세대는 노인 세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지만, 노인 세대 스스로가 젊은 세대가 갖는 노인 부양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연령이 높아질수록 젊은 세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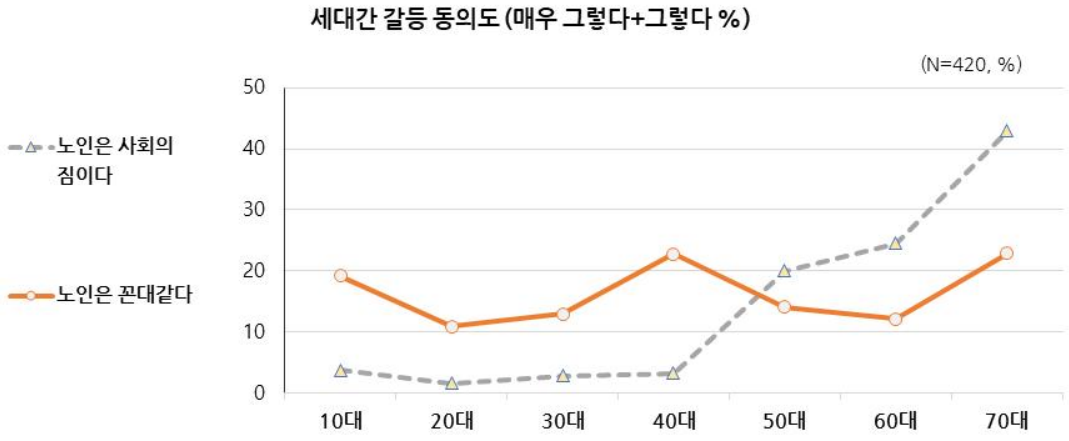
○ ‘젊은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사회에 무관심하다.’, ‘젊은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노력이 윗세대보다 부족하다.’는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은 40대 이상으로 갈수록 높아짐.

○ 즉 젊은 세대가 갖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보다, 연령이 높은 세대가 갖는 젊은 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높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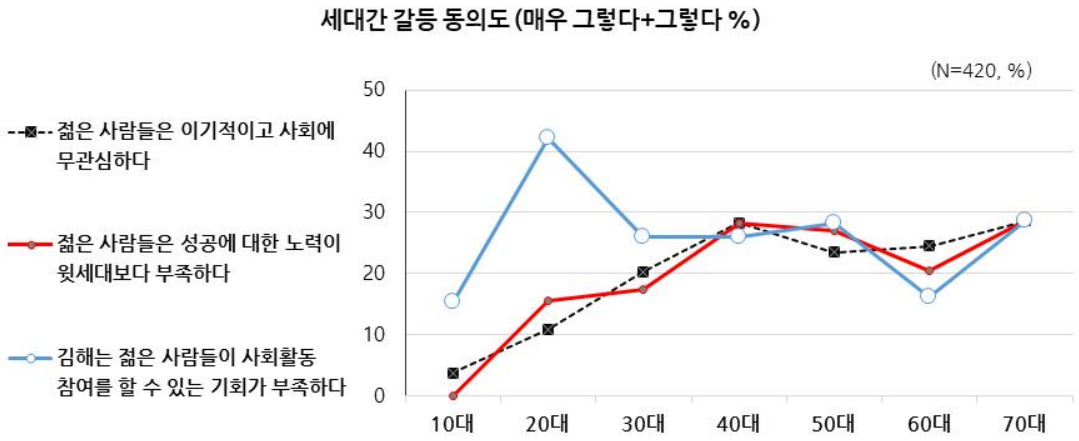
□ **젊은 세대 스스로가 김해는 젊은 사람들이 사회활동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인식**

○ ‘김해는 젊은 사람들이 사회활동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항에 대해 20대 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즉 실제 젊은 세대들이 김해지역 내 사회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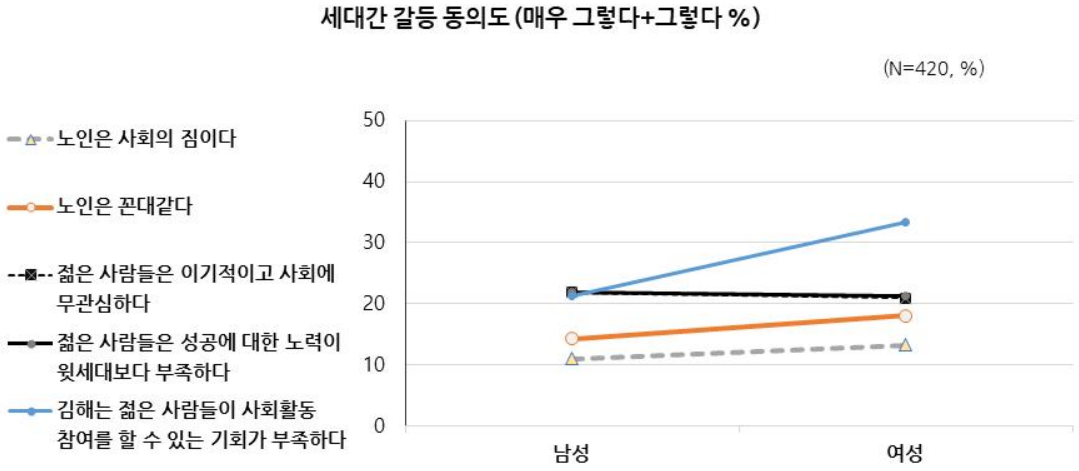
○ 이러한 인식은 20대 중에서도 여성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나는데, 김해지역에 남아있는 여성 업무역량,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편견이 20대 여성의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그림 Ⅳ-31] 세대 간 갈등 동의도_연령별 (1)



[그림 Ⅳ-32] 세대 간 갈등 동의도_연령별 (2)



[그림 Ⅳ-33] 세대 간 갈등 동의도_성별

4) 인종 갈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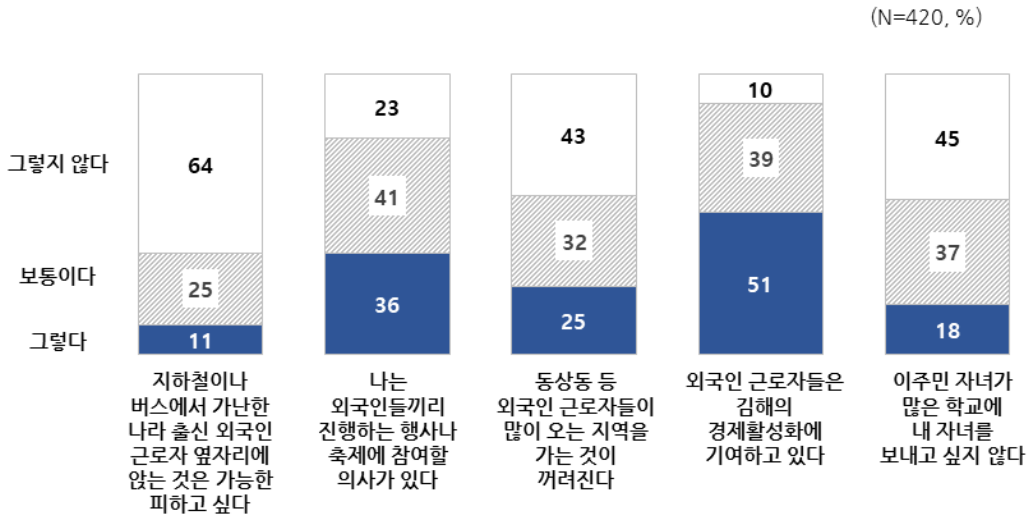
(1) 전체 응답자 기준

□ 김해시민은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의 자녀 등 외국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 김해지역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의 자녀 등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높지 않음. 오히려 김해시민의 약 50%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김해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함.

○ 김해지역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은 높은 편이었으나, 본인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인 부정적 행동과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다만 앞서 확인한 대로 동네이웃으로는 수용하겠으나 가족으로 수용도는 높지 않음.

○ 이는 김해시민이 외국인 근로자와의 접촉이 많고 인종에 대한 편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여전히 가족으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민 등)과의 경험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그림 Ⅳ-34] 김해시민의 인종 갈등에 대한 인식

(2) 세부 집단별 차이

□ 20-30대 여성은 외국인 근로자와 가까이하는 것에 조심스러워하는 모습

○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가난한 나라 출신 외국인 근로자 옆자리에 앉는 것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동상동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오는 지역을 가는 것이 꺼려진다.’는 문항에 대해 20-30대 여성이 가장 높은 비율로 동의함.

○ 하지만 20-30대 여성이 ‘외국인 근로자들은 김해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타 연령×성별만큼이나 높은 동의를 보이고 있음.

○ 이를 통해 볼 때 20-30대 여성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나, 그들을 가까이에서 접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임.

□ **어린 자녀를 키우는 30대 여성은 자신의 자녀를 이주민 자녀가 많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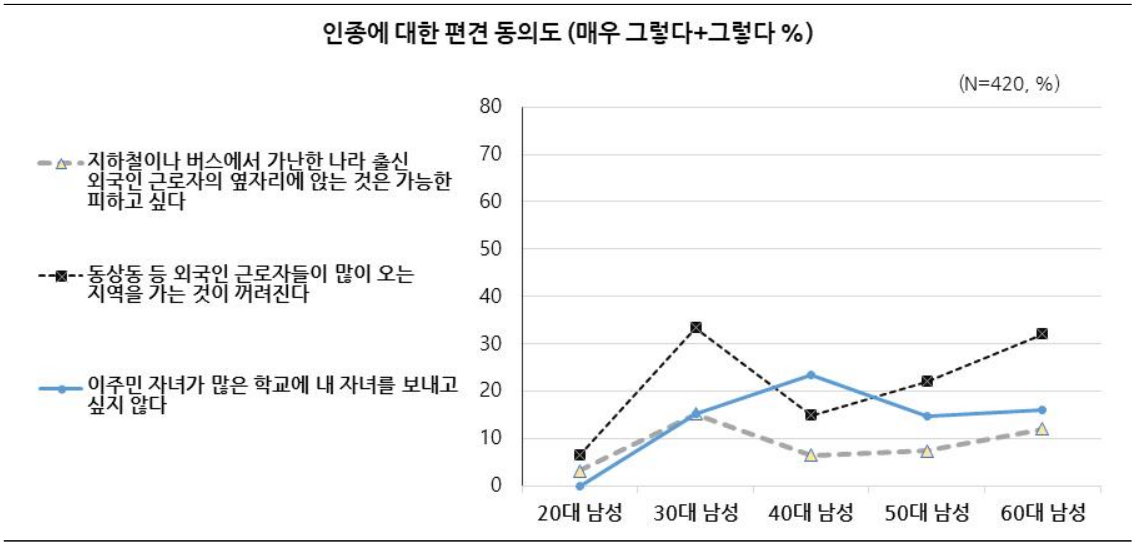
○ ‘이주민 자녀가 많은 학교에 내 자녀를 보내고 싶지 않다.’는 문항에 대한 30대 여성의 동의 비율은 타 연령×성별 집단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50-60대도 10-20대 만큼이나 외국인 행사 또는 축제에 참여할 의사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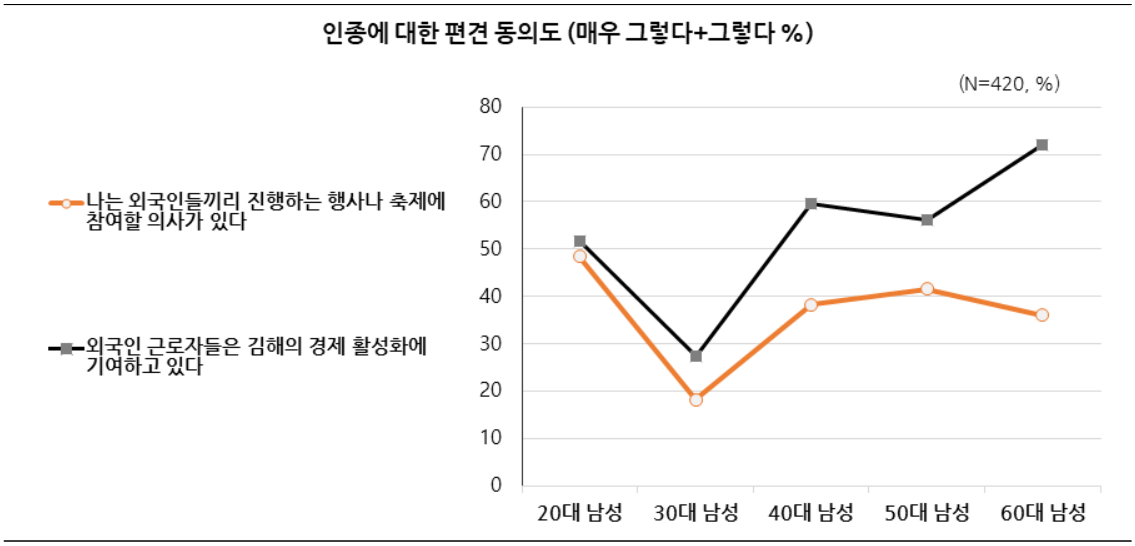
○ ‘나는 외국인들끼리 진행하는 행사나 축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문항에 대해, 10-20대 동의 비율과 50-60대 동의 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가 나타나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외국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강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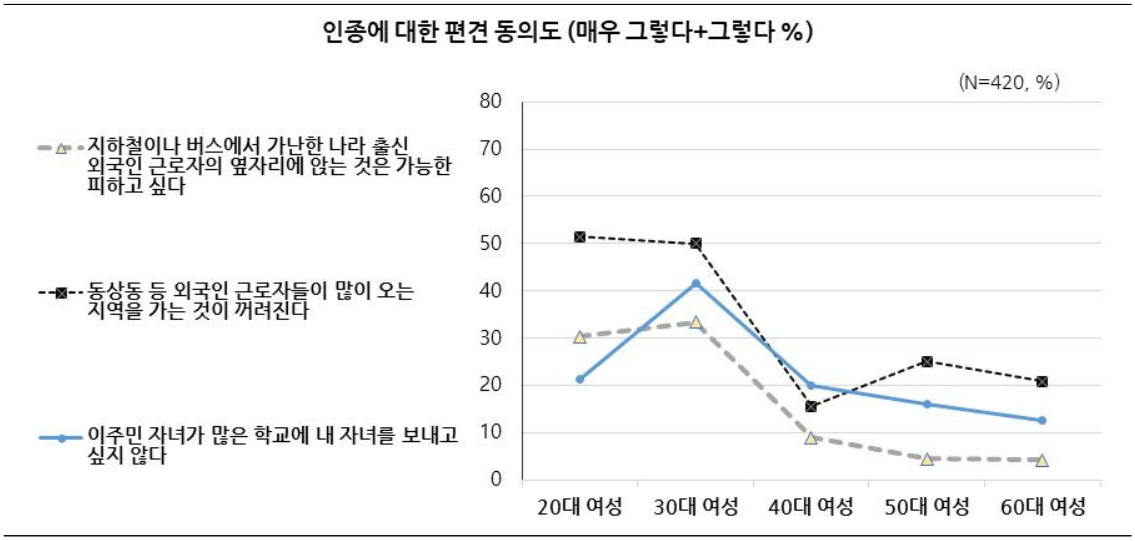
○ 읍면지역 거주자는 외국인 이주민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는 인지하고 있으나 동지역 주민 거주자보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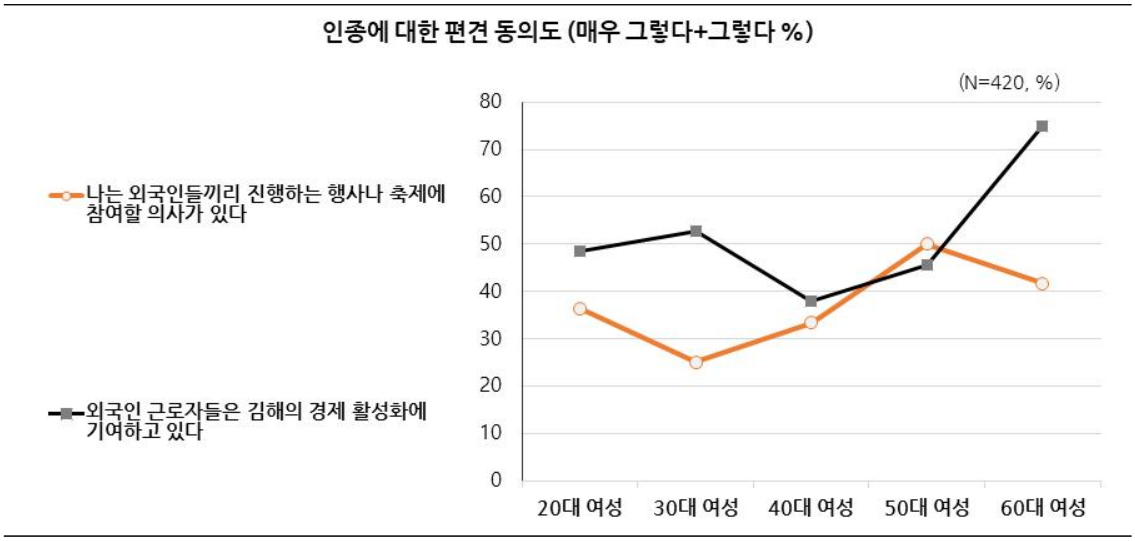
[그림 Ⅳ-35] 인종에 대한 편견 동의도_남성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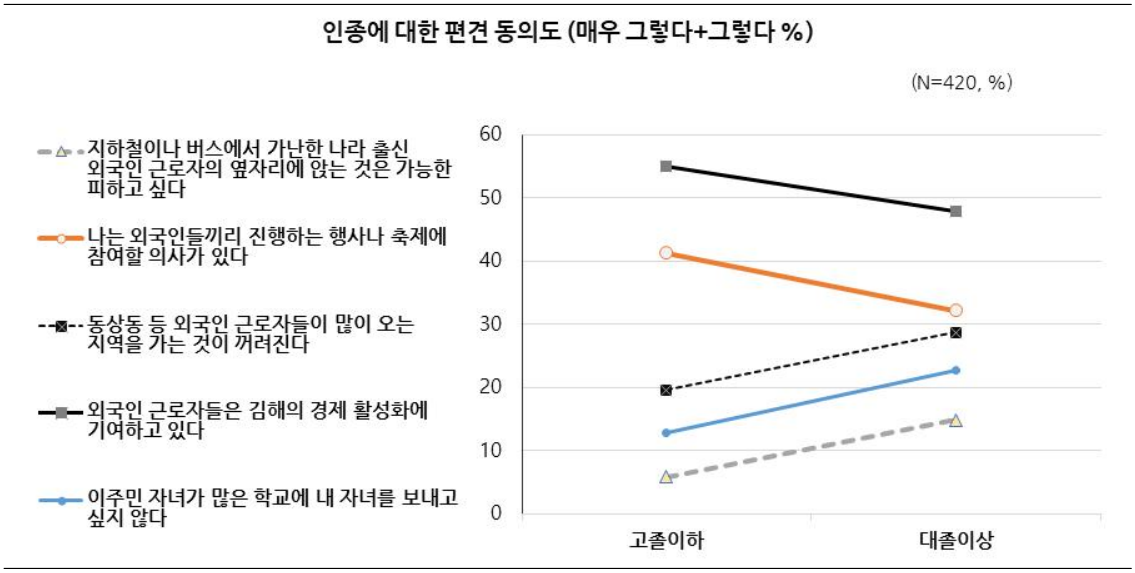
[그림 Ⅳ-36] 인종에 대한 편견 동의도_남성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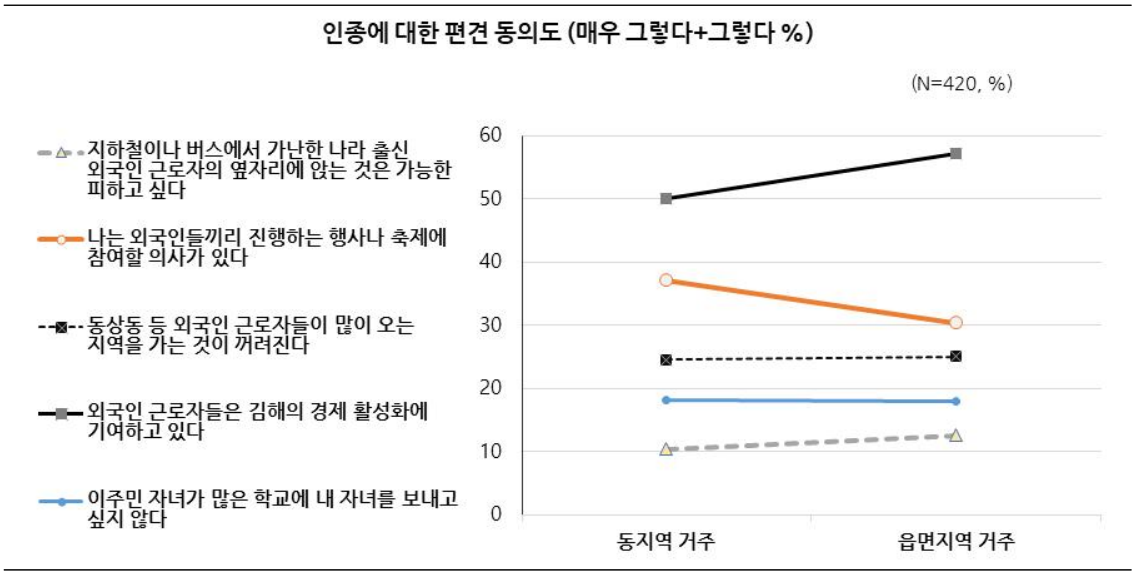
[그림 Ⅳ-37] 인종에 대한 편견 동의도_여성 (1)



[그림 Ⅳ-38] 인종에 대한 편견 동의도_여성 (2)



[그림 Ⅳ-39] 인종에 대한 편견 동의도_학력별



[그림 Ⅳ-40] 인종에 대한 편견 동의도_지역별

5) 지역 갈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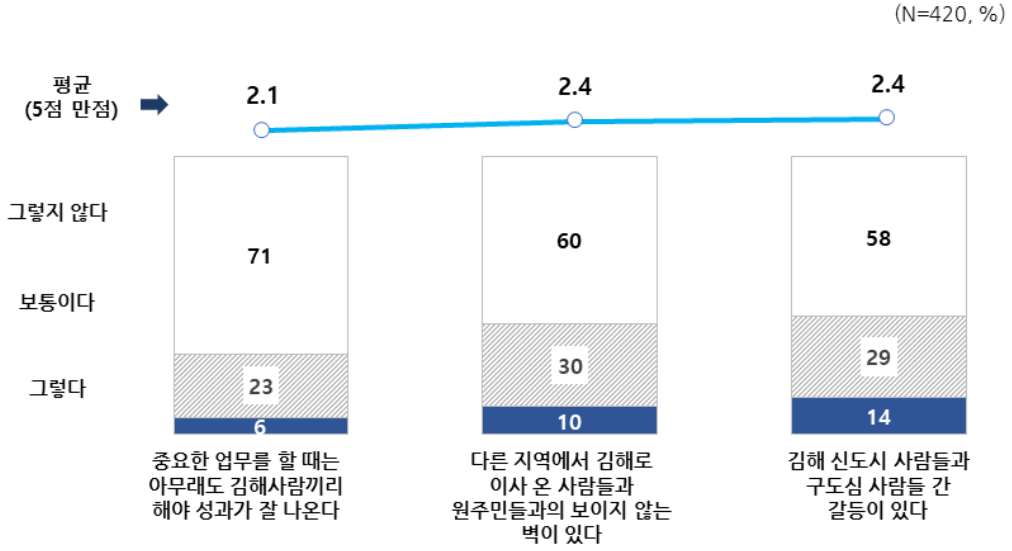
(1) 전체 응답자 기준

□ **김해시민은 업무 수행에서 타 지역에 대한 편견이 매우 낮은 편**

○ 김해 응답자의 약 70%가 '중요한 업무를 할 때는 아무래도 김해사람끼리 해야 성과가 잘 나온다.'는 문항에 동의하지 않음.

□ **김해시민은 지역 내 이주민/원주민 갈등, 신도시/구도심 갈등이 낮다고 인식**

○ 김해 응답자의 과반수가 '다른 지역에서 김해로 이사 온 사람들과 원주민들과의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김해 신도시 사람들과 구도심 사람들 간 갈등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



[그림 Ⅳ-41] 김해시민의 지역 갈등에 대한 인식

(2) 세부 집단별 차이

□ **연령에 따른 차이 : 10-20대는 김해 지역 갈등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못함**

○ 10-20대는 업무 시 타 지역에 대한 편견, 김해지역 내 갈등에 대한 문항 모

두에서 낮은 수준의 동의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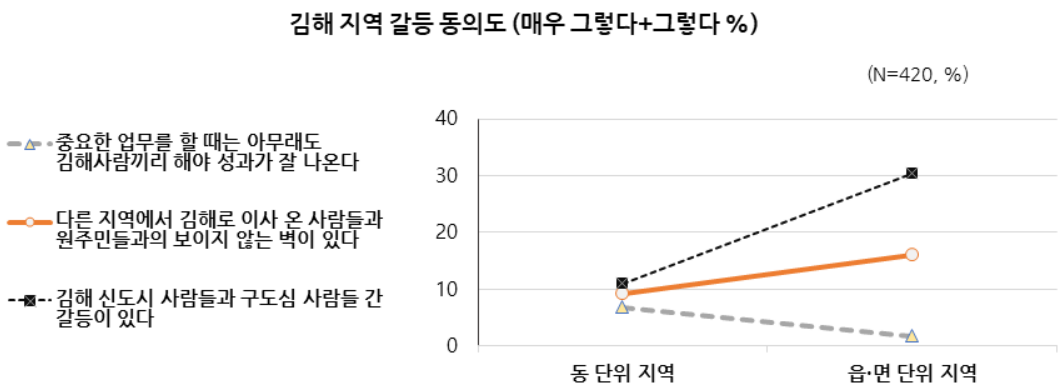
○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업무 시 타 지역에 대한 편견은 상대적으로 더 높음. '중요한 업무를 할 때는 아무래도 김해사람끼리 해야 성과가 잘 나온다.'는 문항에 대한 50-70대 동의 비율은 10-40대 대비 2배가량 높게 나타남.

〈표 Ⅳ-32〉 연령별 김해 지역 갈등에 대한 인식(긍정%)

연령	중요한 업무를 할 때는 아무래도 김해사람끼리 해야 성과가 잘 나온다	다른 지역에서 김해로 이사 온 사람들과 원주민들과의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김해 신도시 사람들과 구도심 사람들 간 갈등이 있다
10대	-	3.8	7.7
20대	4.7	3.1	9.4
30대	4.3	11.6	20.3
40대	3.3	12.0	22.8
50대	10.6	11.8	11.8
60대	8.2	12.2	-
70대	11.4	14.3	11.4

□ **김해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 : 읍·면 지역 거주자가 동 단위 지역 거주자보다 김해지역 내 갈등에 대해 더 크게 인식**

○ 김해지역 내 신도시와 구도심 간 갈등에 대해서는 읍·면 지역 응답자의 동의 비율이 동 지역보다 3배가량 높게 나타남.



[그림 Ⅳ-42] 지역 갈등 동의도_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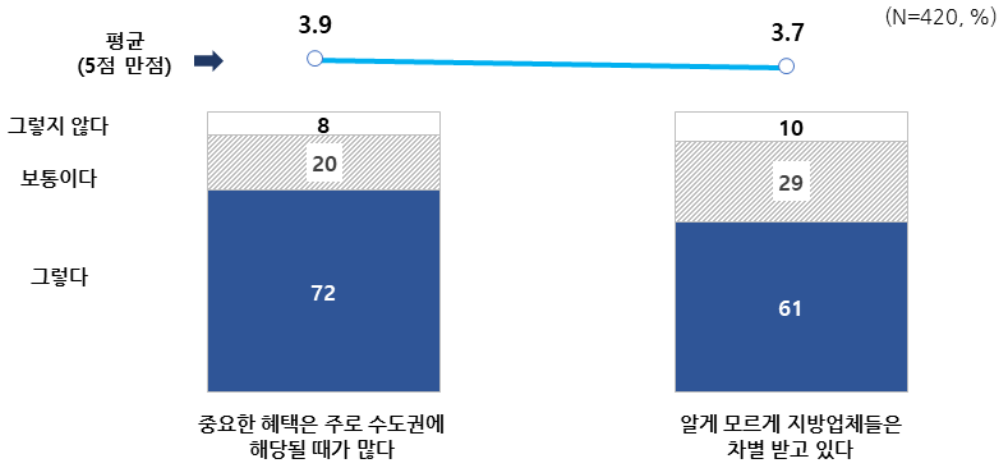
6) 지방 차별에 대한 인식

(1) 전체 응답자 기준

□ 김해시민들은 지방에 대한 차별을 강하게 인식

○ 김해시민의 약 70%가 중요한 혜택이 수도권에 치중되어 있으며, 지방 업체들이 수도권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방 차별에 대한 김해시민들의 동의 정도는 모든 사회갈등 현상 대비 가장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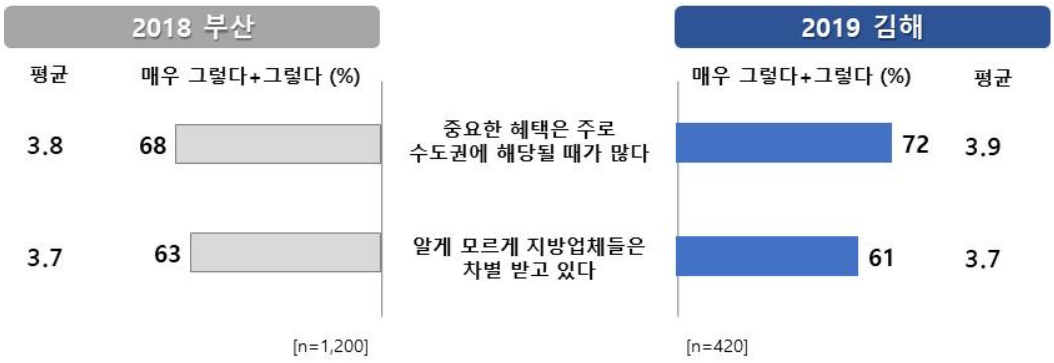
[그림 Ⅳ-43] 김해시민의 지방 차별에 대한 인식

(2) 부산 대비 김해시민의 지방 차별에 대한 인식

□ 김해시민은 부신시민보다 지방 차별에 더 민감

○ ‘중요한 혜택은 주로 수도권에 해당될 때가 많다.’는 문항에 대한 김해시민과 부산시민의 동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 김해시민의 점수가 부산 대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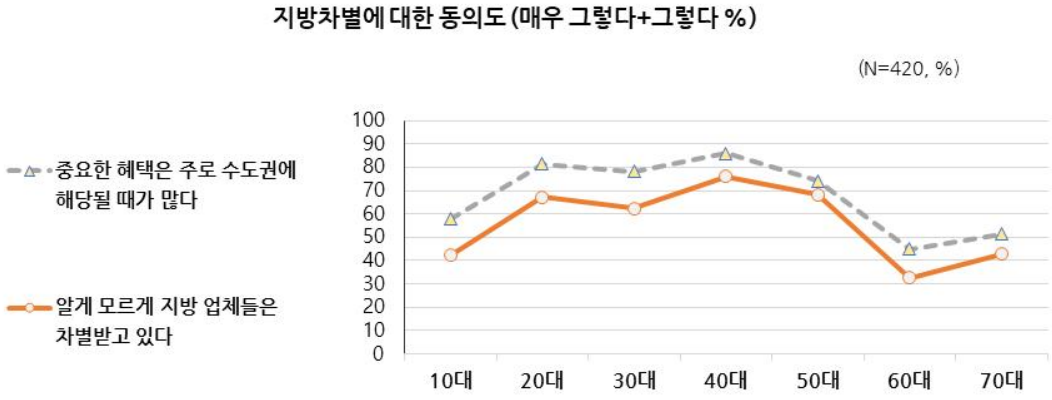
○ 이는 광역시 단위인 부산시에 비해 기초단위인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차별에 대한 민감도를 보여줌.



[그림 Ⅳ-44] 부산 대비 김해시민의 지방 차별에 대한 인식 비교

(3) 세부 집단별 차이

○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지방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인식은 20-50대에서 높게 나타남. 또한 20-50대 중에서도, 특히 여성에게서 이러한 인식이 더욱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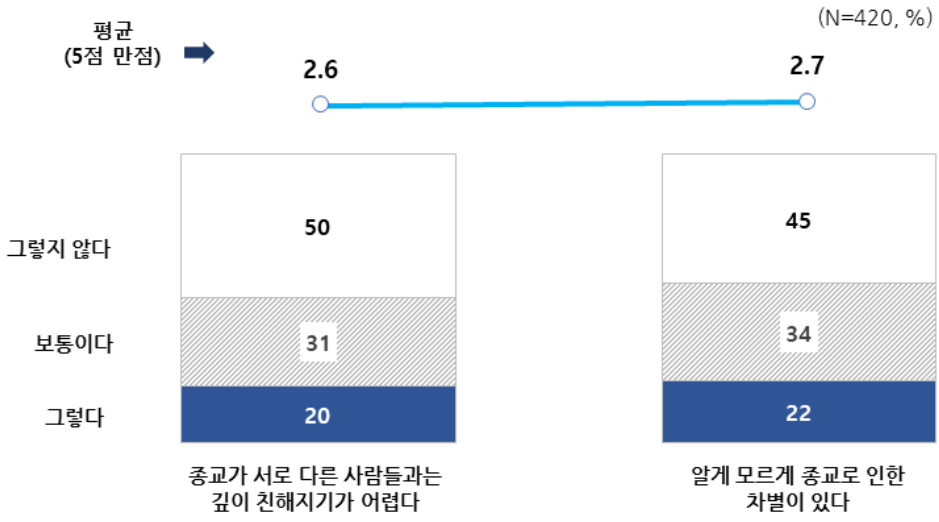
[그림 Ⅳ-45] 지역 차별에 대한 동의도_연령별

〈표 Ⅳ-33〉 성×연령별 지방 차별에 대한 인식(긍정%)

성×연령	중요한 혜택은 주로 수도권에 해당될 때가 많다 (긍정 %)	알게 모르게 지방업체들은 차별받고 있다 (긍정 %)
20대 남성	74.1	68.2
20대 여성	44.9	32.7
30대 남성	51.4	42.9
30대 여성	68.6	58.1
40대 남성	75.7	63.8
40대 여성	71.0	54.8
50대 남성	90.9	78.8
50대 여성	72.7	63.6
60대 남성	83.3	61.1
60대 여성	80.9	72.3

7) 종교 갈등에 대한 인식

(1) 전체 응답자 기준



[그림 Ⅳ-46] 김해시민의 종교 갈등에 대한 인식

(2) 세부 집단별 차이

□ 김해지역 내 종교로 인한 갈등과 차별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

○ 10대는 종교로 인한 갈등과 차별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10대 중에서는 '종교가 서로 다른 사람들과는 깊이 친해지기 어렵다.', '알게 모르게 종교로 인한 차별이 있다.'는 문항에 동의한 응답자가 단 한 명도 없었음.

□ 20대/30대 여성이 20/30대 남성에 비해 종교 갈등에 민감

○ 종교가 다르다는 점에서 친해지기 어렵다는 응답에서 20대 여성은 20대 남성의 9.7%에 비해 1.7배 높은 21.2%가 동의했음.

○ 20대를 제외한 타 연령대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음. 하지만 20대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20대 남성에 비해 20대 여성이 종교로 인한 갈등과 차별을 더 높게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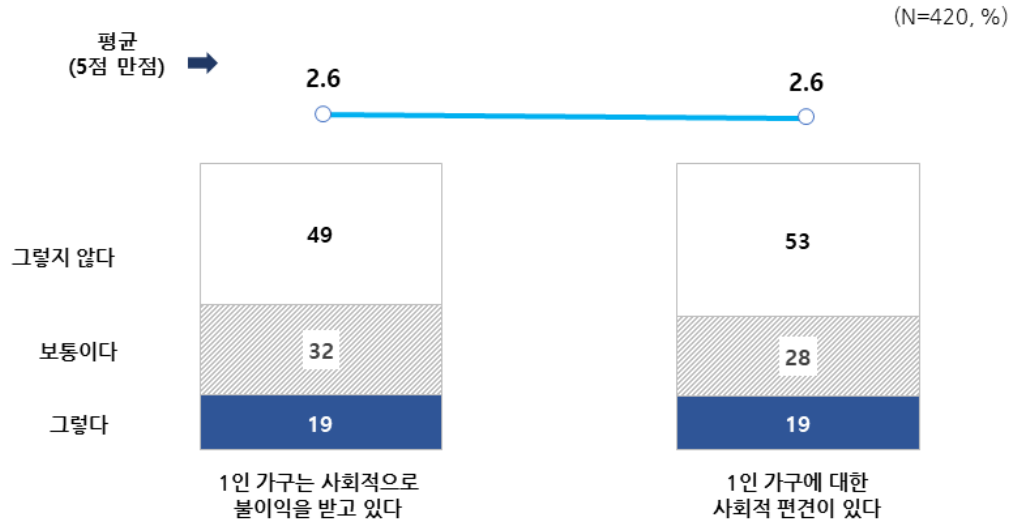
〈표 Ⅳ-34〉 성×연령별 종교 갈등에 대한 인식(긍정%)

성×연령	종교가 서로 다른 사람들과는 깊이 친해지기가 어렵다	알게 모르게 종교로 인한 차별이 있다
20대 남성	9.7	12.9
20대 여성	21.2	27.3
30대 남성	24.2	24.2
30대 여성	30.6	27.8
40대 남성	21.3	27.7
40대 여성	20.0	24.4
50대 남성	22.0	24.4
50대 여성	20.5	18.2
60대 남성	24.0	24.0
60대 여성	25.0	29.2

8) 1인 가구 차별에 대한 인식

(1) 전체 응답자 기준

○ 김해지역 내 1인 가구에 대한 편견과 불이익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임.



[그림 Ⅳ-47] 김해시민의 1인 가구 차별에 대한 인식

(2) 세부 집단별 차이

□ **여성은 젊을수록, 남성은 40대가 최고점으로 1인가구 불평등에 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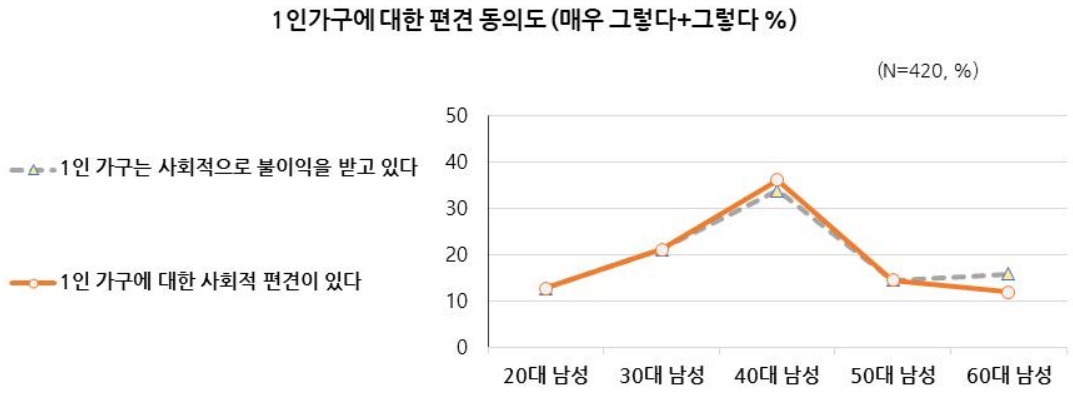
○ 전 연령대에서 모두 높지 않은 수준을 보이나,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의 1인 가구에 대한 차별 인식은 타 연령대 대비 높은 편임.

○ '1인 가구는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다.'는 문항에 대한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의 동의 비율은 타 연령×성별 대비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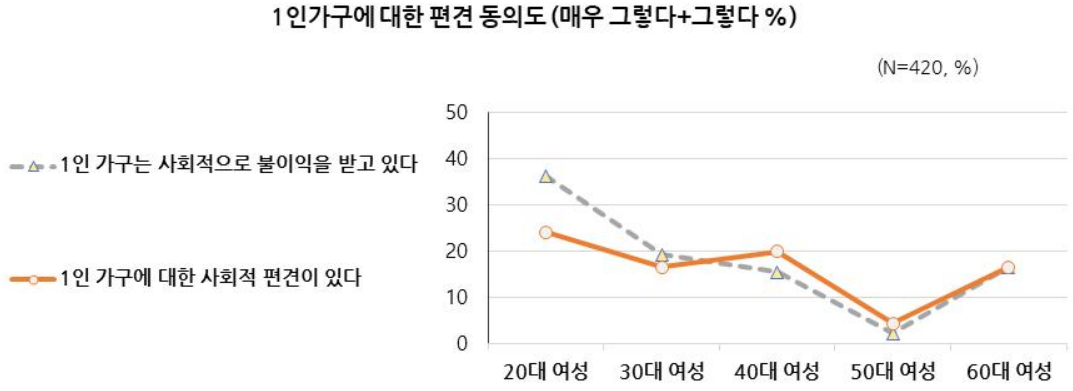
□ **1인 가구 편견과 불이익에 대한 인식은 읍·면 단위 지역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

○ 읍·면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1인 가구는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는 동 단위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 Ⅳ-48] 1인 가구에 대한 편견 동의도_남성



[그림 Ⅳ-49] 1인 가구에 대한 편견 동의도_여성

9) 사회갈등 현상 개선 필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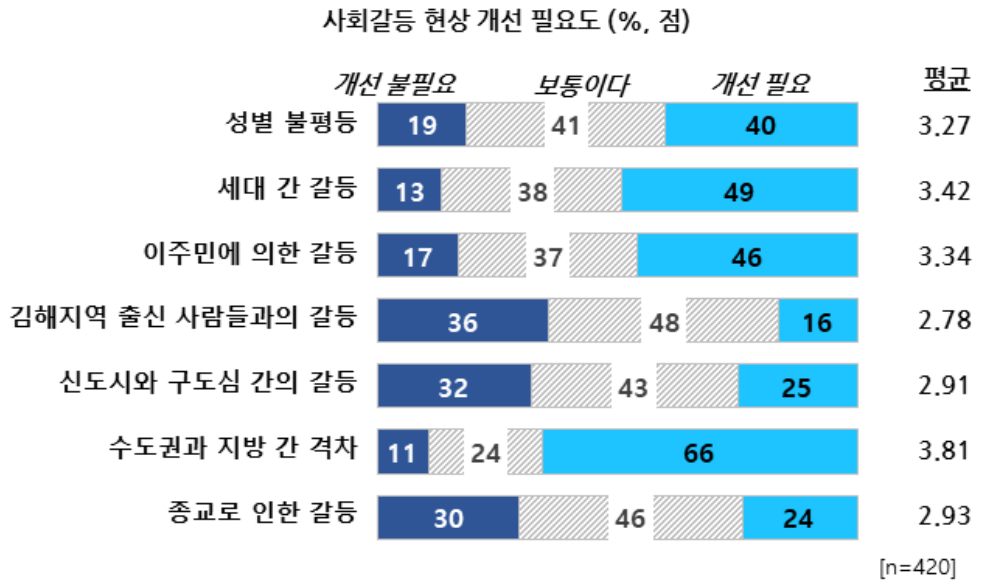
(1) 종합 결과

□ 지방격차 〉 세대갈등 〉 이주민 갈등 순으로 개선 필요하다 인식

○ 김해시민의 66%가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김해지역 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또한 개선 필요 정도에 대한 평균 점수도 4.1점으로, 타 사회갈등 현상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지방 격차 다음으로 김해지역에서 개선이 필요한 현상은 '세대 간 갈등'

○ 김해 응답자의 약 50%가 김해지역 내에서 세대 간 갈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특히 세대 간 갈등에 대한 개선 필요 정도는 이주민에 의한 갈등이나 성별 불평등에 대한 개선 필요 정도보다도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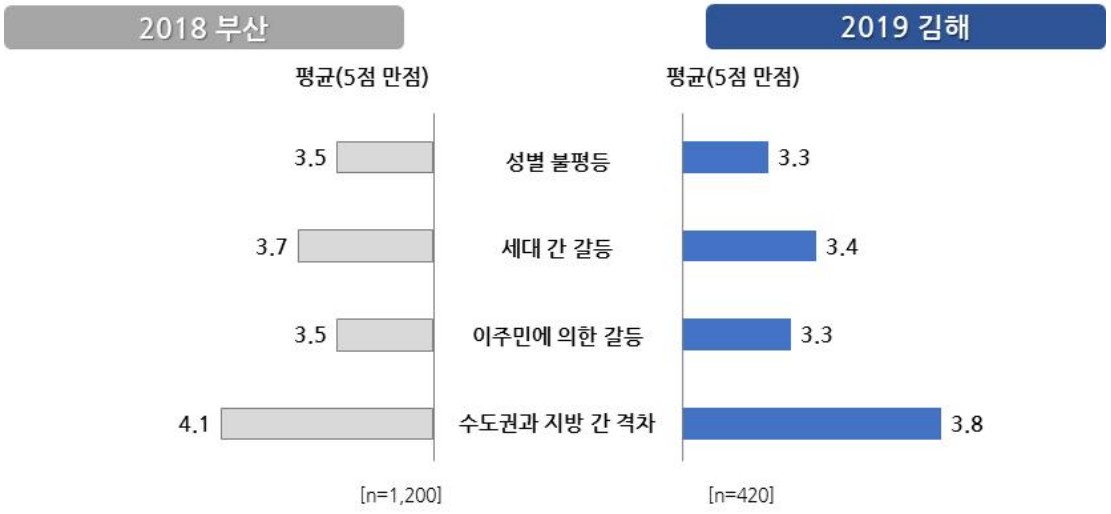
[그림 Ⅳ-50] 김해시민의 사회갈등 현상 개선 필요 인식

(2) 부산 대비 김해지역 사회갈등 현성 개선 필요도 비교

□ 김해시민들은 부산시민보다 사회갈등 현상의 개선 필요 정도를 낮게 인식함.

○ 김해와 부산 조사의 공통된 문항이었던, 성별 불평등, 세대 간 갈등, 이주민에 의한 갈등,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개선 필요 정도 모두에서 김해시민의 개선 필요도가 부산 대비 유의하게 낮게 나타남.

○ 김해시민이 부산시민에 비해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사회갈등 현상 개선에 대한 민감도가 부산 대비 낮다는 점은 김해시민의 문화다양성 수준에 대한 기대점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음.



[그림 Ⅳ-51] 부산 대비 김해지역의 사회갈등 현상 개선 필요도 비교

(3) 세부 집단별 차이

□ **연령에 따른 차이 :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갈등 현상에 대한 개선 필요 정도 높게 인식**

○ 모든 사회갈등 현상에 대해, 20-40대의 개선 필요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50-70대 대비 높은 양상을 보임.

○ 단, 20대의 경우 김해지역 출신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신도시/구도심 간 갈등

등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개선 필요도를 낮게 인식함.

□ **성×연령에 따른 차이 : 20~40대 여성이 사회갈등 현상의 개선 필요성을 높게 인식**

○ 20/30/40대 여성은 같은 연령대의 남성에 비해 김해지역의 사회갈등 현상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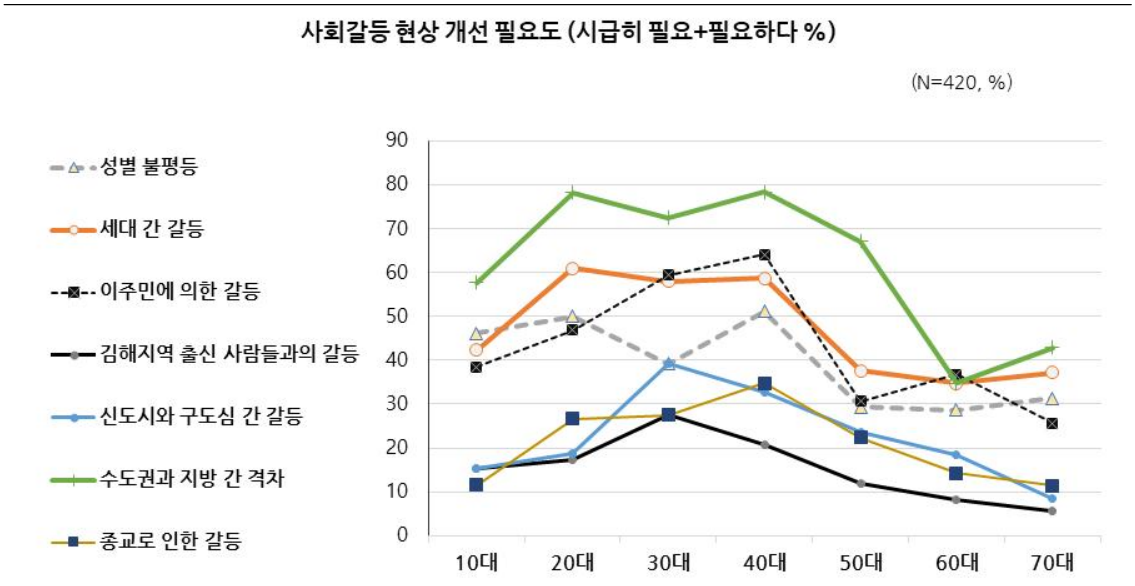
○ 특히 20대 여성은 모든 연령대/성별에서 개선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세대 간 갈등의 개선 필요성은 73%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20대 여성이 체감하는 세대 간 갈등의 심각도가 다른 연령대/성별에 비해 높다 할 수 있음.

□ **김해 거주 특성에 따른 차이 : 읍·면 단위 거주자, 10년 미만 거주자가 지역에서 사회갈등 현상 개선의 필요성에 더욱 민감**

○ 모든 사회갈등 현상에 대해, 읍·면 지역 거주 응답자가 동 단위 지역 응답자보다 더욱 높은 개선 필요 인식을 보임.

○ 또한 최근 10년 내에 김해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응답자 또한 10년 이상 거주한 김해시민에 비해 사회갈등현상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이 높음.

○ 20년 이상 김해에 거주한 경우 모든 사회갈등 현상 개선 필요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개선 필요도를 응답하고 있어, 오랜 시간 김해에 거주한 경우 사회현상 개선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음.



[그림 Ⅳ-52] 사회갈등 개선 필요도

〈표 Ⅳ-35〉 연령별 사회갈등 현상 개선 필요도(시급히 개선 필요+개선 필요%)

연령	성별 불평등	세대 간 갈등	이주민에 의한 갈등	김해지역 출신 사람들과의 갈등	신도시와 구도심 간 갈등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종교로 인한 갈등
10대	46.2	42.3	38.5	15.4	15.4	57.7	11.5
20대	50.0	60.9	46.9	17.2	18.8	78.1	26.6
30대	39.1	58.0	59.4	27.5	39.1	72.5	27.5
40대	51.1	58.7	64.1	20.7	32.6	78.3	34.8
50대	29.4	37.6	30.6	11.8	23.5	67.1	22.4
60대	28.6	34.7	36.7	8.2	18.4	34.7	14.3
70대	31.4	37.1	25.7	5.7	8.6	42.9	11.4

〈표 Ⅳ-36〉 성×연령별 사회갈등 현상 개선 필요도(시급히 개선 필요+개선 필요%)

성×연령	성별 불평등	세대 간 갈등	이주민에 의한 갈등	김해지역 출신 사람들과의 갈등	신도시와 구도심 간 갈등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종교로 인한 갈등
20대 남성	41.9	48.4	32.3	3.2	9.7	77.4	29.0
20대 여성	57.6	72.7	60.6	30.3	27.3	78.8	24.2
30대 남성	33.3	48.5	48.5	21.2	33.3	66.7	27.3
30대 여성	44.4	66.7	69.4	33.3	44.4	77.8	27.8
40대 남성	48.9	59.6	72.3	21.3	25.5	78.7	31.9
40대 여성	53.3	57.8	55.6	20.0	40.0	77.8	37.8
50대 남성	26.8	43.9	36.6	14.6	26.8	68.3	31.7
50대 여성	31.8	31.8	25.0	9.1	20.5	65.9	13.6
60대 남성	36.0	40.0	40.0	8.0	12.0	36.0	16.0
60대 여성	20.8	29.2	33.3	8.3	25.0	33.3	12.5

〈표 Ⅳ-37〉 김해 거주 지역 별 사회갈등 현상 개선 필요도(시급히 개선 필요+개선 필요%)

거주지역	성별 불평등	세대 간 갈등	이주민에 의한 갈등	김해지역 출신 사람들과의 갈등	신도시와 구도심 간 갈등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종교로 인한 갈등
동 지역	38.2	47.5	44.5	15.9	23.9	64.0	21.7
읍·면 지역	51.8	58.9	55.4	19.6	32.1	76.8	39.3

〈표 Ⅳ-38〉 김해 거주기간별 사회갈등 현상 개선 필요도(시급히 개선 필요+개선 필요%)

김해 거주기간	성별 불평등	세대 간 갈등	이주민에 의한 갈등	김해지역 출신 사람들과의 갈등	신도시와 구도심 간 갈등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종교로 인한 갈등
10년미만	42.1	60.0	50.5	14.7	33.7	71.6	29.5
10~19년	40.3	47.4	51.3	18.2	27.9	71.4	25.3
20년 이상	38.6	44.4	38.6	15.8	17.5	57.3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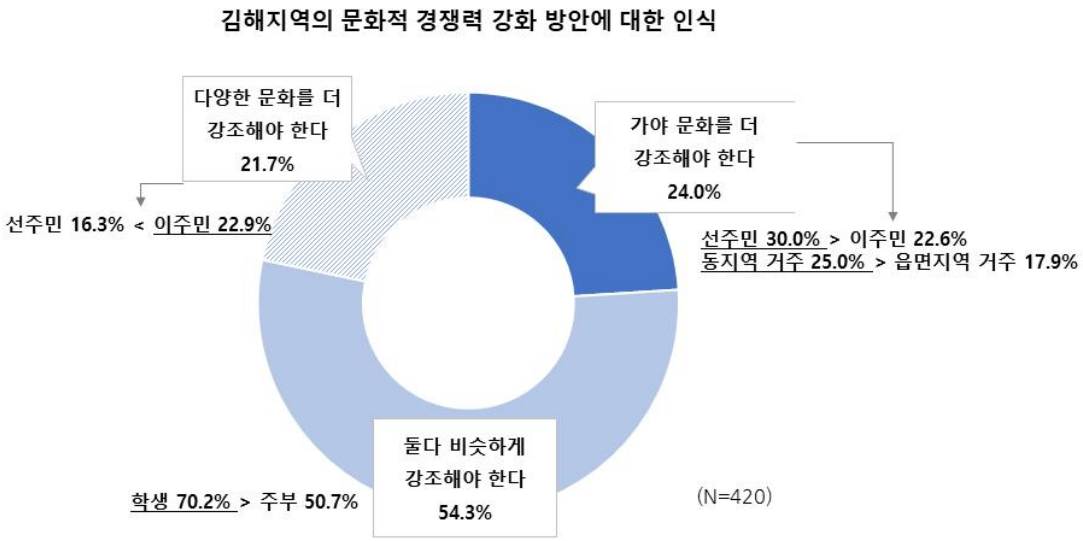
5. 김해지역 문화적 경쟁력 강화 방안

(1) 전체 응답자 기준

□ **김해시민의 76%는 가야문화 뿐만 아니라 문화다양성이 김해의 문화적 경쟁력 강화도 도움이 된다고 인식**

○ 김해시민의 과반수가 김해지역의 문화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김해 고유의 가야문화와 그 외의 다양한 문화를 비슷하게 강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 또한 22%는 가야문화보다도 다양한 문화를 강조하는 것이 김해 문화적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문화다양성은 김해시민에게 김해의 문화적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림 Ⅳ-53] 김해 문화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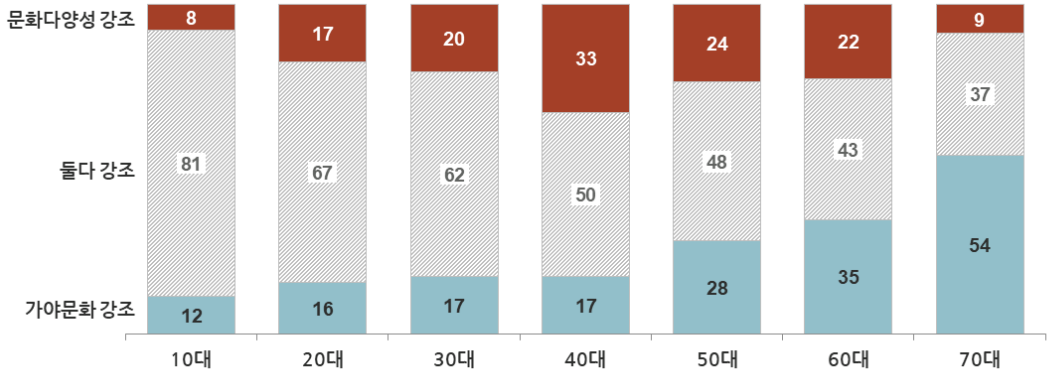
(2) 세부 집단별 차이

□ **김해 10~40대는 가야문화와 다양한 문화를 동시에 강조해야 김해 문화적 경쟁력**

이 있을 것으로 인식

○ 김해 고유의 가야문화를 강조해야 한다는 인식은 50-70대에서 높게 나타남. 반면 가야문화보다 다양한 문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은 40대, 특히 40대 남성에게서 높은 비율로 나타남.

○ 10-30대의 젊은 세대는 가야문화와 다양한 문화를 비슷하게 강조해야 한다는 중도 입장을 높게 가지고 있음.



[그림 Ⅳ-54] 김해 문화적 경쟁력 강화 방안_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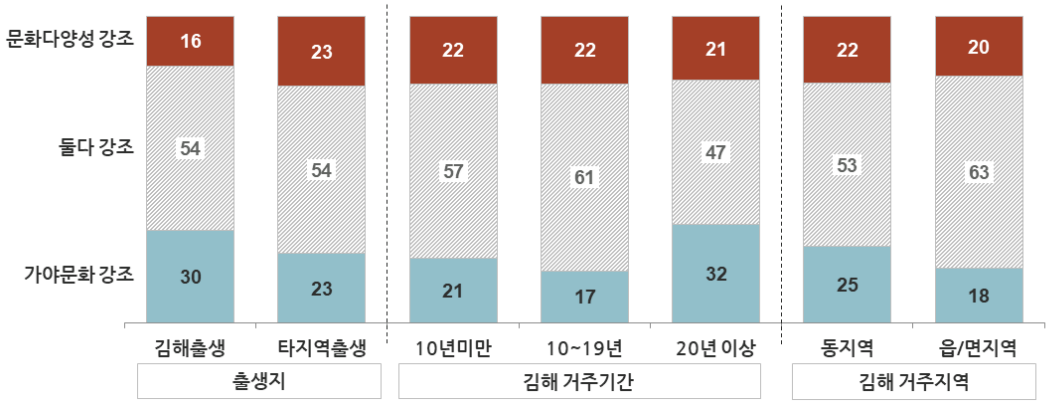
□ 타 지역출생자, 읍면 거주자가 문화다양성이 김해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인식

○ 김해에서 출생한 자와 김해로 이주해 온 사람의 김해 문화적 경쟁력의 강화방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김해 출생자의 30%가 가야문화를 강조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에 비해 타 지역출생자는 23%가 가야문화를 강조해야 한다고 응답함.

○ 또한 읍면 지역 거주자가 동 지역 거주자에 비해 문화다양성을 김해의 경쟁력으로 꼽은 비율이 더 높은데, 이는 최근 읍면 지역이 빠르게 신도시로 전환되고 있고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 공단이 형성되어 외부 이주 인구의 유입

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유추됨.

○ 반면 김해 거주기간이 20년 이상 된 경우에는 오히려 가야문화와 문화다양성을 동시에 강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있음. 오랜 기간 거주자의 경우 오히려 가야문화라는 역사적 자원에 주목할 수 있으나, 문화다양성 또한 포괄하는 형태의 도시의 문화경쟁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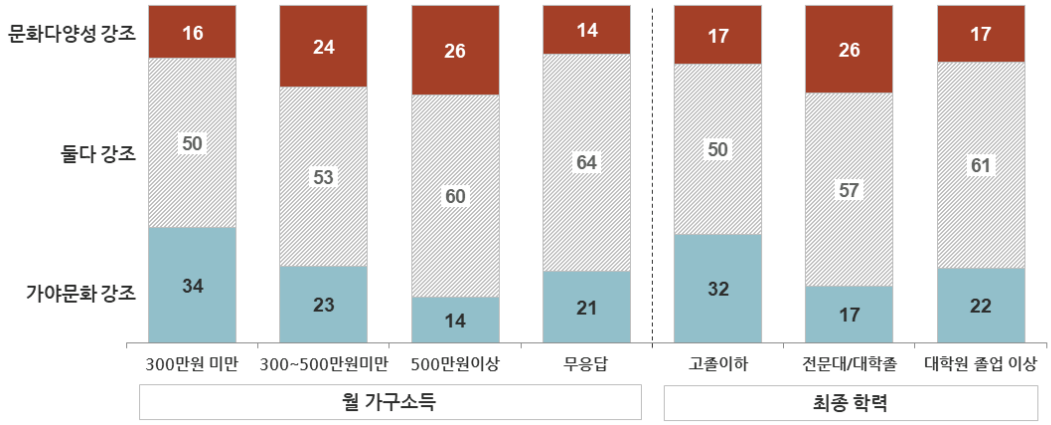


[그림 Ⅳ-56] 김해 문화적 경쟁력 강화 방안_출생지, 거주기간, 거주지역

□ **고학력, 고소득자가 동의하는 김해 문화경쟁력으로서의 문화다양성**

○ 3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인 김해시민이 가야 문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경쟁력에 동의한 반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문화다양성과 가야 문화를 동시에 강조하거나 문화다양성을 더욱 강조한 안에 대한 동의도가 더 높음.

○ 학력 수준 또한 고소득자와 마찬가지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고학력일수록 문화다양성을 도시 경쟁력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다만, 전문대졸/대졸 학력의 김해시민은 문화다양성과 가야 문화를 동시에 강조하기를 희망함.



[그림 Ⅳ-58] 김해 문화적 경쟁력 강화 방안_월 소득 및 학력

Ⅴ. 요약 및 제언

1. 김해시 특징 파악
2. 김해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개요
3. 김해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주요 내용
4. 김해의 문화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언

V 요약 및 제언

1. 김해시 특징 파악

○ 김해는 전국 및 인근도시보다 인구증가율이 높고 고령자비율이 낮은 비교적 젊고 활기찬 도시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김해에서 태어난 10~20대 연령층이 학업과 취업 등의 이유로 김해를 떠나고 인근 대도시와 밀접한 지역에 30~40대 연령층이 유입되는 베드타운, 에듀타운 특징을 보임.

○ 부산보다는 높으나 전국, 경남 대비 김해의 경제적 상황은 낮은 편임. 특히 청년 고용률은 낮고, 영세한 제조업체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짐.

○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김해 외국인은 동 주변의 읍면지역의 산업단지에서 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말에는 동상동 등 동중심의 문화생활을 하는 특징을 보임.

○ 문화적 여건 특징을 보면 김해는 전국이나 경남 대비 문화적 수준 높음.

2. 김해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개요

○ 본 연구는 김해시민의 문화다양성 여건 현황과 인식 수준을 파악이하고 이를 토대로 김해시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진행됨.

○ 이를 위해 먼저 크게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및 조사 범위를 위한 선행연구 분석과 통계자료 등 문헌조사를 진행함.

○ 또한 3회의 전문가 조사(FGI)와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설문조사는 총 42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최소 1년 이상 김해에 거주한 15~79세 시민을 성, 연령, 지역 비율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였음.

3. 김해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주요 내용

□ **문화 다양성 인식 : 전반적으로 전국/부산 대비 높으나, 소수집단 수용도는 전국/부산과 유사하며 높지 않은 수준임.**

○ 전반적으로 김해는 전국 및 부산보다 문화다양성(인정, 표현, 차별받지 않음, 가치 확산 등)이 긍정적인 편이라 인식하고 있음. 특히 김해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차별받지 않는 곳이라고 응답하였음.

○ 특히 학력이 낮고, 연령이 높고, 해외 경험이 적은 응답자 일수록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 그러나 긍정 응답률은 대부분 절반 이하 정도 이므로 향후 문화다양성에 대한 민감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음.

○ 출생지와 정주인식에 따라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에 차이를 보임. 즉, 김해에서 태어나고 본인을 김해사람으로 인식하는 층과 타 지역 출생이면서 김해사람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층 간에는 문화다양성 인식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타 지역 출생자는 김해의 문화다양성에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 **소수집단 인지 및 접촉 : 장애인 〉 외국인 근로자 접촉 및 활동 경험 높음**

○ 전통적인 소외집단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등)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나 정신적 장애인, 성소수자 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20~50% 정도가 차별받는 소수집단이라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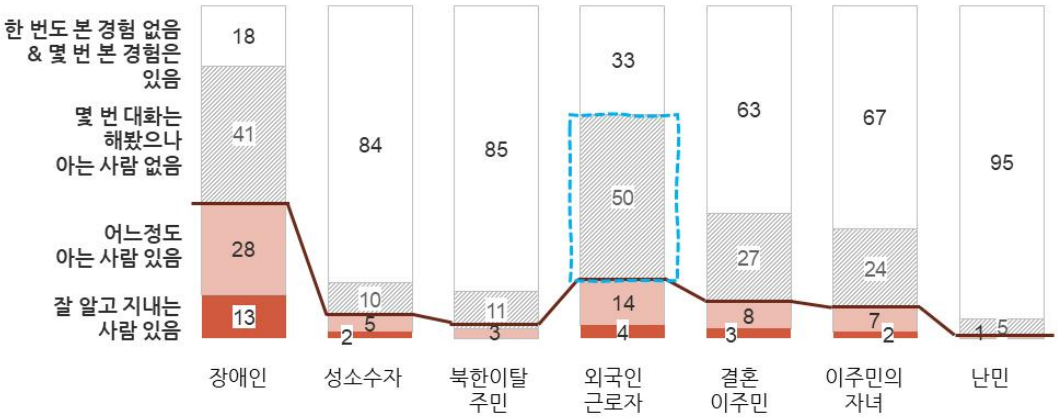
○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노출되는 난민이나 사할린 이주동포 등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은 편임.

○ 소수집단 접촉 경험은 장애인(41%)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18%) 순임. 이와 맞물려 관련 활동 경험도 장애인(30%), 다문화(25%) 순임.

○ 김해는 부산지역보다 외국인 근로자 접촉 경험이 높으며 특히 읍면지역 거주자의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주민 접촉 경험률은 더 높으나 관련 활동은 동지역보다 낮은 편임. 즉 생활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접할 빈도는 높으나 그들에 대한 관

심은 높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소수집단이라 응답된 비율이 비교적 높았던 성소수자는 주로 10대~20대 학생층에서 경험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소수집단 수용도 : 전국 및 부산 대비 가족으로서의 수용도는 낮거나 비슷한 수준. 외국인 근로자 경험률 대비 수용도는 높지 않음.**

○ 전국 및 부산 대비, ‘동네이웃’으로서의 수용도는 상대적으로 높으나, ‘가족’으로서의 수용도는 낮거나 비슷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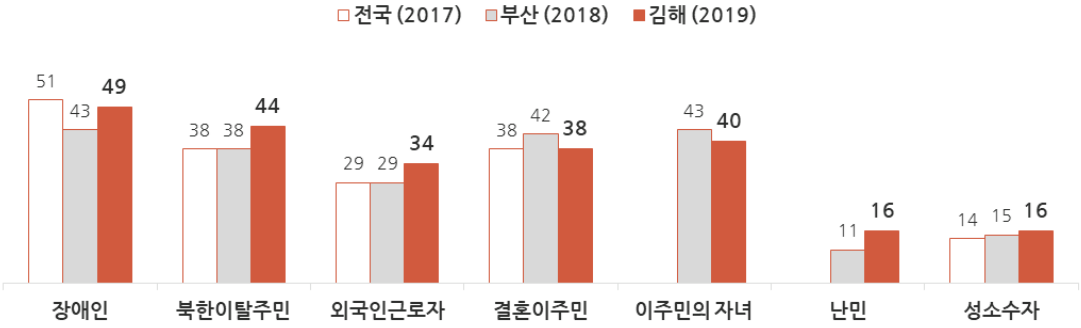
○ 김해는 외국인 이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이나,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주민에 대한 수용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음.

○ 즉, 앞서 외국인 노동자 접촉경험, 활동경험은 다른 지역 대비 높지만 이를 우리 사회 공동체, 즉 정서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인식은 기대대비 높지 않음.

○ 오히려 성소수자나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에 대한 수용도가 다른 지역 대비 높음.

○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해외경험이 많을수록, 관련 활동 경험 및 접촉경험이 있을수록 수용도는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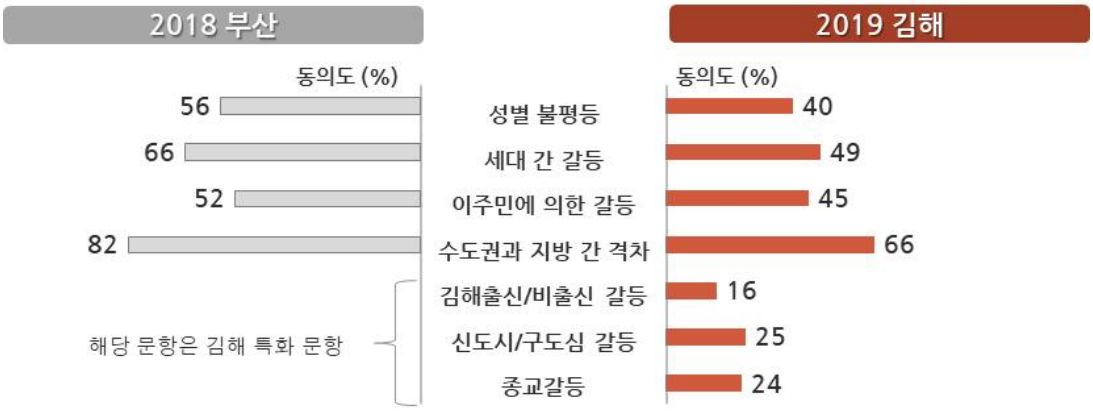
소수집단 가족으로 수용도 (동의 %)



□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 수도권 지방 간 격차 〉 세대 간 갈등 〉 이주민 갈등 순

○ 전반적으로 김해지역 내 사회갈등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짐. 제시한 사회갈등 중 가장 큰 것은 '지방 차별'임(응답자의 66%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 다음은 세대 간 갈등, 이주민에 의한 갈등 순임.

○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 거주자들이 사회갈등 개선에 대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성별 편견 : 남성은 전반적으로 여성의 성역할 인식에 대해 보수적이었으며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음.

○ 세대 간 갈등 :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인식은 낮은 편임. 오히려 노인 세대 스스로 노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노인은 사회의 짐이다). 20대 여성은 김해에서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에 동감하는 경향을 보임.

○ 인종에 대한 편견 : 전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는 않으며 김해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은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2~30대 여성은 외국인 근로자가가 많은 곳에 가기를 꺼리는 등 안전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또한 접촉경험은 읍면지역이 높았음에도 이들에 대한 수용은 동지역 대비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지역 갈등 : 김해지역 내에서 선주민, 이주민간의 갈등은 심하지 않은 편임. 이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이주민이기 때문임. 선주민, 이주민간의 갈등에 대한 인식은 읍면지역 거주자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남.

○ 지방 차별 : 젊은 층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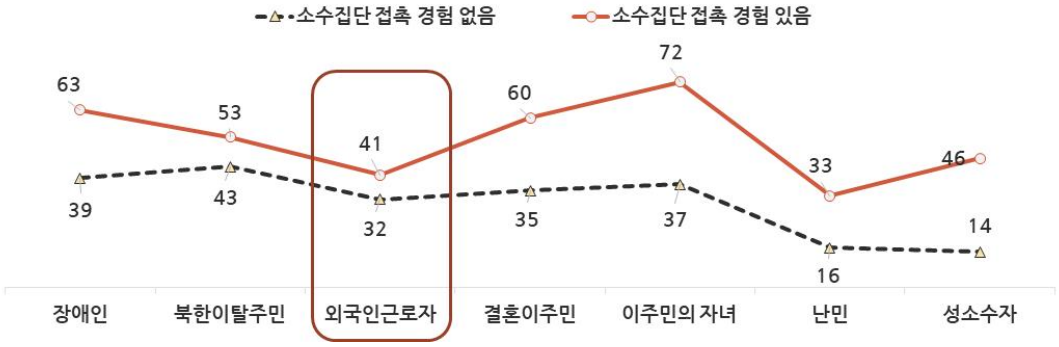
4. 김해의 문화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언

□ 단순한 접촉이 아닌 질 높은 경험으로의 변화 필요

○ 인구 당 외국인 수가 많은 지역적 특징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 차별에 대한 민감도, 가족으로서의 수용도가 높지 않음. 일반적으로 소수집단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경험이 없는 사람들 간에는 수용도 측면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김해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응답 차이가 크지 않은 편임. 즉 외국인들을 주변에서 보고 알고 지내더라도 그들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접촉의 경험을 지금과는 다른 질적인 경험으로 변화시켜가는 노력이 필요함.

소수집단 가족으로 수용도 (동의 %)



□ 문화다양성 민감도를 끌어올리는 시민사회로서의 연습 필요

○ 전반적으로 소수집단 차별 개선도나 사회갈등 현상의 개선 필요도 모두 낮은 현상이 나타남. 이러한 현상은 김해의 문화다양성 실태가 긍정적 수준이라고 해석하기보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예를 들어 소수집단 접촉 경험이 적거나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은 층에서 문화다양성 수준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겪어보지 않았고 살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다양성 민감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피상적인 문항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보이지만, 구체적 문항에서는 특정 세대의 반응들이 다양하게 나타남. 예를 들어 젊은 세대의 사회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응답에는 20대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인이 김해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에는 고용문제에 민감한 30대에서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각 세대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참여기회가 적고 문화다양성 감수성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도시라는 특징이 있으므로 김해 시민들이 지금보다는 더 활발하게 모이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와 연습이 필요한 과도기라 할 수 있음.

□ **10~20대 Vs. 이외 연령대 간 인식 차이가 큼. 10년 후의 세대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전략과 이들의 사회적 표현기회 확대 필요**

○ 현재 김해 10~20대는 3~40대가 김해로 유입되면서 출생한 세대로서 이전과는 다른 문화다양성 교육환경에 노출된 경험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기성세대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특정 소수집단(성소수자, 난민 등)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즉 이들은 기존 세대들과 다른 사고방식과 경험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입하면서 김해의 세대갈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임. 이들은 다른 갈등보다 '세대 간 갈등'에 더 민감한 특징을 보임.

○ 이들은 김해 사회가 젊은 층이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만한 기회가 많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와 보이지 않는 벽을 느끼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벽의 실체가 무엇인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해야 함.

□ **30대의 특성 이해 필요**

○ 30대 남성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 활성화 기여에 대해서도 연령대 중 가장 부정적이며, 다문화 축제나 행사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도 가장 낮았음.

○ 10~20대가 사회갈등 중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다음으로 세대갈등이나 성별불평등을 두 번째로 언급한 것과 비교해서 30대는 '이주민에 의한 갈등'을 두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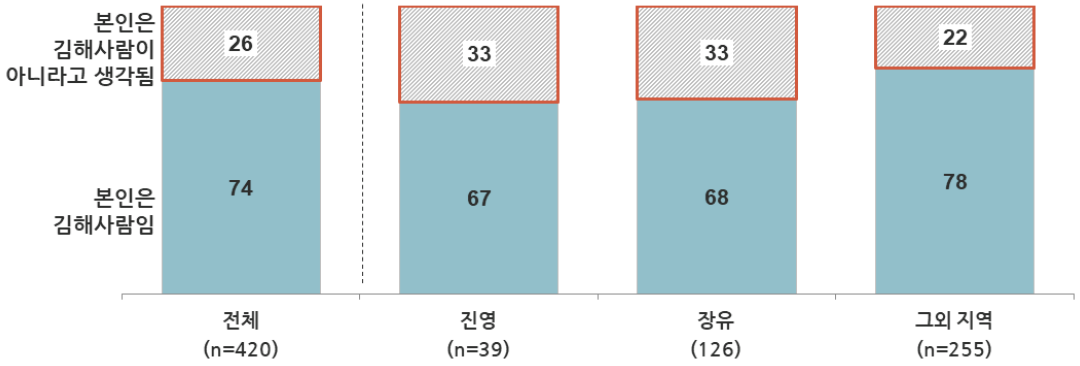
로 개선필요 갈등으로 언급하였음. 즉 이들은 김해에서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 것으로 보여짐.

□ **김해시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지역적, 연령별 인식차이가 존재. 이들을 융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 김해에서 태어난 경우가 대부분인 10~20대는 본인을 김해사람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김해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입된 타 지역 사람들은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도 여전히 본인을 김해사람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

○ 또한 장유지역과 진영지역 사람들은 본인을 김해사람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아 지역적 인식차가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외국인이나 타 소수민족 간 갈등도 있지만 김해지역 내 갈등도 향후 문화공동체로서 고민해야 할 문제임.



□ **문화도시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고민 필요**

○ 고연령층은 김해가 문화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야문화'를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은 반면 연령이 낮아질수록 가야문화 이외에 다양한 문화를 강조하거나 두 문화를 동시에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김해는 문화다양성 도

시로서 여러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임.

○ 전문가 의견과 조사결과를 참조해보았을 때도 현재 김해는 외국인이 많지만 질적 경험이 많지 않고 아직 이들에 대한 수용도도 높지 않은 상황임. 그들만의 공간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과 다른 소수집단들과 서로 유기적으로 엮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김해의 공간의 이슈도 해결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음. 김해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상황임.

부 록

1. 최종 설문

김해 문화다양성 일반 시민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및 '김해문화재단'에서는 김해시민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김해시민들께서 우리사회의 공동체문화와 사회갈등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관련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응답은 향후 김해의 문화다양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셔서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답이나 오답이 없는 설문으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중요합니다.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선생님의 응답은 통계처리에만 활용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0월

□ **조사 주관 기관 : 김해시, (재)김해문화재단**
□ **조사 시행 기관 : ㈜장앤파트너스그룹 (070-8860-6347)**

I. 선정 질문

SQ1. 현재 김해에 살고 계십니까?

① 예 (　　)년째 거주 중　☞ *1년 이상 거주자만 해당*
② 아니오 ☞ *조사 중단*

※ 출장이나 여행으로 김해를 잠시 방문하는 사람, 국적은 한국이나 김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 등은 조사 중단

SQ2. 현재 사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쿼터 체크*

① 진영읍	② 주촌면	③ 진례면	④ 내외동	⑤ 칠산서부동
⑥ 장유1동	⑦ 장유2동	⑧ 장유3동	⑨ 대동면	⑩ 동상동
⑪ 회현동	⑫ 부원동	⑬ 활천동	⑭ 삼안동	⑮ 불암동
⑯ 한림면	⑰ 생림면	⑱ 상동면	⑲ 북부동	

SQ3. 선생님의 연령은? _____세 ☞ *쿼터 체크*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대 ⑧ 80대 이상

SQ4. 성별 *☞ 쿼터 체크*

① 남성 ② 여성 ③ 기타

감사합니다. 조사에 선정되셨습니다. 본 설문은 경우에 따라 다소 민감한 내용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의 솔직한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럼 설문을 시작하겠습니다.

II.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Q1. 다음은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에 표시해 주십시오.

> ‘문화다양성’은 종족(민족)·인종·종교·계급·성·신분·장애·세대 등이 서로 달라도 ‘차이’를 인정하고 다르다고 해서 서로 배척하지 않으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공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우리나라는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나라는 서로 다른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나라는 소수자들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소수자 : 한 사회 안에서 문화적, 신체적으로 구별되어 다수의 구성원에게 차별받는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문화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김해지역은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다	①	②	③	④	⑤
1-7	김해지역은 서로 다른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김해지역은 소수자들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김해에서는 사회문화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10	김해지역은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이다	①	②	③	④	⑤

III. 소수집단에 대한 인식

Q2.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김해 지역에서 사회·문화적 차별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수집단을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① 성 소수자
② 신체적 장애인
③ 정신적 장애인
④ 북한 이탈 주민
⑤ 사할린 이주 동포
⑥ 외국인 근로자
⑦ 결혼 이주민
⑧ 한 부모 가정
⑨ 중도입국자녀 (외국에서 태어났으나 한국에서 생활하는 자녀)
⑩ 난민
⑪ 이주민 자녀 (한국에서 태어나고 생활하는 자녀)
⑫ 타 지역에서 김해로 이사 온 사람
⑬ 조손가정 (조부모와 손자, 손녀로 구성된 가정)
⑭ 김해에 원래 살고 있던 선주민
⑮ 임대아파트 거주민

Q3. 다음 구성원들에 대한 선생님의 경험수준에 대해 표시해 주세요.

문항		한 번도 본 경험이 없음/ 몇 번 본 경험은 있음	몇 번 대화해 본 경험은 있으나 아는 사람은 없음	어느 정도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음	잘 알고 지내는 사람 있음
3-1	성소수자	①	②	③	④
3-2	장애인	①	②	③	④
3-3	북한이탈주민	①	②	③	④
3-4	외국인근로자	①	②	③	④
3-5	결혼이주민	①	②	③	④
3-6	이주민의 자녀	①	②	③	④
3-7	난민	①	②	③	④

Q4. 다음은 아래 우리사회의 각 구성원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얼마나 수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을 읽으시고 선생님의 생각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1	성소수자	1) 성소수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성소수자를 동네이웃(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2	장애인	1) 장애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장애인을 동네이웃(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3	북한이탈주민	1) 북한이탈주민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북한이탈주민을 동네이웃(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4	외국인 근로자	1) 외국인 근로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외국인 근로자를 동네이웃(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5	결혼 이주민	1) 외국 이주민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결혼한 외국 이주민을 동네이웃(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6	이주민의 자녀	1) 이주민의 자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이주민의 자녀를 동네이웃(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7	난민	1) 난민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난민을 동네이웃(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IV. 사회현상에 대한 인식

Q5. 다음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시고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솔직히 표시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각 항목에 대한 경험이 없어도 선생님의 생각을 바탕으로 체크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1	성별	1) 전반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기업 최고 경영자로서 일을 더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엄마가 직장에 다닌다면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	①	②	③	④	⑤
		3) 가정경제는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다른 성별의 옆자리에 앉는 것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2	세대	1) 노인은 사회의 짐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노인은 꼰대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젊은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사회에 무관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젊은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노력이 윗세대보다 노력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5) 김해는 젊은 사람들이 사회활동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5-3	인종	1)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가난한 나라 출신 외국인근로자의 옆자리에 앉는 것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외국인들끼리 진행하는 행사나 축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동상동 등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오는 지역을 가는 것이 꺼려진다	①	②	③	④	⑤
		4) 외국인근로자들은 김해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이주민 자녀가 많은 학교에 내 자녀를 보내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5-4	김해 지역	1) 중요한 업무를 할 때는 아무래도 김해사람끼리 해야 성과가 잘 나온다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지역에서 김해로 이사 온 사람들과 원주민들과의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김해 신도시 사람들과 구도심 사람들 간 갈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5	수도권 및 지방	1) 중요한 혜택은 주로 수도권에 해당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알게 모르게 지방업체들은 차별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6	종교	1) 종교가 서로 다른 사람들과는 깊이 친해지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 알게 모르게 종교로 인한 차별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7	1인가구	1) 1인 가구는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Q6. 선생님께서는 아래의 사회 현상이 김해지역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개선될 필요가 없다	개선되지 않아도 된다	보통이다	개선되어야 한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6-1	성별 불평등	①	②	③	④	⑤
6-2	세대 간 갈등 (연령에 따른 갈등)	①	②	③	④	⑤
6-3	이주민(외국인 근로자, 난민, 인종 등)에 의한 갈등	①	②	③	④	⑤
6-4	김해 지역 출신 사람들과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6-5	신도시와 구도심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6-6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①	②	③	④	⑤
6-7	종교로 인한 갈등	①	②	③	④	⑤

V. 김해관련 의견

Q7. 선생님은 김해에서 태어났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Q8. 선생님은 본인 스스로가 "김해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Q9. 김해는 가야문화, 외국인 이주민, 산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김해가 문화적으로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떠한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문화를 강조하기보다, 가야 문화를 더 강화해야 한다	<========	가야문화와 다양한 문화 둘 다 비슷하게 강조	========>	가야문화보다 그 외 다양한 문화를 더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VI. 인구통계 특징 및 기타

DQ1. 지금까지 외국을 여행하거나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

문항		경험 여부	
1	해외 여행	① 있음 (총 회)	② 없음
2	해외 유학	① 있음 (총 년)	② 없음
3	해외 근무	① 있음 (총 년)	② 없음

DQ2. 지금까지 다음 활동에 참여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문항		경험 여부	
1	성소수자 관련 활동(성소수자 축제참여, 교육, 자원봉사 등)	① 있음	② 없음
2	장애인 관련 활동(장애인 축제참여, 교육, 자원봉사 등)	① 있음	② 없음
3	다문화 관련 활동 (외국문화 축제참여, 교육, 자원봉사 등)	① 있음	② 없음
4	성별 불평등 관련 활동 (성별 불평등 관련 축제 참여, 교육, 자원봉사 등)	① 있음	② 없음
5	시민사회 활동 (환경, 경제, 봉사교육 등 모두 포함)	① 있음	② 없음

DQ3. 직업

① 학생 ② 전업주부 ③ 자영업 ④ 은퇴자/무직

⑤ 농어업자 ⑥ 생산/기능/노무직 ⑦ 판매/영업/서비스직 ⑧ 사무/관리/전문직
⑨ 공무원 ⑩ 군인 ⑪ 기타(_____)

DQ4. 혼인여부

① 미혼 ② 기혼(현재 배우자 있음) ③ 기타 (이혼, 별거, 사별 등 현재 배우자 없음)

DQ5. 가족 형태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기준)

① 1인 가구 ② 2인 가족(부부) ③ 부부+자녀 가족 ④ 3대 가족 ⑤ 기타(_____)

DQ6. 귀댁의 월 가구 총소득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⑦ 600~700만원 미만 ⑧ 700~800만원 미만 ⑨ 800만원 이상
⑩ 모름/ 응답거절

DQ7. 최종학력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전문대 졸업 ⑤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졸업 이상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